

지역경제보고서

2019. 9

본 자료는 한국은행의 15개 지역본부가 2019년 8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권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최근 지역경제 상황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추후 발표되는 공식통계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 비전 및 조직가치

설립목적

-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

비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선진 중앙은행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 수행으로 경제안정을 주도하고 금융·경제에 대한 권위있는 조사 연구와 국민편의 위주의 금융·경제서비스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중앙은행을 지향

조직가치

- **공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함
- **중립**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 **책임** 주인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책무를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음
- **소통** 임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함
- **전문성**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어 책무 수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함

차례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이슈 모니터링: 제조업체의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점검

I. 최근 지역경제 동향

1. 종합 동향	11
2. 수도권	23
3. 동남권	31
4. 충청권	39
5. 호남권	47
6. 대경권	54
7. 강원권	61
8. 제주권	68

II. 현장리포트

	75
--	----

III. 특별기획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과 미래 도시발전의 모범사례, 볼프스부르크	111
--	-----

IV. 지역경제 연구

1. 울산-전남지역 조선업 현황과 발전전략	119
2.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135

V. 지표로 보는 지역경제

	147
--	-----

부록

	15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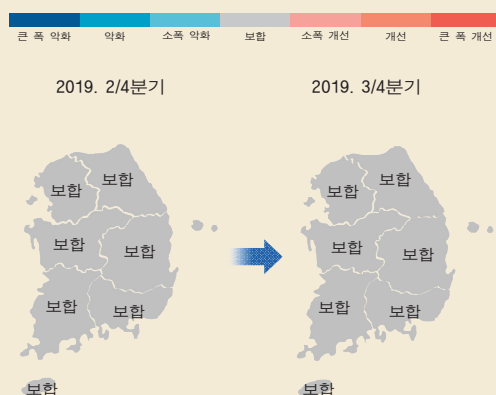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자료 목록	
----------------------	--

최근 지역경제 동향 요약

경기 개황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 3/4분기중 권역별 경기는 성장세 둔화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2/4분기 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역별 경기¹⁾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고용 및 금융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모니터링 결과 향후 권역별 경기는 제주권이 소폭 개선되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생산

제조업 생산은 대경권이 디스플레이와 기계장비, 강원권이 시멘트와 자동차부품, 제주권이 비알콜음료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자동차가 증가하였으나 디스플레이, 휴대폰, 의약품, 철강, 석유화학·정제 및 기계장비가 감소하면서, 동남권은 조선, 금속가공, 자동차 및 철강을 중심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충청권은 석유화학과 전기장비가 증가한 반면 철강이 부진하면서, 호남권은 자동차, 조선 및 음식료품이 증가하였으나 철강이 감소하면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대경권, 강원권 및 제주권이 국내외 관광객 확대로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동남권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수도권, 충청권 및 호남권은 보합 수준에 그쳤다.

3/4분기중 권역별 생산¹⁾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수도권	◇	◇
동남권	◇	▼
충청권	◇	◇
호남권	◇	◇
대경권	▼	▲
강원권	▼	▲
제주권	▼	▲

주: 1) 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에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충청권 등 나머지 권역은 주력산업의 업황이 엇갈리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강원권과 제주권이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객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나, 수도권 등 나머지 권역에서는 업종별 상황이 엇갈리면서 대체로 3/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요

소비는 수도권, 동남권 및 강원권이 냉방기전 판매 등의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나머지 권역은 전기 수준을 나타냈다.

설비투자는 동남권이 조선, 금속가공, 철강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권역은 전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민간부문이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하면서 전 권역에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수출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호남권, 대경권 및 제주권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동남권과 강원권은 전년동기 수준에 머물렀다.

3/4분기중 권역별 수요¹⁾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전년동기대비)
수도권	▼	◇	◇	▼
동남권	▼	▲	◇	◇
충청권	◇	◇	◇	▼
호남권	◇	◇	◇	▼
대경권	◇	◇	◇	▼
강원권	▼	◇	◇	◇
제주권	◇	◇	◇	▼

주: 1) 전기대비(단,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수도권, 충청권 및 강원권이 정부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남권과 제주권은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호남권과 대경권은 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전 권역에서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투자는 제주권이 SOC 및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나, 강원권이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의 경우, 강원권이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및 식료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은 대부분 업종에서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충청권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및 자동차부품,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품과 철강, 대경권은 철강, 디스플레이 및 기계장비, 제주권은 반도체 설계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은 전년동기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

7-8월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7.6만명 증가하여 2/4분기(23.7만명)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호남권 및 강원권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동남권은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대경권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충청권과 제주권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제조업은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자영업자는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7~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0.3%로 2/4분기(0.4%)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농축산물가격이 기상여건 호조 및 수요 둔화 영향으로 하락으로 전환한 데다 석유류가격이 국제 유가 안정화 등으로 하락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7~8월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하락폭이 2/4분기에 비해 축소되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대경권의 하락세는 둔화된 반면 동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은 하락세가 확대되었다. 수도권은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되었다.

기업자금사정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및 제주권이 소폭 악화되었으며, 충청권, 호남권 및 강원권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조선, 자동차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석유화학·정제업, 건설업 및 도소매업은 다소 악화되었다.

부문		동향
IT	반도체	수도권과 충청권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보합 수준
	디스플레이	수도권은 TV용 대형 OLED 패널 증가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감산 등으로, 대경권은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정체 및 LCD 패널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충청권은 중소형 OLED 패널 수요가 확대되었으나 일부 LCD 패널의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및 감산 등으로 보합 수준
	휴대폰	수도권은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체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대경권은 신제품 출시 등 증가요인과 해외 생산 및 부품의 현지조달 확대 등 감소요인이 혼재하면서 보합 수준
자동차	완성차	수도권은 SUV와 친환경차의 수출 호조로, 충청권과 호남권은 신차 출시 효과로 증가하였으나, 동남권은 SUV의 북미 및 유럽 시장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 부진으로 보합 수준
	자동차부품	대경권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신차 출시 및 북미지역 수출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충청권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현지공장 생산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동남권은 미국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내수판매 둔화로 보합 수준
석유화학 · 정제	석유화학	충청권은 정기보수 등 전기중 조업중단 요인이 해소되면서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도권과 동남권은 글로벌 수요 둔화, 제품마진 축소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호남권은 보합세를 지속
	정제	동남권과 호남권은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시설정비 지속 등으로 보합 수준
철강		수도권, 충청권 및 호남권은 중국산 철강공급 증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동남권과 대경권은 각각 선박·자동차 관련 내수판매 증가와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합 수준
조선		호남권은 수주물량 증가, 건조량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동남권은 2017년 이후 수주한 물량의 건조를 이어가면서 보합 수준
기계장비		수도권, 동남권 및 대경권은 중국의 건설기계 수요 감소,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글로벌 수요 둔화,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감소

이슈 모니터링: 제조업체의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 점검¹⁾

- ✓ 전국 19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소재부품²⁾의 조달 리스크**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45.7%**는 1년 전에 비해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응답³⁾
 - 전체 조사업체중 **해외조달 리스크** 상승 업체는 43.2%, **국내조달 리스크** 상승 업체는 16.1%였으며, 특히 일본(33.7%)과 중국(17.6%) 관련 조달 리스크가 상승
 - **리스크 유형별로 보면**, **일본** 관련 리스크는 **무역규제** 및 **납품지연**을, **중국** 관련 리스크는 **가격급등** 및 **무역규제**를 특히 우려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IT 등에서,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높았음
- ✓ 소재부품의 조달 차질시 **대체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 32.5%, 3~6개월 31.0%, 6개월~1년 16.2%, 1년 이상 5.5%였으며, 대체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14.8%를 차지
 - 대체 불가능 또는 대체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는 품질수준 저하(35.8%), 납기 미충족(16.6%), 조달비용 상승(15.9%) 등을 들었으며, 상당수가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컴퓨터전자광학기기제품에 분포
- ✓ **조달 리스크 축소를 위한 대응업체**는 조사업체의 **68.8%**에 달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구매선 다변화(34.8%), 예비거래처 확보(26.0%), 재고보유 확대(25.7%), 국산화(9.7%), 해외기업 자본 투자(2.4%) 등을 추진
- ✓ **국산화 추진의 걸림돌**로는 기술연구개발인력 부족(23.7%), 국내수요 부족(21.2%), 기술개발자금 부족(14.4%), 환경·생산활동 규제(13.9%) 등을 거론
- ✓ **소재부품 국산화 및 조달 안정화 정책**으로는 투자세액공제 강화(21.2%), 공급-수요기업 공동개발상품화 지원(17.3%), 해외공급처 다변화 지원(14.8%), 환경입지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13.2%), 정부출연연구소 R&D 지원(12.4%), R&D자금 저리 융자(12.0%) 등을 선호

1)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강남본부 제외)가 8월 15일~9월 5일중 전국 19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당초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340개 업체중 199개 업체가 응답(부분 응답 포함, 응답률 58.5%)하였으며 응답업체는 대기업 68개(34.2%), 중견기업 89개(44.7%), 중소기업 42개(21.1%), 업종별로는 자동차 44개(22.1%), IT 36개(18.1%), 기계장비(전기장비 포함) 28개(14.1%), 석유화학 24개(12.1%)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업체별 주요 소재·부품은 자사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에 크게 기여하거나 첨단핵심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조달 차질시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품목을 자체 선정토록 하였으며, 화학제품(21.4%), 1차금속(19.3%), 컴퓨터전자광학기기(16.4%), 기계·장비(9.9%), 기타 제조업체품(8.4%), 금속가공제품(7.6%) 등에 주로 분포하였다.

3) 업체들이 선정한 주요 소재·부품 중 1년 전에 비해 한 가지라도 조달 리스크가 높아졌을 경우 리스크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국 19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소재부품의 조달 리스크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45.7%는 1년 전에 비해 소재부품 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공급처별 · 업종별 조달 리스크)

공급처별로는 해외 공급 소재부품중 조달 리스크가 높아진 품목이 있다는 업체가 43.2%였으며, 일본(33.7%), 중국(17.6%), 유럽(7.0%), 미국(6.0%) 등의 순으로 리스크가 높아진 소재부품이 많았다. 국내 조달 소재부품⁴⁾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업체도 16.1%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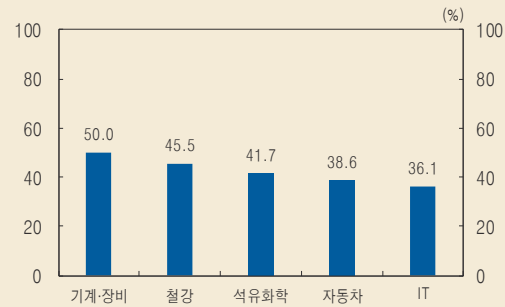
공급처별 조달 리스크 상승 업체¹⁾

	업체수 ²⁾	비율
해외조달	86	43.2
(일 본)	67	33.7
(중 국)	35	17.6
(유 럽)	14	7.0
(미 국)	12	6.0
(기 타)	20	10.1
국내조달	32	16.1
전 체	91	45.7

주: 1) 1년 전에 비해 국내외 조달업체 사정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약간 높다', '매우 높다'를 선택한 업체수
2) 복수 공급처로부터의 조달이 가능하므로 공급처별 업체수 합이 전체 업체수와 불일치

업종별로 조달 리스크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기계·장비(50.0%), 철강(45.5%), 석유·화학(41.7%), 자동차(38.6%), IT(36.1%)의 순으로 높았다.

업종별 조달 리스크 상승 업체 비율¹⁾



주: 1) 1년 전에 비해 국내외 조달업체 사정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약간 높다', '매우 높다'를 선택한 업체수를 해당 업종의 응답 업체수로 나누어 계산
2) 기계·장비 업종에는 전기·전자 포함

(규모별 · 내수/수출기업별 조달 리스크)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41.4%, 중견기업의 46.7%, 중소기업의 43.2%에서 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내수기업(43.3%)보다는 수출기업(48.4%)의 조달 리스크 상승 업체 비율이 더 높았다.

기업 규모 및 내수/수출기업¹⁾별 조달 리스크 상승 업체 비율

전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45.7	41.4	46.7	43.2	43.3	48.4

주: 1)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조달 리스크 유형)

조달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무역규제, 납품지연, 가격급등, 품질악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본 소재부품은 무역규제(27.1%), 납품지연(20.1%), 가격급등(15.1%), 품질악화(3.5%) 순으로, 중국 소재부품은 가격급등(11.1%), 무역규제(7.5%), 납품지연(6.0%), 품질악화(5.5%) 순으로 우려가 높았다.

4) 순수 국내 소재부품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의 국내지사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급 국가별·리스크 유형별 리스크 상승 업체 비율¹⁾ (%)

	무역규제	납품지연	가격급등	품질악화
일본	27.1	20.1	15.1	3.5
중국	7.5	6.0	11.1	5.5
미국	3.0	1.5	4.5	-
유럽	2.5	2.0	6.0	-
기타	4.0	3.5	5.5	3.5
국내	5.5	3.5	11.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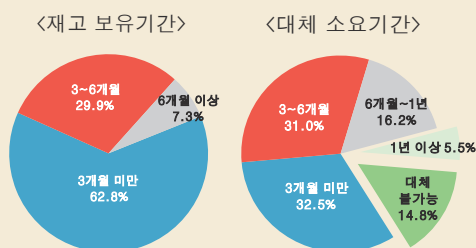
주: 1) 해당 국가의 해당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업체수를 전체 조사업체수로 나누어 산출

(재고 보유기간 및 대체 소요기간)

주요 소재부품의 재고 보유기간은 3개월 미만 62.8%, 3~6개월 29.9%, 6개월 이상 7.3%였으며,

소재부품 조달 차질시 대체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 32.5%, 3~6개월 31.0%, 6~12개월 16.2%, 1년 이상 5.5%, 대체 불가능 14.8%로 조사되었다.

주요 소재·부품의 재고 보유기간 및 대체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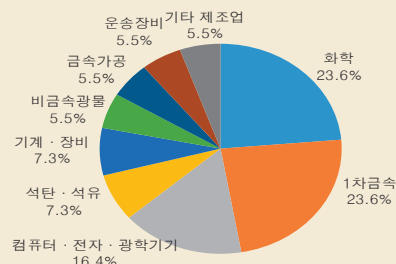
대체가 어려운 소재부품(대체 불가능 또는 대체 1년 이상 소요)이 있다는 답변 비율은 대기업(38.2%)과 중소기업(32.5%)에서 더 높았으며, 상당수가 화학제품(23.6%), 1차금속제품(23.6%), 컴퓨터전자광학기기(16.4%) 등이었다.

기업 규모별 대체 곤란¹⁾ 소재·부품 보유 업체 비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38.2	16.9	32.5

주: 1) 대체 불가능 또는 대체 소요기간 1년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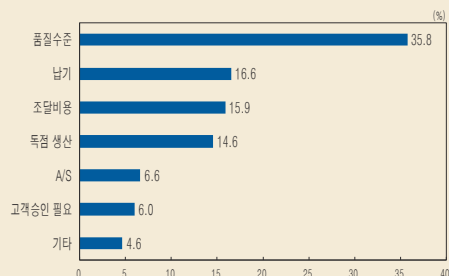
대체 곤란¹⁾ 소재·부품의 품목별 구성비



주: 1) 대체 불가능 또는 대체 소요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소재부품의 대체가 어려운 이유로는 품질수준 저하(35.8%), 납기 미충족(16.6%), 조달비용 상승(15.9%), 현 거래처 독점생산(14.6%)을 들었으며, A/S 곤란(6.6%), 고객사 승인 필요(6.0%) 등의 응답도 있었다.

소재·부품 대체가 어려운 이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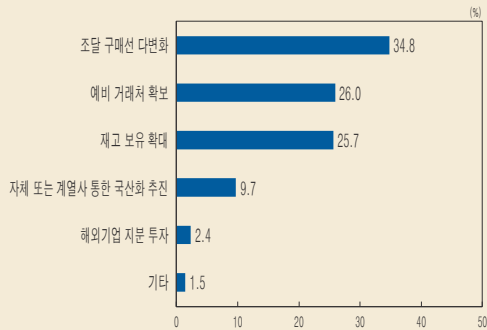
주: 1) 복수 응답

(조달 리스크 대응)

조달 리스크 축소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업체는 68.8%였으며, 특히 일본과 중국 조달 리스크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업체들의 대응 비율이 각각 86.6%, 77.1%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0.0%가 대응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중견기업은 65.9%, 중소기업은 56.4%만이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달 리스크 축소를 위한 구체적 대응 방법으로는 구매선 다변화(34.8%), 예비 거래처 확보(26.0%), 재고 보유 확대(25.7%) 등의 순으로 많았고, 국산화 추진(9.7%)과 해외기업 자본 투자(2.4%)를 통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해외조달 리스크 대응 방안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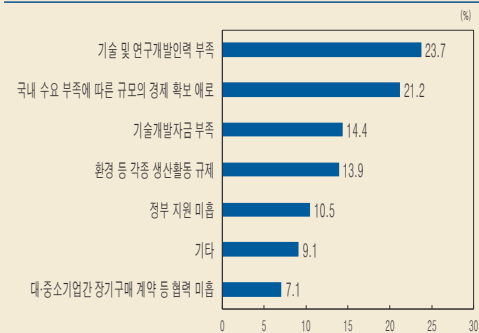


주: 1) 복수 응답

(국산화 장애 요인 및 대응 정책)

한편 응답 업체들은 국산화의 장애 요인으로 기술 연구개발인력 부족(23.7%), 국내수요 부족(21.2%), 기술개발자금 부족(14.4%), 환경·생산활동 규제(13.9%) 등을 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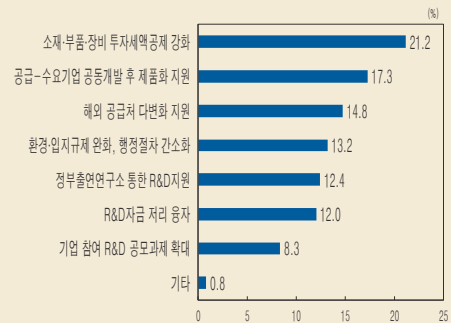
소재·부품 국산화 장애 요인¹⁾



주: 1) 복수 응답

업체들은 소재·부품 국산화 및 조달 안정화를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투자세액공제 강화(21.2%), 공급-수요기업 공동개발·상품화 지원(17.3%), 해외 공급처 다변화 지원(14.8%), 환경입지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13.2%), 정부출연연구소 통한 R&D 지원(12.4%), R&D자금 저리 융자(12.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국산화 및 안정화 효과가 높은 정책¹⁾



주: 1) 복수 응답

I

최근 지역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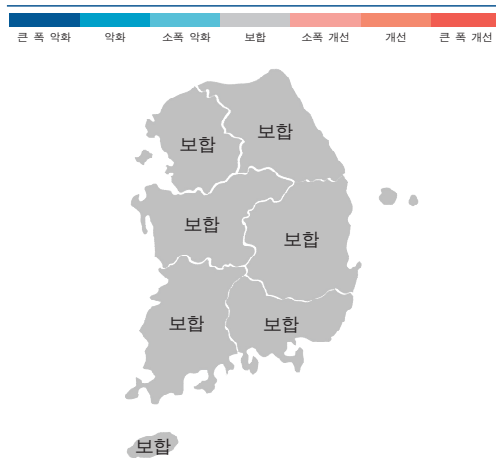
1. 종합 동향	11
2. 수도권	23
3. 동남권	31
4. 충청권	39
5. 호남권	47
6. 대경권	54
7. 강원권	61
8. 제주권	68

1. 종합 동향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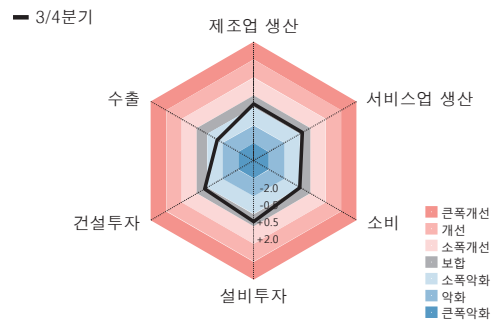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권역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3/4분기중 권역별 경기는 성장세 둔화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2/4분기 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3/4분기중 권역별 경기 동향¹⁾



주: 1) 권역별로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입수한 생산, 수요, 고용 및 금융 동향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

경기 레이다²⁾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한 것으로 -0.5 미만은 악화(감소), -0.5~+0.5는 보합, +0.5 초과는 개선(증가)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생산

(제조업 생산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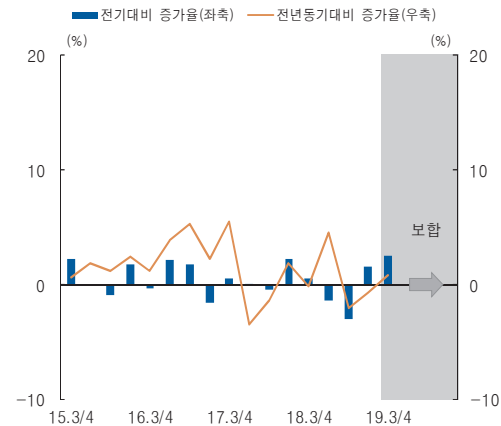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대경권, 강원권 및 제주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및 호남권은 대체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은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패널 생산 정제 및 중국업체의 LCD 패널 생산 확대 지속으로, 기계장비는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글로벌 수요 둔화¹⁾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강원권은 시멘트가 건설경기 부진 및 수출 증가세 둔화로, 자동차부품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제주권은 비알콜음료가 경쟁 심화로, 비금속광물제품이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수도권은 자동차가 SUV와 친환경차의 수출 호조²⁾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이 늘었으나 생산비중이 큰 LCD 패널이 주요 업체의 감산으로 줄었고, 휴대폰은 주요 업체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³⁾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주 부진 등으로, 철강은 건설물량 감소에 따른 철근 수요 급감으로, 석유화학정제는 석유화학제품 마진 축소⁴⁾ 등으로, 기계장비는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및 중국시장 판매실적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반도체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가격 하락세 둔화로 보합 수준을 보였다. 동남권은 조선이 2017년 이후 수주한 물량⁵⁾의 건조를 이어가면서 보합을 나타냈고, 금속가공은 원자력발전 및 풍력발전 부품의 부

진을 선박과 산업플랜트 부품의 증가가 상쇄하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동차는 미국 등으로의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내수판매가 부진하여 보합 수준을 보였다. 철강은 선박과 자동차 관련 내수판매가 늘었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철근 생산이 감소한 데다 수출도 부진하여 보합 수준에 그쳤다. 한편 기계장비는 대중 수출 감소,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내수 축소 등으로,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소폭 감소하였다. **충청권**은 석유화학이 정기보수, 화학사고, 파업 등 전기 조업중단 요인이 해소되면서, 전기장비는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⁶⁾ 등에 따른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자동차가 신차 판매 호조로, 조선이 수주물량 증가 및 건조량 확대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음식료품은 생산능력 확대, 신제품 판매 호조 및 육계 가공제품 생산량 확대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철강은 원재료인 철광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로 감소하였다.

제조업 생산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막대 및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3/4분기중 권역별 제조업 생산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는 각각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하겠으나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은 디스플레이가 연말 TV 교체 수요 확대 등으로, 자동차가 신차 출시로, 의약품이 바

- 1) 최근 주요국(중국, 일본, 독일, 인도,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 추세(전년동기대비, 1/4분기 -7.3% → 2/4분기 -12.3% → 7월 -14.7%)를 나타내고 있다.
- 2) 7월중 스톡(소형 SUV) 수출대수(8,052대)는 전년동기대비 51.4%,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모델로만 출시된 니로(소형 SUV)의 수출대수(9,919대)는 전년동기대비 41.3% 증가하였다.
- 3) LG전자는 생산거점의 베트남 이전을 위해 평택공장의 스마트폰 생산물량을 6월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전 작업을 연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 4) 휘발유 수요 증가로 원재료인 혼합자일렌(MX)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의 주요 생산·수출품인 파라자일렌(PX)의 톤당 마진이 7~8월중 329달러로 2/4분기(월평균 368달러) 및 전년동기(559달러)대비 각각 10.5%, 41.1% 하락하였다.
- 5) 8월말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잔량은 2,044만CGT로 5월말(2,112만CGT)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6)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까지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규제(2015년 130g/km 이하 → 2019년 95g/km 이하)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며, 4월에 추가 규제안(2021년 대비 2030년 배출량 -37.5% 승용차 기준)을 채택하였다.

이오시밀러 제품의 북미시장 출시⁷⁾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동남권**은 조선이 LNG선⁸⁾ 및 VLCC(초대형 유조선) 수주건조 지속, 친환경 선박 및 부품 등의 건조한 수요로, 금속가공이 선박 건조업 및 해외 플랜트 건설부문의 수요 회복으로, 철강은 철광석 등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계장비는 중국·미국의 수요 둔화 및 내수 부진으로, 석유화학·정제는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중국업체들의 공급능력 확대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반도체가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일부 회복⁹⁾ 등으로, 전기장비가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전지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석유화학은 글로벌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 확대 및 정기보수로, 철강은 전방산업 부진 지속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호남권**은 자동차가 신차 판매 증가로, 조선이 양호한 수주 실적으로, 음식료품이 육가공업체의 신규 설비가동 확대로 증가하겠으나, 석유화학과 철강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경권**은 휴대폰이 5G 상용화, 폴더블폰 출시 등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나 철강이 글로벌 무역규제 기조 등으로, 디스플레이가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 지속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원권**은 음식료품이

주류의 내수 판매 확대, 신제품 출시 등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나, 자동차부품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신차 양산 지연¹⁰⁾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권**은 비알콜음료가 소폭 증가하겠으나 비금속광물제품은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은 대경권, 강원권 및 제주권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동남권은 소폭 감소, 수도권, 충청권 및 호남권은 보합 수준에 그쳤다.

대경권은 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업이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증가, 주택거래량 확대¹¹⁾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강원권**은 일본 여행 기피에 따른 반사이익¹²⁾, 신규 시설을 확충한 리조트 매출 호조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제주권**은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도소매업, 렌터카업,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동남권**은 도소매업이 계절용품 판매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숙박·음식점업도 내국인 및 중국·동남아 중심의 외국인¹³⁾ 숙박은 늘었으나 음식점 매출이 부진하여 소폭 감소하였다.

- 7) 하반기중 셀트리온의 트룩시마(혈액암 치료제) 및 허주마(유방암 치료제)의 미국시장 출시를 앞두고 해당 제품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동사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4월 트룩시마 시판 허가를 얻은 데 이어 9월 허주마 시판 허가를 획득하였다.
- 8) 업계에서는 중국, 동남아 등의 LNG 수요 확대에 따라 세계 LNG선 발주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중 70~80%를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9) 시장조사기관 DIGITIMES Research는 3/4분기 서버 출하량이 2/4분기 대비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삼성전자도 실적발표회(7.31일)를 통해 3/4분기 이후 메모리 수요가 주요 데이터센터의 재고 감소 등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10) 현대자동차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고급형 세단(G80) 신형 모델 출시를 9월에서 내년 초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의 자동차부품 납품이 당초 계획대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11) 7월중 대경권 주택거래량(11,975건)은 2/4분기(월평균, 10,452건) 대비 14.6% 증가하였다(한국감정원).
- 12)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행을 계획한 국민의 43.8%가 여행을 취소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한 뒤 국내로 목적지를 전환하였다. 이 중 20.4%가 강원도를 방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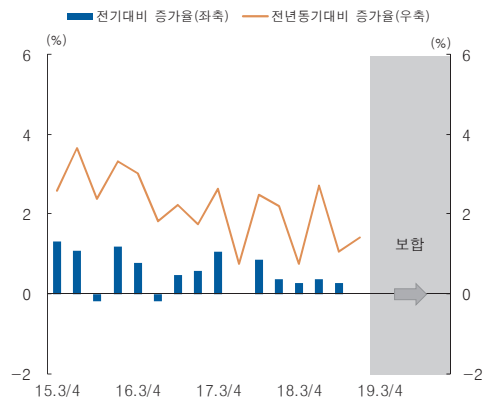
한편 **수도권**은 운수업이 해상화물운송과 일본 노선 여객운송¹⁴⁾이 크게 줄어들면서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등 대부분 업종이 보합 수준을 보였다. **충청권**은 운수업과 부동산업이 여객 수요 및 주택거래량 확대¹⁵⁾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은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도소매업, 부동산업 및 운수업을 중심으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강원권과 제주권이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객 확대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겠으나, 수도권 등 나머지 권역에서는 업종별 상황이 엇갈리면서 대체로 3/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요

(소비 보합)

서비스업 생산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3/4분기중 소비는 수도권, 동남권 및 강원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권역은 전기 수준을 나타냈다.

수도권은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냉방가전¹⁶⁾, 의류 등 판매가 부진하였다. **동남권**은 냉방가전, 승용차 등 내구재와 화장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가 소폭 감소하였다. **강원권**은 소비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충청권**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¹⁷⁾로 가구 등 판매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냉방용품, 의류, 잡화 등의 부진으로 보합 수준에 그쳤다. **호남권**은 신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가전제품, 가구 등도 아파트 입주물량 확대¹⁸⁾로 증가하였으나 냉방기기 및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하였다. **대경권**도 승용차 판매는 소폭 증가한 반면, 에어컨 등 가전제품 판매가 소폭 감소하였다. **제**

3/4분기중 권역별 서비스업 생산¹⁾



주: 1) 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는 각각 증가, 보합, 감소를 나타냄

13) 7월중 부산방문 외국인관광객(22.2만명)은 전년동월대비 11.8%, 김해공항과 부산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각각 10.3%, 27.1% 증가하였다.

14) 8월중 국적기 기준 일본노선 여객승객수(인천공항 출발편 및 도착편 합계)는 883,787명으로 7월(1,022,929명) 대비 13.6%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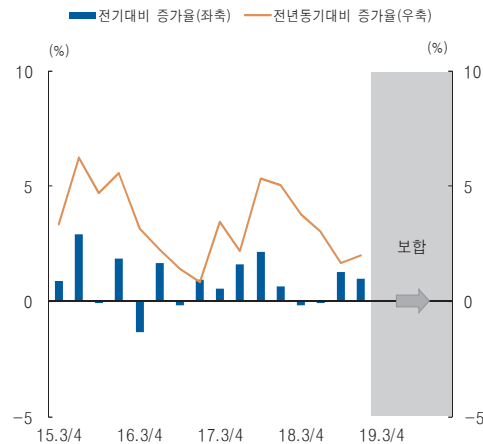
15) 7~8월중 충청지역 주택매매거래는 2/4분기(월평균) 대비 10.9% 증가하였다(한국감정원).

16) 7월 및 8월 서울지역 평균기온은 각각 25.9°C, 27.2°C로 전년동월 평균기온인 27.8°C, 28.8°C보다 낮았다.

17) 3/4분기중 충청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3,244호로 2/4분기(8,327호) 대비 59.0% 증가하였다.

주권은 의료서비스¹⁹⁾ 등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에어컨, 자동차 판매²⁰⁾ 등이 부진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⁸⁾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3/4분기중 권역별 소비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는 각각 보합, 감소를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수도권, 충청권 및 강원권이 소폭 증가하겠으나, 동남권과 제주권은 소폭 감소, 호남권과 대경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자동차 구매 유인 증대²¹⁾, 정부 지출 확대²²⁾ 등이, **강원권**은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추경예산 집행²³⁾,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²⁴⁾ 등이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동남권과 제주권**은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소폭 감소하겠으며, **호남권과 대경권**은 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보합)

3/4분기중 설비투자는 동남권에서만 소폭 증가하고 나머지 권역은 전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은 대형 조선업체가 LNG선 및 초대형 선박 중심의 생산설비 변경²⁵⁾을 진행하고, 선박 부품 및 금속가공 업체의 선박관련 친환경제품 생산 등을 위한 투자도 소폭 증가하였다. 철강업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생산효율 개선, 오염물질 배출완화 등을 위한 투자를 하였다.

18) 3/4분기중 호남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8,703세대로 2/4분기(5,816세대)보다 49.6% 증가하였다.

19)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었다.

20) 7월부터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중형 이상 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 선구매 등으로 2/4분기 제주지역 자동차 구매액(신한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72.2% 증가하였다.

21)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6월)되었으며, 기아자동차의 모하비(9월)와 K5(11월), 제네시스 SUV 모델 GV80(11월) 등 국산 신차 출시 및 아우디코리아의 판매 재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재개(8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9월) 등에 이어 4/4분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10월), 근로장려금(9월, 12월) 지급 규모 및 대상 확대 등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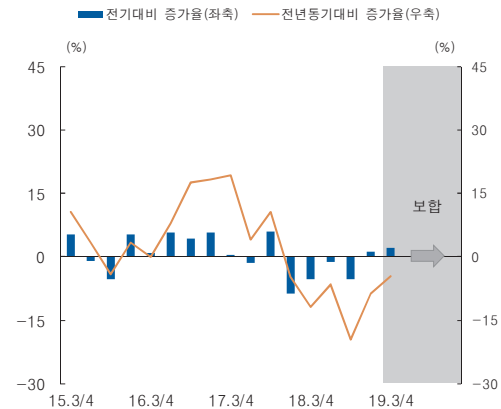
23) 강원도는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 305억원, 건물 철거비 14억원, 피해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도 보강 63억원 등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였다.

24) 강원도는 7월말 도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40~7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5) 현대중공업은 2020년까지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장치, 소재 자동화라인 등 대형선박 중심의 설비변경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은 디스플레이²⁶⁾ 및 기계장비 제조업의 투자가 늘어난 반면 반도체 제조업은 대외 불확실성, 철강업은 주요 업체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²⁷⁾ 등으로 투자가 감소하였다. 충청권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²⁸⁾되고 주력 차종의 부분변경 모델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디스플레이, 철강 및 석유화학 제조업 등의 투자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업²⁹⁾, 철강업³⁰⁾, 음식료업³¹⁾ 등을 중심으로 전기 수준의 투자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경권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 노후 공장 증설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투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휴대폰, 철강, 자동차부품 및 섬유 등 제조업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머물렀다. 강원권은 전기장비³²⁾ 및 의류기기 제조업의 투자가 지속되었으나 시멘트 제조업, 리조트업 등에서는 기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에 그쳤다. 제주권은 일부 대형면세점의 개·보수,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도입 등을 중심으로 전기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비투자지수¹⁾²³⁾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막대 및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3) 2015=100 기준
 자료: 통계청

3/4분기중 권역별 설비투자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는 각각 증가, 보합을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모든 권역에서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은 석유화학정제 및 철강 제조업에서 주요 설비 보수 등이 증가하겠으나, 의약품 제

26) LG디스플레이는 당초 금년 말에서 내년 초로 계획했던 파주 P10 공장(10.5세대 OLED라인)의 장비 입고를 6월로 앞당겨 시작하였다.
 27) KG그룹은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을 인수 후 통합하여 KG동부제철을 출범(9.2일)시켰다.
 28) 삼성전자는 금년중 계획된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7.31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한편 충청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전년동기대비, 1/4분기 -79.2% → 2/4분기 -61.3%)하였으나 7월에는 23.6%로 증가 전환하였다.
 29) 여천NCC는 2020년 가동을 목표로 7,400억원 규모의 부타디엔 공장을, GS칼텍스는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여수 제2공장 인근에 2.7조원 규모의 올레핀 생산시설(Mixed Feed Cracker, MFC)을, LG화학은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여수공장 확장단지내 2.6조원 규모의 NCC와 고부가 폴리올레핀(PO)공장을 증설중이다. 아울러 6월중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은 2023년까지 3,250억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확충하는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30) 포스코는 울진지방산업단지에 작년 8월~금년 5월까지 연간 6천톤 생산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는 1단계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연간 2.4만톤 규모의 2단계 투자를 진행중이다.
 31) 하림은 익산4산업단지에 하림푸드 콤플렉스(2020년 예정)를 건설중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식품가공 플랜트 건립(2022년 예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8,800억원을 투입하여 3개의 공장을 연결한 하림푸드 트라이앵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2) LS전선(해저케이블 생산 업체)은 동해사업장 인근에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증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업 투자는 공장증설 완료로 소폭 감소하고 반도체 제조업은 신규 투자 이연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남권**은 조선업의 노후 생산설비 교체, 석유화학·정제업의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설비확충 등을 중심으로 전기 수준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대부분 업종에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보수적인 투자 태도를 견지하면서 보험 수준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업, 철강업이 신·증설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다른 업종들은 기존설비 유지·보수 수준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경권**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투자가 업황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겠으며 휴대폰, 철강,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섬유 제조업 등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권**은 의료기기 및 식료품 제조업의 투자가 늘어나겠으나, 대부분 업체들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를 보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주권**은 고급호텔의 리모델링 등이 예정되어 있으나 여타 업종의 투자는 대체로 보험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 포함)

3/4분기중 건설투자는 전 권역에서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민간부문이 주택착공실적 및 건물건설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공공부문은 토목건설 수주 증가³³⁾, SOC 관련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부진이 완화되었다. **동남권**은 토목건설이 부산항 신항 개발공사 착공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거용 건물건설이 아파트 분양물량 축소 등으로 부진을 지속하였다. **충청권**은 비주거용 건물건설이 세종지역 신규 개발사업³⁴⁾으로 증가한 반면, 주거용 건물건설이 신규착공 부진으로, 토목건설도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집행 축소 등으로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공공부문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³⁵⁾, 새만금 관련 공사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이 건축 허가 및 착공 축소 등으로 감소하였다. **대경권**은 민간부문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 신규 착공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생활밀착형 SOC 공사³⁶⁾가 이어지면서 대체로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강원권**은 토목건설이 동해안 발전소 공사 지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공사가 재개³⁷⁾되면서 보험 수준을 보였으나, 주거용 건물건설은 미분양 물량 과다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었다. **제주권**은 공공부문에서 SOC사업³⁸⁾ 등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민간

33) 상반기중 수도권 토목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96.8%, 전기대비 35.0% 증가하였다.

34) 6월중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해밀리(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455억원), 8월중 세종세무서(326억원)가 착공된 데 이어 7월 이후 세종 해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825억원) 공사가 순차적으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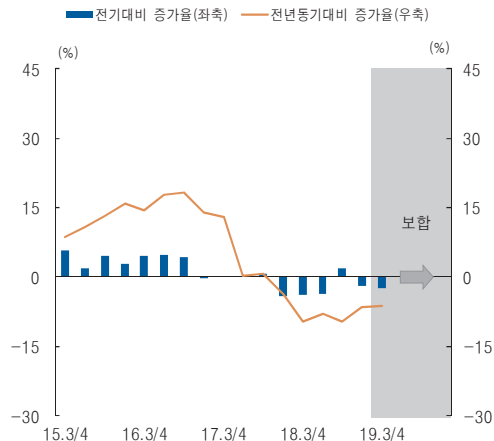
35) 9월 5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되었다. 2조 1,761억원이 투입되어 41.8km 노선이 신설되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36)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달리 복지, 체육시설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시설을 의미한다. 상반기중 대구도서관 등 6곳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37)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기존 계약(강원중도개발공사와 STX건설 간)이 계약해지로 합의되면서, 멀린社(레고랜드 사업 해외투자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현대건설)와 2021년 개장을 목표로 9월부터 골조 등 본공사를 시작하였다. 기존 시공사 STX건설은 잔여 기반 및 복도 공사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부분은 미분양 주택 증가, 건설수주 감소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었다.

건설기성액¹²⁾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막대 및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3/4분기중 권역별 건설투자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는 보합을 나타냄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제주권이 소폭 증가하겠으나 강원권이 소폭 감소하고 나머지 권역은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권은 대규모 SOC 사업 발주³⁹⁾ 및 민간투자사업 재개⁴⁰⁾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원권**은 토목건설이 전기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⁴¹⁾

한편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및 대경권**은 공공부분이 대형공사 진행 등으로 대체로 증가세를 지속하겠으나 민간부분이 부진을 지속하면서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소폭 감소)

3/4분기중 수출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고 호남권, 대경권 및 제주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며 동남권과 강원권은 전년 동기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은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디스플레이가 LCD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휴대폰이 글로벌 수요 둔화,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의약품은 주요 업체의 가동률 회복 지연으로, 석유화학·정제품은 마진 축소⁴²⁾로, 기계장비는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감소하였다. **충청권**은 반도체가 수출단가 하락세 지속으로 감소세를 보

38) 8월 23일 회복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가 입찰되었으며, 남제주북화력발전소 사업(총사업비 3,821억원, 3월 착공) 등이 진행중이다.

39) 4/4분기중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개설공사,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건축,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등의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4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시행사인 녹지그룹은 잔여 미지급공사대금 전액을 시공사에 지급(8.30일)하며 공사 재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사인 람정개발은 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PF자금조달(약 3,700억원)에 성공하는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들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1) 강원도는 피해 주민 지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산불피해 복구비를 중심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와 같은 생활형 SOC 등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미국 및 중국 정유사의 생산규모 증설 등으로 석유제품의 글로벌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정유업체 석유제품의 복합정제마진이 2018년 3/4분기중 배럴당 약 6달러에서 금년 7~8월중 5달러 수준으로 약 17%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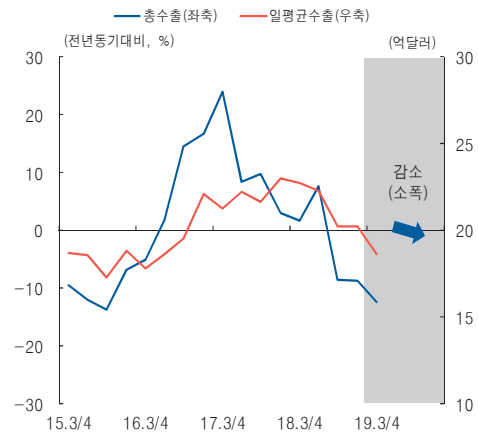
였다.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의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OLED 패널가격 하락⁴³⁾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자동차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현지 생산·판매 부진⁴⁴⁾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제품은 유가 약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철강은 중국 등의 생산량 증가 및 전방산업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제품이 국제유가 하락, 아시아지역 정제설비 신규 가동⁴⁵⁾ 및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감소하였다. 철강은 글로벌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요 정체로 소폭 감소하였다. **대경권**은 휴대폰 및 부품이 해외 생산 및 현지조달 확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둔화⁴⁶⁾ 등으로 감소하였다. 철강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으로, 디스플레이는 중국업체의 생산 확대로, 자동차부품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현지생산 부진 지속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제주권**은 반도체 설계 수출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동남권**은 선박 및 부품이 2017년 수주 회복 이후 생산물량이 본격 인도되면서 큰 폭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SUV 및 친환경차의 미국 및 유럽 시장 판매 호조⁴⁷⁾로, 자동차부품은 미국 및 멕시코 수출 호조로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은 EU 수입 규제에 따른 수출 부진 및 저효과⁴⁸⁾로 크게 감소하였다. 석유화학제품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감

소하였으며, 기계장비는 금속공작기계와 건설광산기계의 중국 수요 둔화로 소폭 감소하였다. **강원권**은 자동차부품과 면류가 각각 북미와 동남아시아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며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료기기, 주류 및 합금철은 감소하였다.

수출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4분기중 권역별 수출¹⁾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	◇	▼	▼	▼	◇	▼

주: 1)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는 각각 보합, 감소를 나타냄

43) 7~8월중 전국 OLED 패널 수출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1.4%)은 1/4분기(-5.3%) 및 2/4분기(-12.1%) 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44) 1~8월중 중국시장내 현대기아자동차 현지법인 공장 판매는 57.0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7.7% 감소(각 사 IR자료)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시장 점유율이 2018년 5.0%에서 1~8월중 4.4%로 하락하였다(MarkLines).

45) 베트남은 2018년 12월부터 일평균 20만배럴 규모의 정제설비를, 중국은 1월부터 40만배럴 규모의 정제설비를 신규로 가동하였다.

46)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1/4분기(-2.7%)에 이어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였다(Gartner).

47) 7~8월중 현대자동차 수출물량(전국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1.1% 늘어났으며, 동남권 완성차 수출액은 21.4% 증가하였다.

48) 2018년 3/4분기중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의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를 인도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강원권이 소폭 증가하겠으나 수도권은 감소, 충청권, 호남권, 대전권 및 제주권이 소폭 감소하겠으며, 동남권은 전년동기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원권은 의료기기와 식료품이 해외 수출 확대 노력으로, 자동차부품이 대미 수출 호조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수도권**은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격의 회복 지연으로,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LCD 패널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기계장비가 주력 수출품목이 대형장비에서 소형장비로 변화한 데 따른 마진 축소로, 석유화학정제품이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철강은 가격 하락 기대에 따른 수요 전망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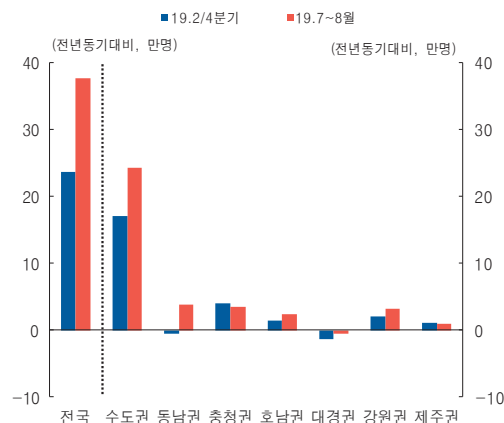
충청권은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격 회복 지연 등으로, 석유화학제품이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자동차부품이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현지공장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은 석유화학 정제품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부진 등으로, 철강이 원재료가격 하락에도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전권**은 디스플레이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겠으며, 철강과 기계장비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권**은 반도체 설계와 수산물물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남권**은 선박이 인도물량 확대⁴⁹⁾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석유화학제품과 기계장비가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크게 확대

7~8월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7.6만명 증가하여 2/4분기(23.7만명)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호남권 및 강원권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동남권은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대전권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반면 충청권과 제주권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되고 건설업은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제조업은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자영업자는 감소세가 둔화되었다.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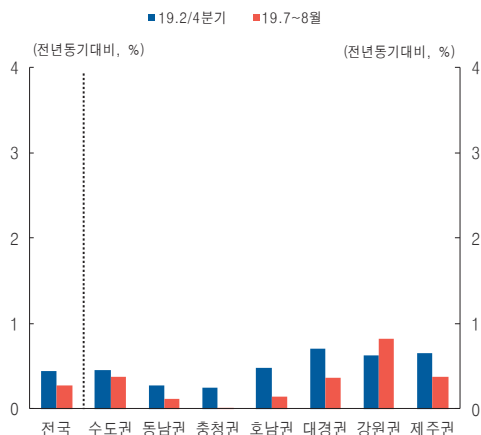
49) 4/4분기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선박인도량(87.1만CGT)이 전년동기(73.4만CGT)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7~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0.3%로 2/4분기(0.4%)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농축산물가격이 기상여건 호조 및 수요 둔화 영향으로 하락으로 전환한 데다 석유류가격이 국제유가 안정화 등으로 하락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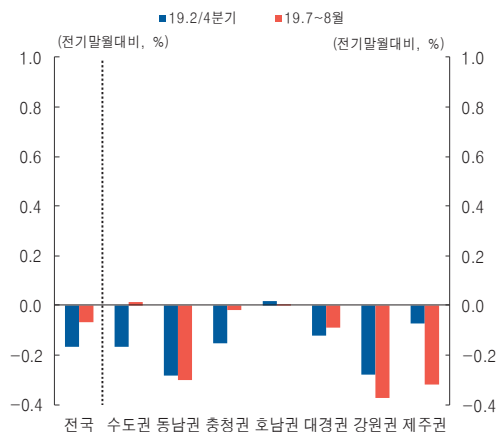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하락폭 축소)

7~8월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하락폭이 2/4분기에 비해 축소되었다. 권역별로는 충청권과 대경권의 하락세는 둔화된 반면 동남권, 강원권 및 제주권은 하락세가 확대되었다. 수도권은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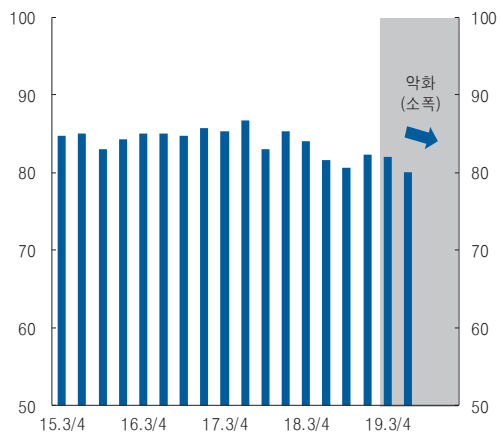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¹⁾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기업자금사정: 소폭 악화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및 제주권이 소폭 악화되었으며, 충청권, 호남권 및 강원권은 보합 수준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조선, 자동차 및 숙박·음식점업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석유화학·정제업, 건설업 및 도소매업은 다소 악화되었다.

기업자금사정¹⁾

주: 1) 금융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의 전년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금융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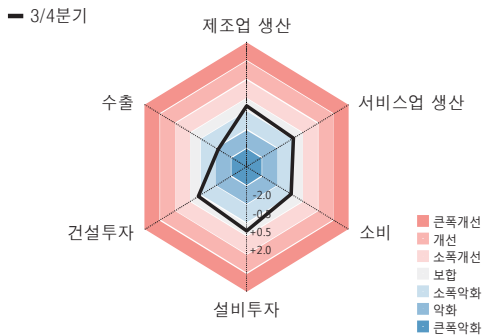
2. 수도권

개황: 보험

3/4분기중 수도권 경기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보험 수준을 나타냈다. 수요 동향을 보면 소비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자와 건설투자자는 보험 수준을 유지하였고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7~8월중 취업자수는 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보험 수준이었으나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3/4분기중 기업자금자정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레이더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한 것으로 -0.5 미만은 악화(감소), -0.5~+0.5는 보험, +0.5 초과는 개선(증가)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생산

(제조업 생산 보험)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의약품, 철강, 석유화학정제 및 기계장비가 감소하였으며 반도체는 보험 수준을 나타냈다.

자동차는 SUV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수출 호조⁵⁰⁾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이 OLED TV 판매 호조로 증가하였으나 생산 비중이 큰 LCD 패널이 중국의 대규모 양산으로 가격 하락세⁵¹⁾가 이어지면서 주요 업체에서 생산량을 줄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휴대폰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⁵²⁾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체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⁵³⁾이 진행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⁵⁴⁾ 수주 부진 등으로, 철강은 건설물량 감소 등에 따른 철근 수요 급감으로, 석유화학정제는 석유화학제품 마진 축소⁵⁵⁾ 등으로,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업 등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및 중국시장 판매실적 부진⁵⁶⁾ 등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반도체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초과공급 완화⁵⁷⁾에 따른 가격 하락세 둔화⁵⁸⁾로 보험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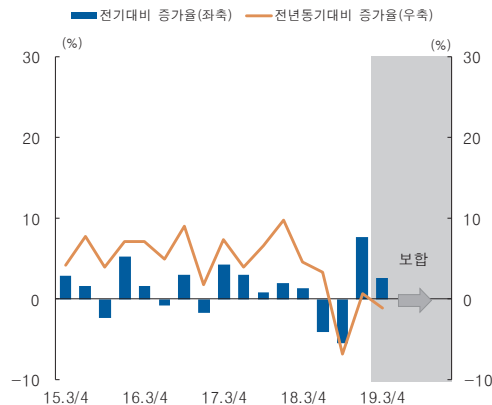
50) 7월중 스토닉(소형 SUV) 수출대수(8,052대)는 전년동기대비 51.4%,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모델로만 출시된 니로(소형 SUV)의 수출대수(9,919대)는 전년동기대비 41.3% 증가하였다.

51) 7월중 LCD 패널가격은 1월 대비 65인치 기준으로 19.6%, 55인치 기준으로 18.8% 하락하였다(IHS Markit).

52) LG전자는 9월 6일 중저가 스마트폰인 Q70을 출시하였다.

53) LG전자는 생산거점의 베트남 이전을 위해 평택공장의 스마트폰 생산물량을 6월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이전 작업을 연말에 완료할 예정이다.

제조업 생산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막대 및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는 신차 출시⁵⁴⁾로, 디스플레이는 연말 TV 교체 수요 확대 등으로, 의약품은 바이오 시뮬러 제품의 북미시장 출시⁶⁰⁾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휴대폰은 글로벌 수요 정체와 주요 업체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기계장비는 중국

시장의 부진 가속화로, 석유화학정제는 주요 업체의 정기보수 등으로, 철강은 중국 및 국내 철강수요 둔화 지속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반도체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여건 개선으로 전기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이 보합 수준을 보였으며 운수업이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백화점이 해외 명품 판매 증가⁶¹⁾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였고 온라인 판매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업은 정부의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발표 이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⁶²⁾ 숙박업은 호텔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이른바 호캉스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으나

54)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는 신약개발 회사가 생산시설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시간의 투자 없이 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주는 기관을 의미한다.

55) 휘발유 수요 증가로 원재료인 혼합자일렌(MX)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의 주요 생산·수출품인 파라자일렌(PX)의 톤당 마진이 7~8월중 329달러로 2/4분기(월평균 368달러) 및 전년동기(559달러)대비 각각 10.5%, 41.1% 하락하였다.

56) 7월중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내 굴삭기장비 판매대수(539대)는 전년동기(616대)대비 12.5% 감소하였다.

57)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초과율(공급량/수요량)이 D램은 상반기 5.4%에서 3/4분기 2.8% 및 4/4분기 2.0%로, 낸드플래시는 상반기 6.4%에서 3/4분기 2.2% 및 4/4분기 -0.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Gartner).

58) D램(8Gb) 고정가격은 작년 12월말 7.25달러에서 금년 7월말 2.94달러까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8월말 2.94달러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DRAMeXchange).

59) 기아자동차는 9월중 모하비 부분변경 모델을, 11월중 K5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며, 한국GM은 하반기중 신형 준중형 SUV인 트레일블레이저(Trailblazer)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60) 하반기중 셀트리온의 트룩시마(혈액암 치료제) 및 허쥔마(유방암 치료제)의 미국시장 출시를 앞두고 해당 제품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동사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4월 트룩시마 시판 허가를 얻은 데 이어 9월 허쥔마 시판 허가를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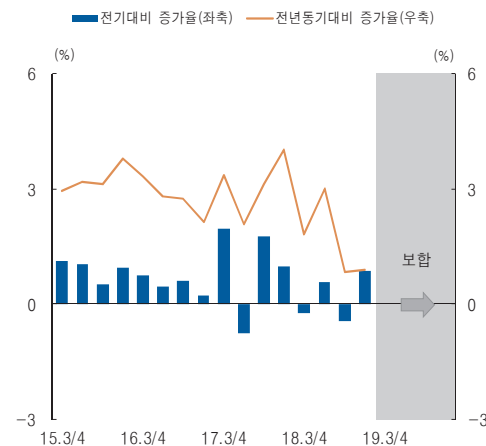
61) 백화점 매출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3.5%에서 2017년 15.8% 및 2018년 19.3%로 높아진 데 이어 금년 7월에는 23.2%를 차지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62) 7월중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서울 포함)은 34,471건으로 2/4분기 월평균거래량 대비 30.7%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인 단체관광객 위주로 소폭 감소하면서 보험 수준을 유지하였다. 음식점업은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의 확대⁶³⁾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보험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운수업은 항공화물운송⁶⁴⁾이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해상화물운송⁶⁵⁾과 일본 노선 여객운송⁶⁶⁾이 크게 줄어들면서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보험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은 e-커머스 플랫폼 업체와의 경쟁 심화, 소비심리 부진 등의 영향이 지속되었으나 연말 판촉 강화 등으로 보험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점업은 연말 성수기 영향 등으로 증가하겠으나 일본인 관광객 감소⁶⁷⁾로 인해 보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운수업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노선 감축⁶⁸⁾, 중국의 신규 항공 노선 취항 제한⁶⁹⁾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요

(소비 소폭 감소)

3/4분기중 소비는 2/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내구재 판매는 에어컨 등 냉방기전⁷⁰⁾ 위주로 감소하였으며, 준내구재는 의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하였다.

한편 8월중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235건으로 2/4분기(월평균, 4,781건) 및 7월(8,025건)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63) 중소기업중앙회가 3~4월중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도입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4.8%,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였다.

64) 7~8월중 월평균 인천공항 수출입 화물량은 22.3만톤으로 2/4분기(월평균) 대비 1.6% 증가하였다.

65) 7월중 인천항 물동량은 1,286만RT, 평택당진항 물동량은 914만RT로 2/4분기(월평균) 대비 각각 0.02%, 6.14% 감소하였다.

66) 8월중 국적기 기준 일본노선 여객승객수(인천공항 출발편 및 도착편 합계)는 883,787명으로 7월(1,022,929명) 대비 13.6%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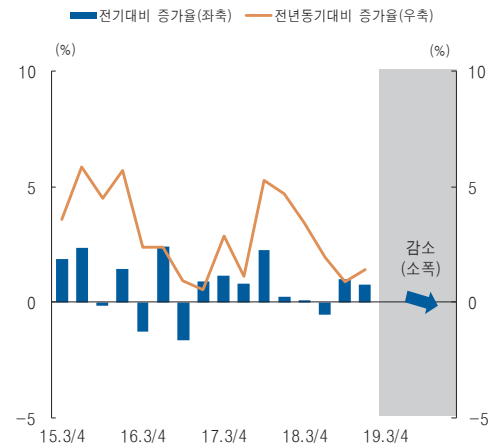
67)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9~12월중 일본인 관광객이 단체 관광객 위주로 6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68) 7월 이후 저가항공사의 지방공항 출발 일본 노선의 감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감편전 대비 23% 감소), 8월 이후로는 인천공항 출발 일본 노선의 운휴 및 감편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9월 이후 일부 일본 노선을 운휴하거나 공급좌석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69) 8월 중국 민항총국은 10월 10일까지 신규임사부정기편 항공 운항 신청을 받지 않기로 발표함에 따라 일본 노선을 감축하는 대신 장자제, 연지, 하얼빈 등 중국 신규 노선 취항을 준비중이던 국내 항공업체의 노선 확대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70) 7월 및 8월 서울지역 평균기온은 각각 25.9°C, 27.2°C로 전년동월 평균기온인 27.8°C, 28.8°C보다 낮았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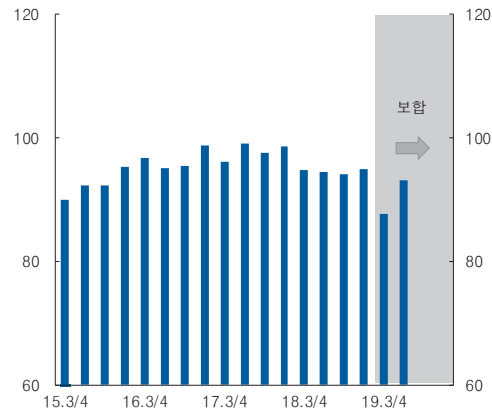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자동차 구매 유인 증가⁷¹⁾,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 둔화⁷²⁾가 이어질 경우 소비 개선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포함)

3/4분기중 설비투자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은 주요 업체 생산라인의 신규 장비 도입⁷³⁾으로, 기계장비 제조업은 상반기에 유보되었던 시설 투자 진행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반도체 제조

업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비 도입 지연⁷⁴⁾ 등으로, 철강 제조업은 주요 업체의 인수 합병 및 구조조정⁷⁵⁾ 등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자동차 제조업은 신차 양산을 위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의약품 제조업은 생산시설 증대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실행BSI¹⁾²⁾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2) 서울지역 제외지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포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유화학정제 및 철강 제조업은 하반기 설비 보수 실시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 제조업은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반도체 제조업은 신규 투자 이연이 지속되겠으며, 디스플레이, 자동차

71)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6월)되었으며, 기아자동차의 모하비(9월)와 K5(11월), 제네시스 SUV 모델 GV80(11월) 등 국산 신차 출시 및 아우디코리아의 판매 재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72) 8월 경기 및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94.2와 95.5로 4개월 연속 장기평균치(100)를 밑돌고 있다.

73) LG디스플레이는 당초 금년 말에서 내년 초로 계획했던 파주 P10 공장(10.5세대 OLED라인)의 장비 입고를 6월로 앞당겨 시작하였다.

74) 7~8월중 경기지역 반도체 제조용 장비 월평균 수입액은 4.5조달러로 2/4분기(월평균, 7.4조달러) 대비 39.1%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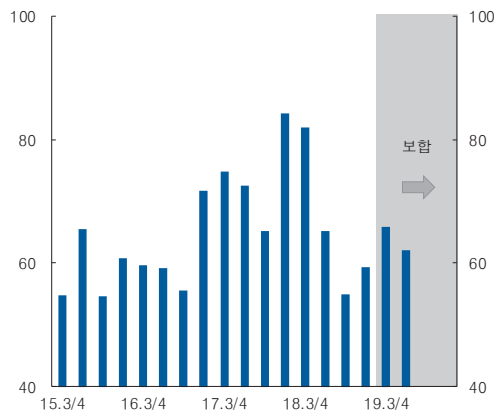
75) KG그룹은 동부제철과 동부인철스틸을 인수 후 통합하여 KG동부제철을 출범(9.2일)시켰다.

및 기계장비 제조업은 전기 수준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투자 보합)

3/4분기중 건설투자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주택착공실적⁷⁶⁾ 및 건물건설 수주 감소⁷⁷⁾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공공부문이 토목건설 수주 증가⁷⁸⁾, SOC예산 조기집행⁷⁹⁾ 등으로 부진이 완화되었다.

건설업 업황BSI¹²⁾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2) 서울지역 제외지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착공물량 감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증가⁸⁰⁾ 등으로 부진을 이어가겠으나 공공부문이 토목수주 증가,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⁸¹⁾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출 감소)

3/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의약품, 석유화학정제품 및 기계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자동차는 수출단가가 높은 SUV와 친환경차 등을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지역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증가하였다.

반면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가격 하락⁸²⁾ 등으로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는 LCD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수출가격 하락⁸³⁾으로, 휴대폰은 글로벌 수요 둔화,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감소하였다. 의약품은 주요 업체의 공장 가동률 회복 지연으로, 석유화학정제품은 석유정제품 마진 축소⁸⁴⁾로, 기계장비는 중국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감소하였다.

76) 수도권 주택착공실적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2016년 33.5만호 → 2017년 27.7만호 → 2018년 23.8만호)하였으며 4~7월중 실적은 8.3만호로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하였다.

77) 2018년 및 2019년 상반기중 수도권 건축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0%, 2.3% 감소하였다.

78) 상반기중 수도권 토목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96.8%, 전기대비 35.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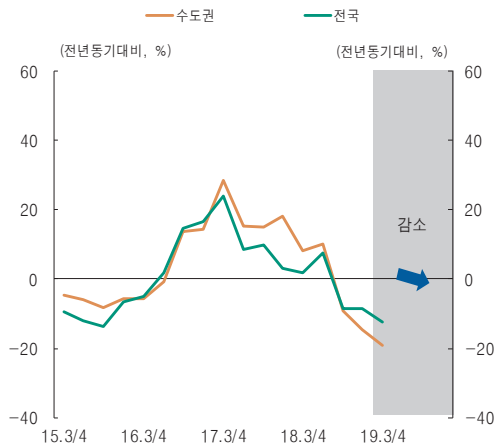
79) 정부는 8월 30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금년 SOC예산 집행률이 국토교통부가 72.0%, 해양수산부가 67.5%로 계획(각각 64.9%, 64.6%)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80) 상반기중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는 전년동기대비 27.1%, 전기대비 22.2% 증가하였다.

81) 정부는 8월 14일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통해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 연내 착공,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3.1조원) 등의 터기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 적용 검토, GTX-A(3조원) 신속 추진 등을 발표하였다.

82) 7월중 반도체 수출물가지수(2015=100, 달러기준)는 전년동월대비 36.9% 하락하였다.

83) 7월중 LCD평판디스플레이의 수출물가지수(2015=100)는 전년동기대비 36.4%, 수출물가지수(2015=100, 달러기준)는 전년동기대비 9.7% 하락하였다.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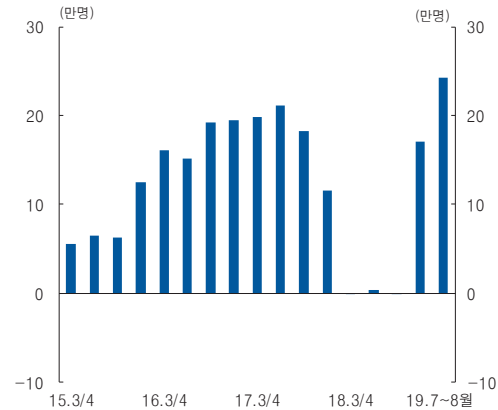
자동차는 신차 출시로,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해외 출시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가격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LCD 패널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기계장비는 주력 수출품목이 대형장비에서 소형장비로 변화한 데 따른 마진 축소로, 석유화학정제품은 국제수요 위축 등으로, 철강은 가격 하락 기대에 따른 수요 관망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7~8월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4.2만명 증가하여 2/4분기(17.1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서울이 소폭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고 경기의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감소폭이 소폭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주당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은 증가에서 감소로, 36시간 미만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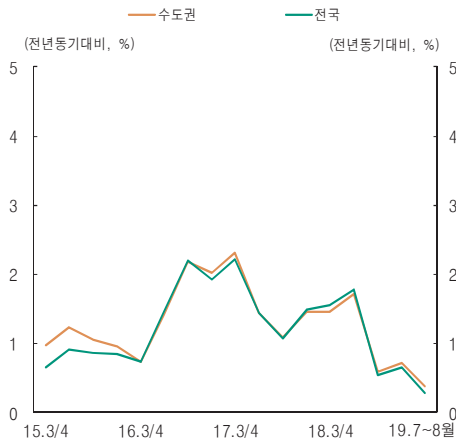
84) 미국 및 중국 정유사의 생산규모 증설 등으로 석유제품의 글로벌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 석유제품의 복합정제 마진이 2018년 3/4분기중 배럴당 약 6달러에서 금년 7~8월중 5달러 수준으로 약 17%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7~8월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4% 상승하여 2/4분기(0.7%)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농축산물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데다 국제유가 하락⁸⁵⁾으로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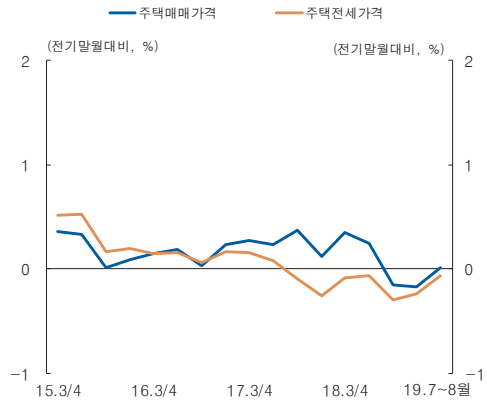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보합, 전세가격 하락폭 축소)

7~8월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보합 수준(0.01%)을 나타냈으며 전세가격(월평균)은 0.07%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인천의 하락폭이 소폭 확대된 가운데 경기의 하락

폭이 축소되고 서울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2/4분기 하락(-0.17%)에서 보합 수준으로 바뀌었다. 전세가격은 경기와 인천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서울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전기(-0.24%)보다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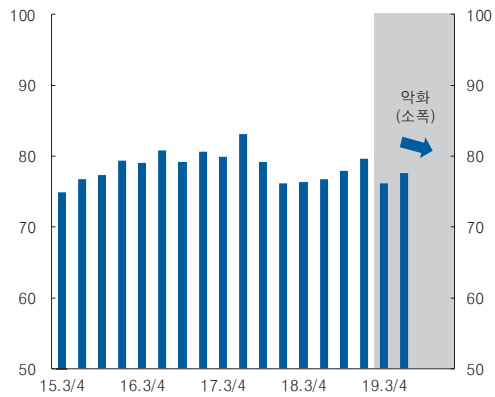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기업자금사정: 소폭 악화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되었다. 제조업은 자동차 등의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계장비, 석유화학 등이 부진을 지속함에 따라 소폭 악화되었다. 서비스업도 숙박업 등이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운수업 등이 부진하여 소폭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85) 7~8월중 두바이유가격이 전년동기대비 15.9% 하락하여 2/4분기(-6.6%)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2) 서울지역 제외지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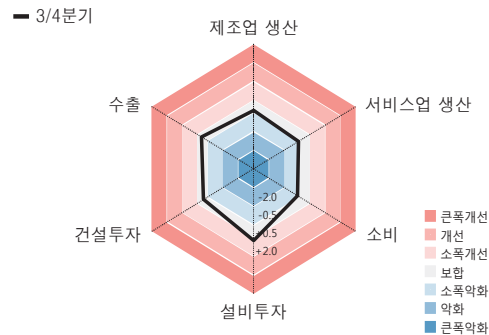
3. 동남권

개황: 보험

3/4분기중 동남권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보험 수준을 나타냈으나 서비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동향을 보면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소비는 소폭 감소, 건설 투자는 보험에 머물렀다. 한편 수출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7~8월중 취업자수는 2/4분기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축소되었으며,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편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레이더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한 것으로 -0.5 미만은 악화(감소), -0.5~+0.5는 보험, +0.5 초과는 개선(증가)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생산

(제조업 생산 보험)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선박 및 부품, 금속가공,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석유정제 등이 보험세를 보였으나 기계장비와 석유화학은 소폭 감소하였다.

선박 및 부품은 대형 조선업체들이 2017년 이후 축적한 수주물량⁸⁶⁾의 건조를 이어가면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민간선박 수주가 여전히 부진하나 정부발주 특수선 등의 건조와 환경규제 강화⁸⁷⁾에 대응한 선박수리 매출⁸⁸⁾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선박부품은 친환경 및 LNG 선박 부품 위주의 생산 증가세가 이어졌다. 금속가공은 원자력발전 부품이 부진하고 풍력발전 부품도 정체되었으나 선박과 산업플랜트 부품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동차는 완성차가 북미 및 유럽으로의 SUV 판매호조와 일부 업체의 노사갈등 완화⁸⁹⁾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⁹⁰⁾의 영향으로 보험세를 보였다. 자동차부품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 정체⁹¹⁾로 내수판매가 둔화되었으나 미국 수출 등이 증가하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철강은 선박과 자동차 관련 내수판매가 늘어났으나 건설경기 부진으로 철근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수출도 EU의 수입규제와 수요둔화 등으로 부진하여

86) 8월말 국내 조선업체의 수주잔량은 2,044만CGT로 5월말(2,112만CGT)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7)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의무화(2019.9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감축(3.5% → 0.5%, 2020.1월 예정) 등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88)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일부 선박들이 스크러버(오염물질 포집장치)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89) 르노삼성자동차는 금년 상반기중 임금단체협약 협상관련 파업 등 노사갈등이 이어졌으나 6월에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동사의 생산대수 감소세가 완화되었다(전년동기대비, 1/4분기 -40.2% → 2/4분기 -24.2% → 7월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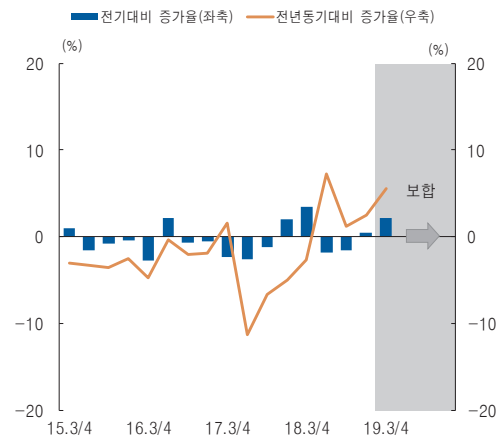
90) 7~8월중 현대자동차(전국)의 월평균 내수 판매대수는 5.7만대로 전년동기(5.9만대)대비 4.8% 감소하였다.

91) 7~8월중 국내 완성차업체의 생산량은 월평균 30.4만대로 전년동기(30.1만대)대비 1.0% 증가에 그쳤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합 수준에 그쳤다. 석유정제는 일부 업체의 대규모 시설 정비⁹²⁾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기계장비는 섬유화학기계 등의 미국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건설기계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이 줄어든 데다 전가전자, 금속 제조업 등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내수도 축소됨에 따라 전체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⁹³⁾ 석유화학도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생산이 소폭 감소하였다.

제조업 생산지수¹⁰²⁾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막대 및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박 및 부품은 대형 조선업체의 경우 LNG 선⁹⁴⁾, VLCC(초대형 유조선) 등을 중심으로 수주와 건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세계 선박발주 둔화⁹⁵⁾로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 조선업체는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및 부품, 선박수리 수요가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최근 선박 발주가 대형선 위주로 이루어지고 중소형 선박가격도 정체됨에 따라 수주 및 수익성 부진이 단기간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속가공은 전방산업인 선박 건조업과 해외 플랜트 건설부문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철강은 철근 내수 부진, 중국내 수요 둔화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철광석 등 원자재가격 조정⁹⁶⁾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계장비는 내수와 중국 수요 부진에 더하여 미국 수요도 둔화조짐을 보이면서 소폭 감소⁹⁷⁾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유화학정제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 약화, 중국 기업 등의 공급능력 확대⁹⁸⁾에 따른 경쟁 심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자동차 및 부품은 미국 수출이 호조를 보이겠으나 중국 부품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내수 판매도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보합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92) SK에너지는 2019년말까지 일부 공장설비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정밀점검 및 보수를 계속할 예정이다.

93) 7월중 전국 공작기계 생산액은 전년동월대비 28.5% 감소하였다(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94) 업계에서는 중국, 동남아 등의 LNG 수요 확대에 따라 세계 LNG선 발주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중 70~80%를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5) 1~8월중 세계 선박발주량은 1,331만CGT로 전년동기(2,321만CGT)에 비해 감소하였다.

96) 호주산 철광석가격(1톤당, 중국 수입분)은 6월말 116.4달러에서 8월말 85.6달러로 하락하여 3월말(84.8달러)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97) 7월중 전국 공작기계 수출액을 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7.4%, 내수는 28.4% 감소하였다(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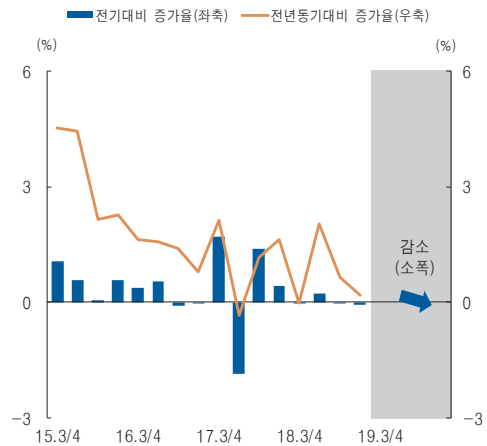
98) Hongrun(8월), Xinfengming(9월)에 이어 10월중에는 Sinopec Hainan의 신규설비 가동이 예정되어 있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감소한 반면 운수업과 부동산업은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다.

도소매업은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위축⁹⁹⁾된 가운데 전년대비 낮은 기온에 따른 계절용품 판매 부진 등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내국인을 비롯하여 중국·동남아 중심의 외국인¹⁰⁰⁾ 숙박이 늘었으나 음식점 매출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운수업은 수송운송의 경우 부산항, 울산항 및 마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증가¹⁰¹⁾하였으나 항공운송이 한일관계 악화 등에 따라 해외여행을 중심으로 수요가 위축¹⁰²⁾되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주택 매매·전세 가격 하락¹⁰³⁾에도 매매거래량이 회복¹⁰⁴⁾되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지수¹⁰²⁾



주: 1) 전년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소비심리 위축에도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 등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수가 증가하며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었다. 운수업은 미·중 무역갈등에도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악화로 항공수요가 위축¹⁰⁵⁾되며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업도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지며 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99) 동남권 소비자심리지수는 부산(2/4분기 95 → 7~8월중 92), 경남(95 → 92), 울산(89 → 88) 모두 하락하였다.

100) 7월중 부산방문 외국인관광객(22.2만명)은 전년동기대비 11.8% 감해공항과 부산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각각 10.3%, 27.1% 증가하였다.

101) 7월중 부산항, 울산항, 마산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193만TEU)은 전년동기대비 2.0% 늘어났다. 부문별로는 한적물량(98만TEU)이 0.7% 감소, 수출입물량(92만TEU)이 4.9% 증가하였다.

102) 7월중 김해공항 국내선 이용객수(60.6만명)는 증가 전환하였으나(전년동기대비, 2/4분기 -3.4% → 7월 3.6%) 국제선 이용객수(83.4만명)는 증가폭이 축소(전년동기대비, 2/4분기 2.9% → 7월 2.5%)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8~9월중 항공 이용객수도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3) 7~8월중 동남권 주택매매가격은 6월에 비해 경남(-0.8%), 울산(-0.6%), 부산(-0.4%) 모두 하락하였다. 주택전세가격도 경남(-1.0%), 울산(-1.0%), 부산(-0.5%) 모두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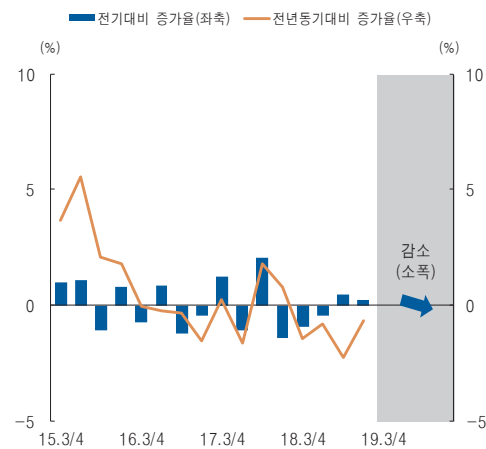
104) 7월중 동남권 주택매매거래량(8.4천호)은 전년동기대비 8.5% 증가(부산 1.4%, 경남 6.7%, 울산 41.6%)하였다.

105) 9~10월중 부산-일본간 항공편 약 2,100편중 550편 정도가 감축 예정인 가운데 지역 항공사 예약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소비 소폭 감소)

3/4분기중 소비는 2/4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구재는 작년에 비해 폭염기간¹⁰⁶⁾이 줄면서 에어컨 등 냉방가전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승용차 판매¹⁰⁷⁾도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도 화장품, 차량연료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의복, 신발 등 준내구재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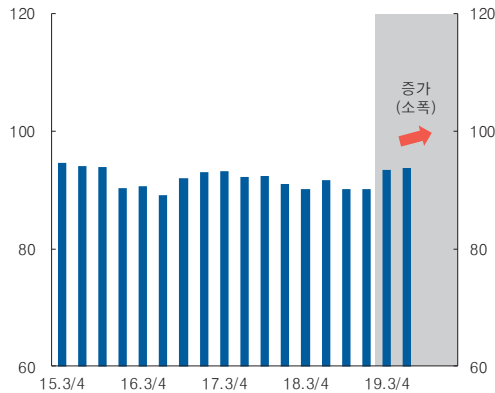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강화 여파 등으로 소비심리가 악화¹⁰⁸⁾되면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소폭 증가)

3/4분기중 설비투자는 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업의 경우 일부 대형업체의 LNG선 및 초대형 선박의 건조를 위한 생산설비 변경¹⁰⁹⁾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선박 부품 및 금속가공 업체에서는 선박관련 친환경 제품 생산 등을 위한 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철강 제조업은 일부 업체들이 생산효율 개선, 오염물질 배출완화 등을 위한 투자를 실시하였다. 한편 자동차 제조업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차¹¹⁰⁾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를 전기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석유화학·정제업도 일부 업체가 고도화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¹¹¹⁾를 지속하였다. 기계 등 업종은 당분간 수주 및 생산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설비투자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106) 7~8월중 부산지역에서 최고기온이 30°C 이상을 기록한 일수(19일)는 전년동기(42일)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부산지역 강수량(515mm)은 전년동기(292mm)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107) 7~8월중 동남권 승용차신규등록대수는 전기에 이어 감소하였다(전년동기대비, 2/4분기 -2.6% → 7~8월 -4.5%). 국산차(2.4% → -5.1%)가 감소 전환하고, 수입차(-18.2% → -2.1%)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108) 동남권 소비지출전망CSI는 부산(2/4분기 103 → 7~8월중 99), 경남(105 → 101), 울산(101 → 100)이 모두 하락하였다.
 109) 현대중공업은 2020년까지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장치, 소재 자동화라인 등 대형선박 중심의 설비변경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110) 현대자동차는 4/4분기중 SUV 신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111) SK에너지는 잔사유 고도화설비와 친환경 탈황설비 관련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설비투자실행BS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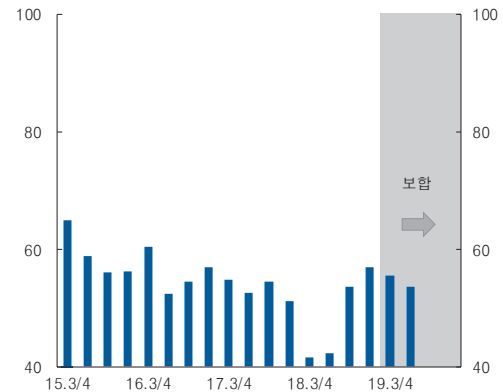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업은 선박 건조가 증가하면서 노후 생산설비 교체 및 개량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정제업은 친환경 및 고부가가치 설비확충 등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기계장비 등 다른 업종에서는 현재 설비가 과잉 수준이라는 판단이 많아 유지·보수 등 최소한의 투자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투자 보험)

3/4분기중 건설투자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은 비주거용 건물 신규 착공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아파트 분양물량 축소 등 주거용 건물이 부진을 지속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¹¹²⁾ 반면, 토목건설은 부산항 신항 개발공사 착공¹¹³⁾ 등 공공부문 신규발주가 늘어나며 소폭 증가하였다.

건설업 업황BS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은 아파트 분양예정물량¹¹⁴⁾ 증가로 주거용을 중심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정부규제 강화기조 및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이 지속적인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토목건설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및 신항 개발,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가 지속되며 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⁵⁾

112) 7월중 동남권 건축착공면적은 주거용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하였다. 한편, 3/4분기중 아파트 분양(계획 포함)은 0.5만호로 전기(1.6만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부동산114).

113)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6단계 축조공사가 8.30일 착공하였다(5년간 2,110억원 규모).

114) 4/4분기중 동남권 아파트 분양계획은 1.5만호로 3/4분기(0.5만호)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동산114).

115)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건립, 부산 에코델타시티(낙동강변에 조성중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2단계 제4공구 및 3단계 제1~2공구 조성 공사가 하반기중 진행될 예정이다.

(수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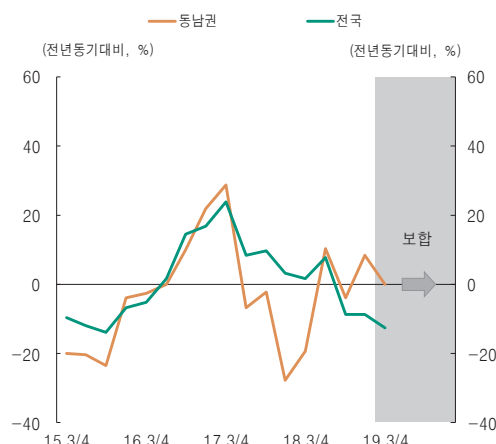
36

3/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 자동차 등이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 기계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은 감소하였다.

선박 및 부품은 2017년 수주 회복 이후 생산된 물량이 본격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는 일부 업체의 수출물량 축소¹¹⁶⁾에도 불구하고 북미, 유럽 지역에 대한 SUV 및 친환경차량 판매 호조¹¹⁷⁾로 증가하였다. 자동차부품은 중국 내 자동차생산 위축에 따라 중국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였으나 미국과 멕시코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¹¹⁸⁾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제품은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 등으로 동남아, 중국 및 미국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EU의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 부진과 작년 3/4분기중 대규모 원유 생산설비 인도¹¹⁹⁾에 따른 기저효과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계장비는 섬유화학기계의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중국 수요 둔화로 금속공작기계, 건설광산기계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¹²⁰⁾ 석유화학제품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하였다.

수출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전년동기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박은 인도물량 확대¹²¹⁾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계장비는 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등의 수요도 둔화조짐을 보이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석유화학은 마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와 중국의 설비증축에 따른 공급과잉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동차 및 부품은 북미 수출이 신차 출시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 부품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작년말 완성차 수출 급증에

116) 르노삼성차는 수출용 SUV 생산물량을 작년 10만대에서 금년 6만대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117) 7~8월중 현대자동차 수출물량(전국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11.1% 늘어났으며, 동남권 완성차 수출액은 21.4% 증가하였다.

118) 7~8월중 동남권의 미국과 멕시코로의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9.0%, 14.6% 증가하였다.

119) 2018년 3/4분기중 현대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의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를 인도하였다.

120) 7~8월중 동남권의 기계장비 수출액은 섬유화학기계가 전년동기대비 66.7% 증가하였으나 금속공작기계와 건설광산기계는 각각 28.7%, 8.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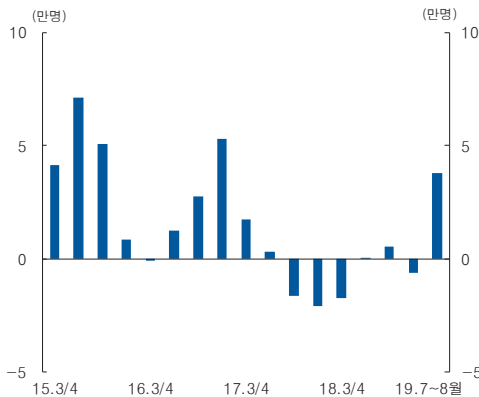
121) 4/4분기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선박인도량(87.1만CGT)이 전년동기(73.4만CGT)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다른 기저효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파악되었다. 철강은 동남아 등 수출이 증가하겠으나 유럽지역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취업자수 증가 전환

7~8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8만명 늘어나 2/4분기의 감소(-0.6만명)에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감소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감소하였으나 부산과 울산은 증가하였다.

취업자수 증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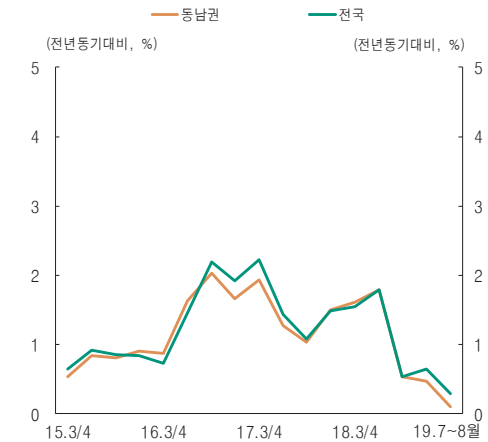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7~8월중 소비자물가(월평균)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1%로 2/4분기(0.5%)보다 축소되었다. 개인서비스가격 상승폭은 확대(1.3% → 1.5%) 되었으나 농축수산물가격이 큰 폭 하락(1.4% → -3.0%)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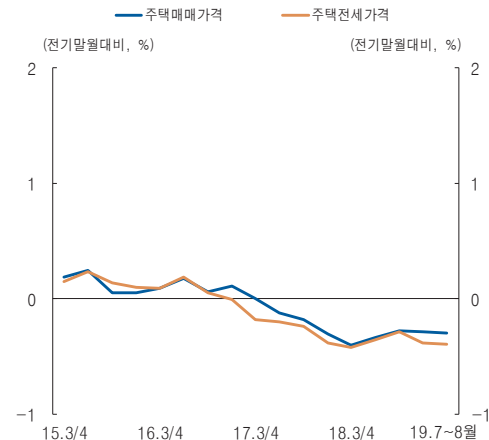
7~8월중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각각 0.3%, 0.4% 하락하였다. 이는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¹²²⁾ 등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지역 인구감소¹²³⁾ 및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¹²⁴⁾에 주로 기인하였다.

122) 동남권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3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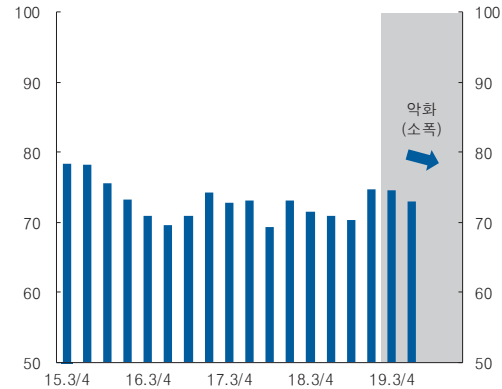
123) 7~8월중 동남권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기대비 4.7만명 감소하였다.

124) 금년중 동남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입주예정물량 포함)은 작년(7.0만호)보다 크게 늘어난 8.1만호로 조사되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기업자금사정BSI¹⁾



기업자금사정: 소폭 악화

3/4분기중 기업의 자금사정은 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조업에서는 조선, 자동차가 실적 회복 지속 기대, 정부의 금융관련 지원 강화¹²⁵⁾ 등으로 다소 개선된 반면 석유화학·정제는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등에서 업황 부진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125)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한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6.27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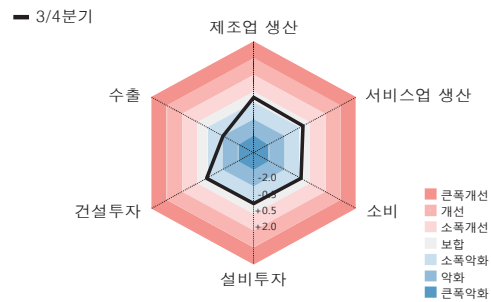
4. 충청권

개황: 보험

3/4분기중 충청권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보험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전기 수준에 머물렀다.

7~8월중 취업자수는 전기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의 가격 하락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충남·북과 세종이 하락하였으나 대전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레이더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한 것으로 -0.5 미만은 악화(감소), -0.5~+0.5는 보험, +0.5 초과는 개선(증가)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생산

(제조업 생산 보험)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및 전기장비가 증가하였으나 철강이 감소하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는 보험 수준을 나타냈다.

석유화학은 정기보수, 화학사고, 파업¹²⁶⁾ 등 전기의 일시 조업중단 요인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전기장비는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¹²⁷⁾ 등에 따른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철강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¹²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면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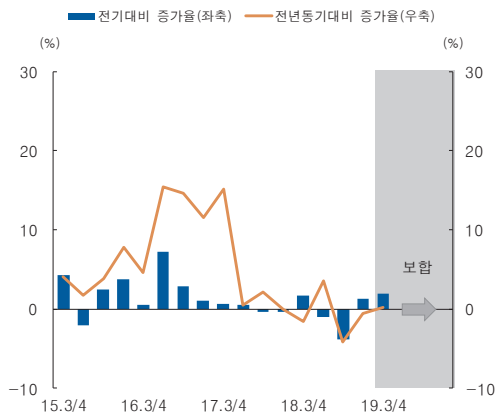
한편 반도체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생산이 전기 수준에 그쳤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용 OLED 패널 수요 확대¹²⁹⁾에도 불구하고 일부 LCD 패널의 생산라인 가동 중단 및 감산¹³⁰⁾ 등으로 보험 수준에 머물렀다. 자동차는 신형 쏘나타 출시(3월)로 완성차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국 현지공장 생산 부진 등으로 부품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 수준을 나타냈다.

126) 충남지역 대산석유화학단지내 한화토탈(지역 생산능력 1위 업체)은 정기보수 등으로 3~6월중 남사크래커(NCC) 등 주요 설비가동을 중단한 데다 유증기 유출사고(5.17~18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1~2차 총 40일) 등으로 일부 설비 가동이 멈춘 바 있으며, LG화학도 NCC공정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6월중 3주간 설비가동을 중단하였다.

127)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까지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규제(2015년 130g/km 이하 → 2019년 95g/km 이하)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며, 4월에 추가 규제안(2021년 대비 2030년 배출량 -37.5% 승용차 기준)을 채택하였다.

128) 1~6월중 글로벌 철강 생산량은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국의 조강생산량 증가(4.9억톤, 전년동기대비 9.9%)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9.3억톤으로 확대되었으나,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수요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부진이 지속되었다(세계철강협회).

제조업 생산지수¹²⁹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막대 및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서버용 메모리반도체 수요의 일부 회복¹³¹⁾ 등으로, 전기장비는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¹³²⁾ 용 전지의 수요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석유화학은 중국, 미국 등의 대규모 설비 신·증설¹³³⁾에 따른 공급확대, 일부 업체의 정기보수¹³⁴⁾ 등으로, 철강은 전방산업 부진 지속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스플레이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OLED 패널 수요 확대¹³⁵⁾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¹³⁶⁾ 등으로, 자동차는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 출시(11월 예정)에도 불구하고 쏘나타 신차 효과 소멸, 경쟁사의 신차 출시¹³⁷⁾ 등의 영향으로 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수업은 철도·항공¹³⁸⁾ 등 여객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부동산업은 대전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주택거래량¹³⁹⁾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은 소비심리 위축¹⁴⁰⁾, 기상여건 악화¹⁴¹⁾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도소매업은 대형할인마트 매

129)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글로벌 수요 확대 등으로 1/4분기 9,077만대에서 3/4분기 1억 2,164만대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정보통신기획평가원, IHS 자료 인용).

130)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의 LCD 패널 공급 증가에 따른 큰 폭 가격 하락으로 아산공장의 8.5세대 LCD 생산시설 일부를 가동중단(L8-1-1라인, 월 생산량 9만장)하고 일부 생산라인(L8-2-1라인, 월 생산량 3만장)에서 생산량을 축소하였다.

131) 시장조사기관 DIGITIMES Research는 3/4분기 서버 출하량이 2/4분기 대비 1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삼성전자도 실적발표회(7.31일)를 통해 3/4분기 이후 메모리 수요가 주요 데이터센터의 재고 감소 등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132) 2017년 8월 이후 전국 각지의 ESS 설비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23건)함에 따라 정부가 다중이용시설내 ESS 가동 중단을 권고(2018.12월)하였으나, 최근 정부의 화재 원인 및 안전강화 대책 발표(6.11일) 이후 시장에서는 ESS용 전지에 대한 생산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33) 4/4분기중 중국의 SP케미칼(에틸렌 생산규모 65만톤) 및 헝리 다렌(Hengli Dalian, 150만톤), 미국의 포모사(Formosa, 100만톤) 등이 대규모 신규 생산시설을 가동할 예정이다.

134)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의 NCC 설비 정기보수로 10월 한 달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135) 삼성디스플레이는 화웨이(Huawei)가 출시할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메이트30과 메이트30프로에 OLED 패널을 처음으로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주요 중국 제조사의 rigid OLED 패널 수요의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6) 중국 BOE는 첫 모바일용 OLED공장인 B7(청두 소재)을 가동(2017.5월)한 데 이어 하반기중 두 번째 공장인 B11(몐양 소재)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애플의 아이폰X용 OLED를 삼성디스플레이(주요 생산시설 충남 천안·아산)에서 독점 공급했던 것과 달리 하반기 출시될 신형 아이폰에는 LG디스플레이(경기 파주)도 함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7) 6월중 기아자동차의 K7 부분변경 모델이 출시(6.24일)된 데 이어 K5 풀체인지 모델이 11월중 출시될 예정이다.

138) 7월중 KTX(대전역 및 오송역) 및 청주공항 이용객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8.6%, 23.7% 증가하였다(코레일, 한국공항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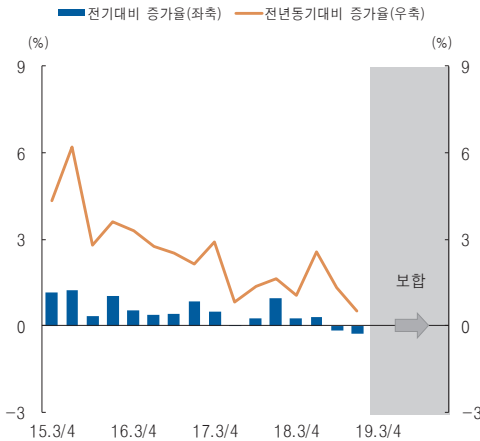
139) 7~8월중 충청지역 주택매매거래는 2/4분기(월평균) 대비 10.9% 증가하였다(한국감정원).

140) 3/4분기 들어 대전충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7월 98.8 및 8월 92.5로 6월(99.4)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며, 충북지역도 7월 95.6 및 8월 90.0으로 6월(95.9) 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141) 금년 충청권 등 중부지역 장마기간은 작년보다 18일 늘어난 34일(6.26~7.29일)이었으며 동 기간중 지역축제가 전년에 비해

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가제품 중심의 백화점 판매 호조 등으로 전기 수준에 머물렀다.

서비스업 생산지수¹²⁾



주: 1) 전년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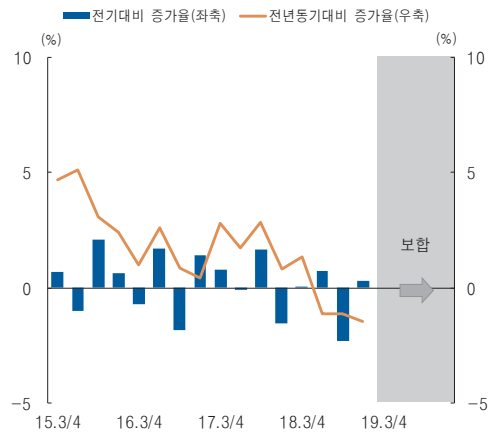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관련 서비스업은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 사업 지속, 지역축제 및 행사 개최¹⁴²⁾ 등으로, 도소매업은 소비의 완만한 증가호름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수업은 항공물류 축소¹⁴³⁾ 등 감소요인과 국내 여객 운송 증가 등 증가요인이 엇갈리면서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요

(소비 포함)

3/4분기중 소비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구재는 신규 입주물량 증가¹⁴⁴⁾로 가구 등 판매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냉방용품 등 가전제품이 전기 선수요, 폭염일수 감소¹⁴⁵⁾ 등으로 판매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보합 수준에 그쳤다. 준내구재는 의류 및 잡화 등의 판매가 부진하여 소폭 감소한 반면, 비내구재는 유류 판매 등이 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년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2) 충남은 백제문화제(9.28~10.6일), 계룡군문화축제(10.2~6일), 서산해미읍성축제(10.11~13일), 강경젓갈축제(10.16~20일) 등, 충북은 영동 대한민국와인축제(10.3~6일), 청주 공예비엔날레(10.8~11.17일), 보은 대추축제(10.11~20일) 등의 지역축제가, 대전은 아시아원격탐사학술대회(ACRS, 1,200여명 규모, 10.14~18일), 한국화학공학회 국제학술대회(2,500여명 규모, 10.23~25일) 등 학술행사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10.18~21일) 등 지역축제가 예정되어 있다.

14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10월 1일부터 국내선의 청주공항 국내화를 운송을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각사 홈페이지).

144) 3/4분기중 충청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3,244호로 2/4분기(8,327호) 대비 59.0% 증가하였다(부동산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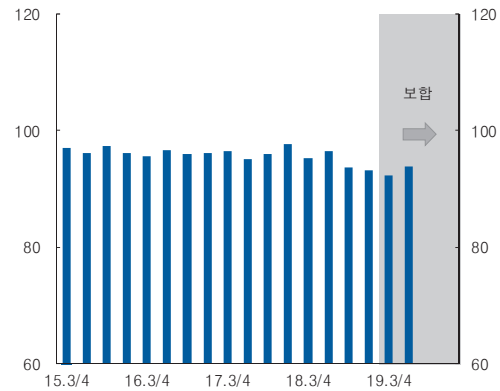
145) 금년 충청권 폭염일수(일중 최고기온 33°C 이상)는 8월말까지 12.9일로 전년동기(33.6일)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기상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정부 지출 확대¹⁴⁶⁾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겠으나 소비심리 약화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비투자 포함)

3/4분기중 설비투자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제조업은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¹⁴⁷⁾되었으며 자동차 제조업은 그랜저 부분변경 모델 생산을 위한 전환투자가 이루어졌다. 반면 전기장비는 공장 자동화 투자가 마무리되면서 감소하였다. 한편 디스플레이, 철강 및 석유화학 제조업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유지·보수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보수적인 투자 태도를 견지하면서 보합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경우 대규모 전환투자가 진행될 가능성¹⁴⁸⁾이 있어 이 경우 설비투자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포함)

3/4분기중 건설투자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거용 건물은 신규착공 부진 지속¹⁴⁹⁾으로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세종지역의 신규 개발사업¹⁵⁰⁾ 등으로 증가하였

146)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재개(8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9월) 등에 이어 4/4분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10월), 근로장려금(9월, 12월) 지급 규모 및 대상 확대 등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7) 삼성전자는 금년중 계획된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7.31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한편 충청권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전년동기대비, 1/4분기 -79.2% → 2/4분기 -61.3%) 7월에는 23.6%로 증가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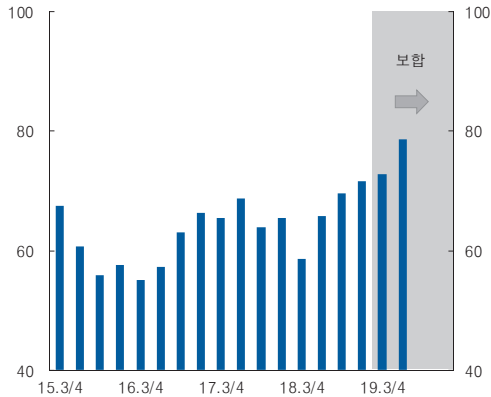
148)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공장의 8.5세대 LCD 생산시설을 QD-OLED 생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149) 7월중 충청권 주거용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68.5% 감소하여 1/4분기(-27.5%) 및 2/4분기(-58.8%)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150) 6월중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해밀리(6·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455억원), 8월중 세종세무서(326억원)가 착공된 데 이어 7월 이후 세종 해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825억원) 공사가 순차적으로 시작되었다.

다. 한편 토목건설은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 집행 축소¹⁵¹⁾ 등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 현황BS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건설투자
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보합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물건설은 신규 분양 물량 축소¹⁵²⁾, 건축허가면적 감소폭 확대¹⁵³⁾ 등으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하겠으나, 토목건설은 주요 도시개발사업 진행¹⁵⁴⁾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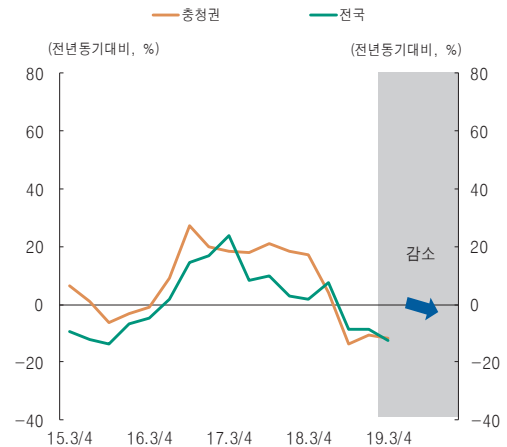
(수출 감소)

3/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는 수출물량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단가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의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OLED 패널의 가격 하락¹⁵⁵⁾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자동차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현지 생산·판매 부진¹⁵⁶⁾ 등으로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철강은 중국 등의 생산량 증가 및 전방산업 부진으로, 석유화학은 유가 약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전기장비는 전기차용 2차전지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출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7월
8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51) 7~8월중 충청지역 지자체 SOC 관련 예산의 월평균 집행액(2,414억원)은 1/4분기(3,550억원) 및 2/4분기(7,557억원)에 비해 상당폭 감소하였다(지방재정 365).

152) 4/4분기중 충청지역 분양예정 물량은 4.4천호로 2/4분기(13.8천호) 및 3/4분기(10.4천호)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동산 114).

153) 7월중 충청권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62.3% 감소하여 2/4분기(-41.8%)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154)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보상금 분쟁 등으로 개발이 연기되었으나, 최근 주민들과 합의(7.29일)에 이르면서 조만간 도안도로 확장공사(211억원), 도안대교 및 연결공사(358억원) 등의 개발사업이 착공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155) 7~8월중 전국 OLED 패널 수출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21.4%)은 1/4분기(-5.3%) 및 2/4분기(-12.1%)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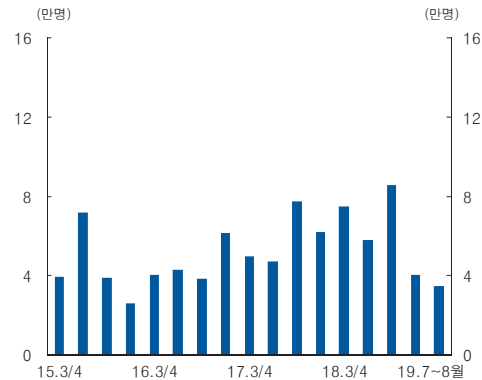
156) 1~8월중 중국시장내 현대기아자동차 현지법인 공장 판매는 57.0만대로 전년동기대비 17.7% 감소(각사 IR자료)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시장 점유율이 2018년 5.0%에서 1~8월중 4.4%로 하락하였다(MarkLines).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격 회복 지연 등으로, 자동차부품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현지공장의 생산량 감소¹⁵⁷⁾ 등으로,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영향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수출이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LCD 패널은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전년동기대비 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소폭 축소

7~8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5만명(월평균) 늘어 2/4분기(4.0만명)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이는 최근 지역경기 둔화와 함께 작년 3/4분기중 취업자수 증가¹⁵⁸⁾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자영업자가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임시근로자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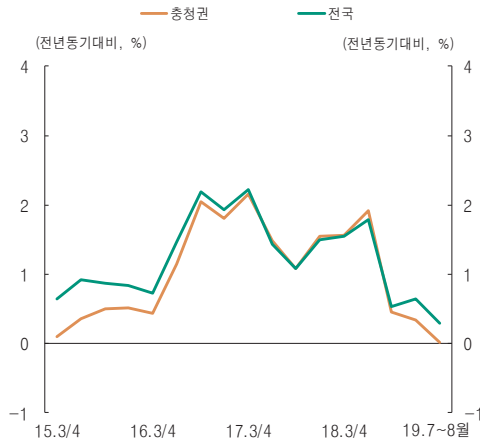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7~8월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0.0%)으로 나타나 2/4분기(0.3%)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상품 물가는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채소류가격이 하락한 데다 국제유가 하락¹⁵⁹⁾의 영향으로 석유류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소폭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반면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개인서비스의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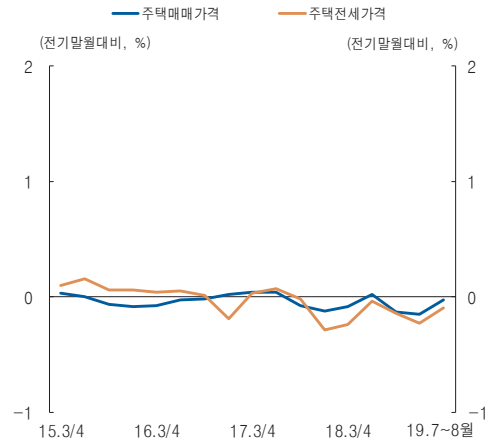
157) 현대자동차는 5월중 베이징1공장(연간 생산능력 30만대) 가동을 중단하였고 기아자동차는 6월중 연청1공장(14만대)을 폐쇄하였다. 이에 따라 1~6월중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국내 생산량은 44.1만대로 전년동기대비 20.4% 감소하였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158) 작년 3/4분기 충청권 취업자수는 월평균 7.5만명(전년동기대비) 증가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광역경제권에서 유일하게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159)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월말 64.8달러에서 7월말 63.6달러 및 8월말 59.6달러로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폭 축소)

7~8월중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각각 0.02% 및 0.09%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세종이 정부 규제 영향 등으로, 충남·북이 누적된 공급과잉의 영향 및 대규모 입주¹⁶⁰⁾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반면 대전은 주택시장 규제 강화의 반사효과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¹⁶¹⁾, 신도시 중심의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전세가격은 충남·북이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세종의 하락폭이 정부부처 추가 이전¹⁶²⁾에 힘입어 축소되고 대전의 상승세가 신학기 이사 수요,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입주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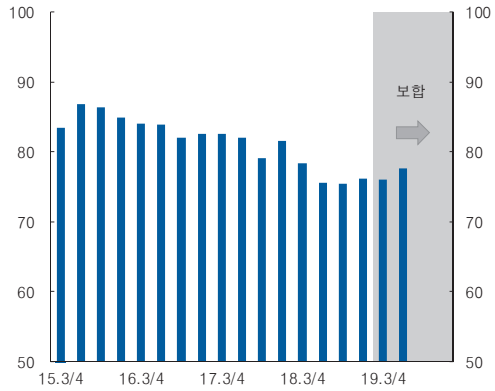
기업자금사정: 보험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은 금속제품이 소폭 개선된 반면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다소 악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비제조업은 운수업을 제외한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60) 6월 아산탕정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1,146세대), 7월 청주흥덕 파크자이 A블록(2,529세대) 등이 입주하였다(국토교통부).

161) 2006년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동구 삼성1구역(1,622세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금년 7월 26일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고, 인근 중앙1구역(618세대) 및 삼성 4구역(1,466세대)은 시공사를 선정(각각 4.13일, 6.22일)하였다.

1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였다(행정안전부).

기업자금사정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기업자금 사정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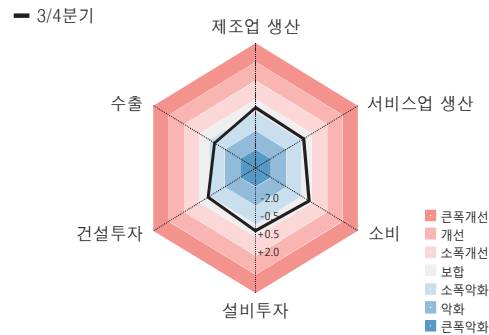
5. 호남권

개황: 보합

3/4분기중 호남권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수요 동향을 보면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보합 수준에 머물렀고,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7~8월중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전기에 비해 확대되었고, 소비자물가는 전기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전기말월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냈으나, 전세가격은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경기 레이더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한 것으로 -0.5 미만은 악화(감소), -0.5~+0.5는 보합, +0.5 초과는 개선(증가)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생산

(제조업 생산 보합)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조선, 음식료품이 증가한 반면 철강, 반도체는 감소하였고 석유정제 및 화학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자동차는 하반기에 출시된 신차의 판매 호조¹⁶³⁾로, 조선은 수주물량 증가¹⁶⁴⁾ 및 건조량 확대¹⁶⁵⁾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음식료품은 맥주공장 라인증설(3월)에 따른 생산능력 확대 및 신제품 판매 호조¹⁶⁶⁾, 육계 가공제품 생산량 확대¹⁶⁷⁾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철강은 원재료인 철광석가격 하락¹⁶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지속으로 감소하였으며, 반도체는 수요 부진 및 가격 하락¹⁶⁹⁾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석유정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수요 둔화 및 정제마진 회복 지연¹⁷⁰⁾으로, 석유화학은 국내외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¹⁷¹⁾과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 제약¹⁷²⁾으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163) 7월 1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출시된 소형 SUV(셀토스)는 국내에서 7월중 3,335대, 8월중 6,109대가 판매되는 등 호조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광주공장은 동 차종의 출고 목표량을 기존 3천대에서 5천대로 상향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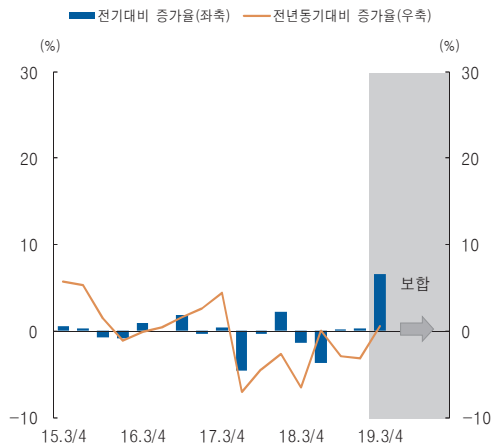
164) 현대삼호중공업은 7월중 LNG연료추진선 2척, 8월중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 3척 및 LPG 운반선 2척, 9월중 초대형 원유 운반선 1척 등을 신규로 수주하였다. 동사의 영업이익은 2/4분기 158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하였다.

165) 2/4분기중 조선업체가 밀집해 있는 영암 대불산업단지의 생산액은 5,82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6% 증가하였다.

166) 3월중 하이트진로가 출시한 '테라'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6월 100만 상자→7~8월 평균 150만 상자, 생산량의 20%는 전주공장에서 생산).

167) 하림은 익산 소재 육계가공시설을 증축하고 2/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3/4분기에는 생산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지수¹⁶²⁾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막대 및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는 신차 판매 증가로, 조선은 양호한 수주 실적¹⁷³⁾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음식료품은 주류 생산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육가공업체의 신규설비 가동도 확대됨에 따라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철강은 글로벌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3/4분기중 소비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소폭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 부동산업 및 운수업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숙박·음식점업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¹⁷⁴⁾, 지역축제 개최¹⁷⁵⁾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도소매업은 전통시장이 부진하였으나 백화점 명품 매출 등이 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거래량 감소¹⁷⁶⁾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운수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영향에 따른 일본노선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및 국내노선을 중심으로 증편¹⁷⁷⁾이 이루어지면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168) 1월 브라질 광산개발업체 발래의 광산댐 붕괴, 3월 호주 사이클론 피해 등으로 감소했던 철광석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철광석 가격은 7월중 톤당 125달러에서 8월중 82달러로 하락하였다.

169) 7월중 D램가격(8Gb)은 3.39달러로 전년동월(7.99달러)에 비해 57.6% 하락하였으며, 낸드플래시가격(128Gb)은 5.21달러로 전년동월(6.62달러)에 비해 21.3% 하락하였다.

170) 정제마진(석유제품가격·원유수입·생산비용)은 6월 셋째주 배럴당 2.8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뒤 7월 셋째주 7.4달러로 상승했으나 8월 셋째주 6.5달러로 소폭 하락하였다.

171) 2018~2023년중 신증설이 예정된 글로벌 에틸렌 설비 규모는 4,448만톤이며, 주로 중국(1,746만톤)과 미국(1,131만톤)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2) 에틸렌가격은 작년 8월말 톤당 1,310달러에서 금년 8월말 840달러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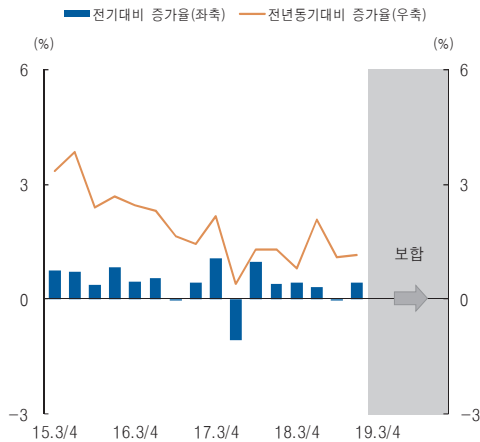
173)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황산화물 함유량: 3.5% 이하 → 0.5% 이하)를 앞두고 LNG 연료추진선 등 고부가 선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74) 7월 12일~8월 18일중 광주에서 개최되었으며 193개국 7,266명의 선수 및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175) 정남진 장흥 물축제(7.26~8.1일)에 51만명, 목포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8.8~10일)에 15만명, 전주 얼티밋뮤직 페스티벌(8.2~4일)에 17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76) 7월중 호남지역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하였다.

177) 상반기중 무안공항은 대만 타이베이(3편 → 362편), 베트남 다낭(46편 → 361편) 등 국제노선을 증편하였고, 여수공항은 김포(705편 → 712편), 제주(526편 → 530편) 등 국내노선을 증편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지수¹⁷²⁾

주: 1) 전년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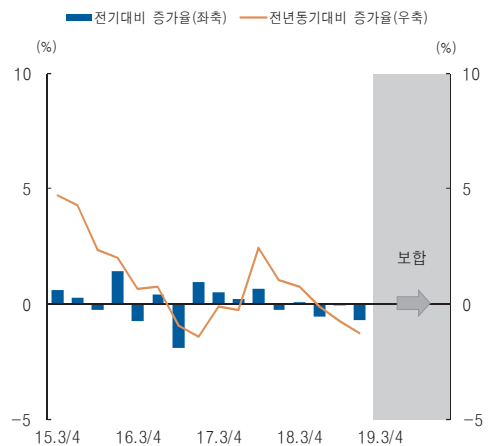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은 코리아세일페스타¹⁷⁸⁾, 가을 지역축제 및 대규모 행사¹⁷⁹⁾ 개최 등의 증가 요인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감소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관망세¹⁸⁰⁾로 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요

(소비 포함)

3/4분기중 소비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판매는 신차판매 호조로 소폭 증가¹⁸¹⁾하였고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 판매는 아파트 입주물량 확대¹⁸²⁾로 증가하였다. 반면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작년에 비해 폭염일수가 줄며 감소하였다. 한편 비내구재 판매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⁷²⁾

주: 1) 전년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임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178) 11월 1~22일중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하에 제조, 유통, 관광업계가 참여하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쇼핑 축제이다.

179) 목포항구축제(10.3~6일), 추억의 충장축제(10.2~6일), 정읍사문화제(10.19~21일)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며, 여수에서는 세계한상대회(世界韓商大會, 10.22~24일)가 개최될 예정이다.

180) 광주전남지역은 8월중 국토교통부 발표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7월에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81) 7월중 호남권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2,105대로 1/4분기(월평균, 11,493대)보다 5.3%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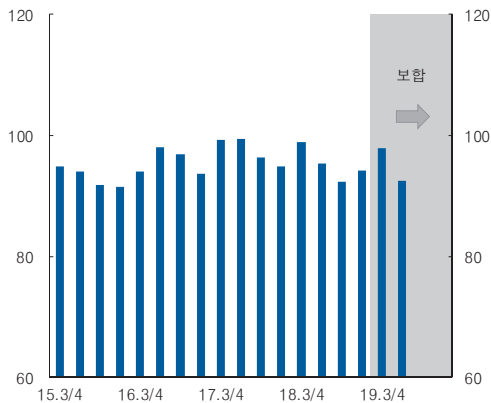
182) 3/4분기중 호남권 아파트 입주 규모는 8,703세대로 2/4분기(5,816세대)보다 49.6%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자동차 신차 판매 호조, 지역축제 개최 등의 긍정요인과 소비심리 회복 지연에 따른 부정요인이 혼재하면서 보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투자 보험)

3/4분기중 설비투자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제업이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대규모 생산공장 증설¹⁸³⁾ 및 환경개선설비 구축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⁸⁴⁾ 철강업은 2차전지 양극재공장¹⁸⁵⁾ 증설을, 음식료업은 육가공공장 증설¹⁸⁶⁾을 지속하였다.

설비투자실행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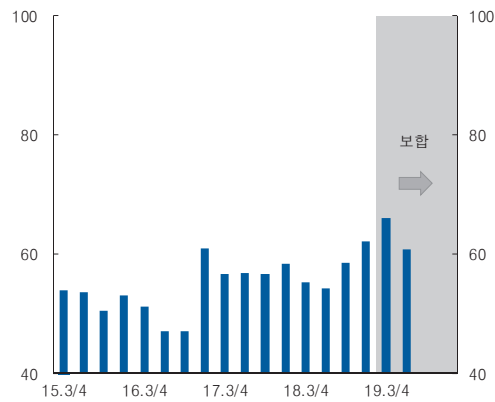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설비투자는 보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유화학·정제업, 철강업이 진행중인 신·증설 투자를 지속하고, 다른 업종들은 기존설비 유지·보수 수준의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투자 보험)

3/4분기중 건설투자는 2/4분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¹⁸⁷⁾ 착공, 새만금 관련 공사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민간부문은 건축 허가 및 착공이 축소¹⁸⁸⁾되고 주택가격 약세가 지속되면서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183) 여천NCC는 2020년 가동을 목표로 7,400억원 규모의 부타디엔 공장을, GS칼텍스는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여수 제2공장 인근에 2.7조원 규모의 올레핀 생산시설(Mixed Feed Cracker, MFC)을, LG화학은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여수공장 확장단지내 2.6조원 규모의 NCC와 고부가 폴리올레핀(PO)공장을 증설중이다.

184) 6월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LG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GS칼텍스, 롯데케미칼은 2023년까지 3,250억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확충하는 환경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185) 포스코는 울진지방산업단지에 작년 8월~금년 5월까지 연간 6천톤 생산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는 1단계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연간 2.4만톤 규모의 2단계 투자를 진행중이다.

186) 하림은 익산에서 하림식품 공장을 운영중인 가운데 최근 익산4산업단지에서 하림푸드 콤플렉스(2020년 예정)를 건설중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식품가공 플랜트 건립(2022년 예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8,800억원을 투입하여 3개의 공장을 연결한 하림푸드 트라이앵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87) 9월 5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착공되었다. 2조 1,761억원이 투입되어 41.8km 노선이 신설되며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188) 7월 호남권 건축 허가면적 및 착공면적은 2/4분기(월평균) 대비 각각 16% 및 9%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완성차 공장¹⁸⁹⁾ 착공, 도시철도 2호선 및 새만금 관련 공사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민간부문은 주택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신규투자 위축으로 보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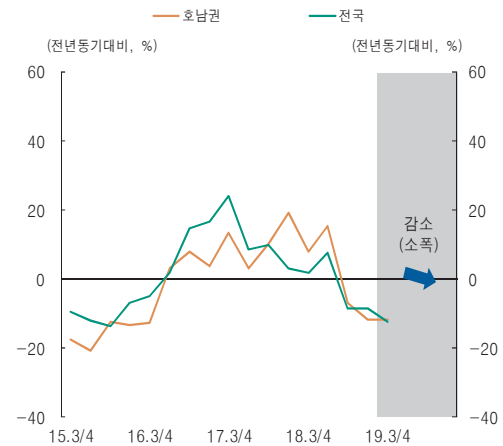
(수출 소폭 감소)

3/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박은 LNG 운반선 인도가 늘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석유화학·정제품은 국제유가 하락¹⁹⁰⁾, 아시아지역 정제설비 신규 가동¹⁹¹⁾ 및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¹⁹²⁾으로 감소하였다. 철강은 글로벌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철강 주요 정제로 소폭 감소하였고, 반도체는 제품가격 하락, 수요 회복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다.

수출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박은 양호한 수주 실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석유화학·정제품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철강은 원재료가격 하락에도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미국·유럽 등에서 SUV 및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겠으나 글로벌 자동차시장 성장 정제로 보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었다.

189) 8월 20일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하였다. 해당 법인은 금년중 빛그린산단 62만 8천㎡에 연간 10만 대 생산규모의 1000cc경형 SUV차량 공장을 착공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190)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작년 8월말 배럴당 75달러에서 금년 8월말 59달러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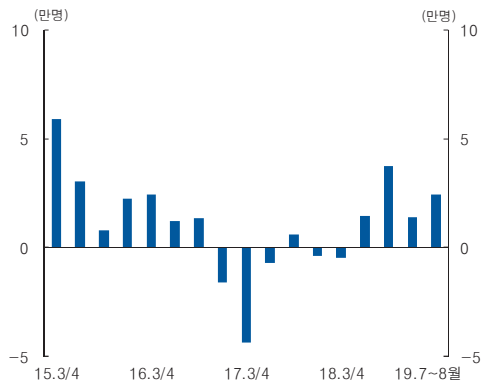
191) 베트남은 2018년 12월부터 일평균 20만배럴 규모의 정제설비를, 중국은 1월부터 40만배럴 규모의 정제설비를 신규로 가동하였다.

192) 7월중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단가는 톤당 1,124달러로 전년동월(1,375달러)대비 18.3% 하락하였고, 석유제품 수출단가는 배럴당 70달러로 전년동월(83.6달러)대비 16.3% 하락하였다.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7~8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4만명 늘어나 2/4분기(1.4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2만명), 농림어업(0.7만명), 건설업(0.5만명)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1.4만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5만명)은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0.2만명), 전남(1.0만명), 전북(1.2만명) 모두 증가하였다.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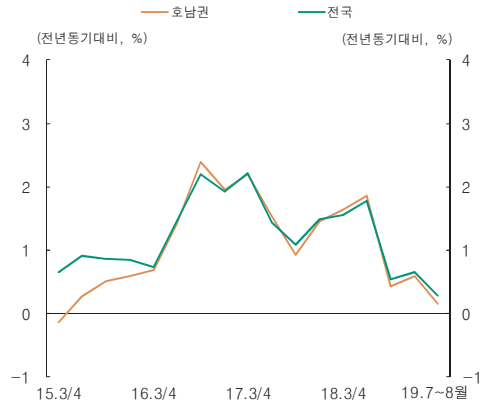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7~8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1% 상승하여 2/4분기(0.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전기·가스·수도 가격 상승(1.2%→2.1%)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가격이 하락(1.6%→-2.9%)하고 국제유가 둔화로 석유류가격 하락폭이 확대(-0.1%→-0.4%)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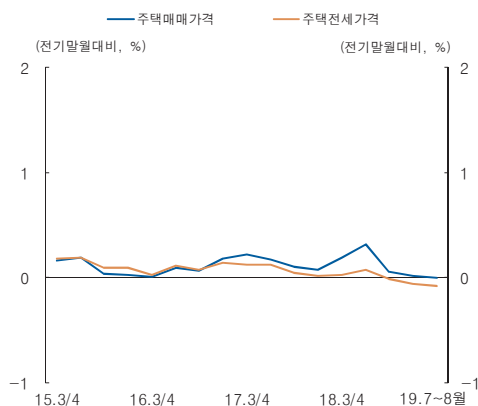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보합, 전세가격 소폭 하락)

7~8월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상승하였으나 광주와 전북은 소폭 하락하였다.¹⁹³⁾ 한편 전세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0.1%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소폭 상승한 반면 광주와 전북은 하락하였다.¹⁹⁴⁾

193) 7~8월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상승률은 광주 -0.05%, 전남 0.14%, 전북 -0.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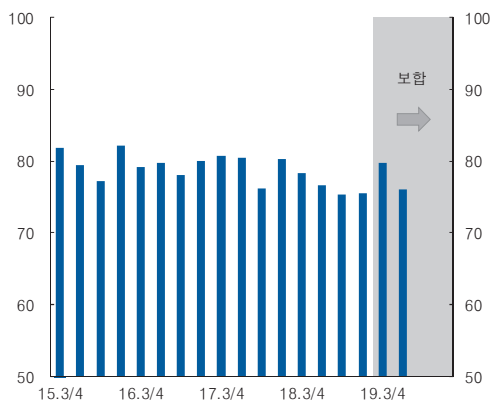
194) 7~8월중 전세가격(월평균) 상승률은 광주 -0.12%, 전남 0.01%, 전북 -0.19%로 나타났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기업자금사정: 보험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은 조선, 자동차 업체가 개선되었으며,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업체는 소폭 악화되었다. 비제조업은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기업자금사정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개황: 보합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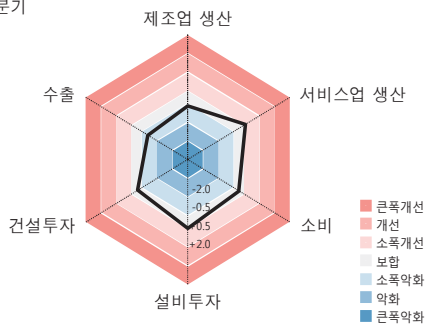
54

3/4분기중 대경권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소폭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 동향은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전기 수준에 머물렀으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7~8월중 취업자수는 2/4분기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레이다¹⁾

— 3/4분기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한 것으로 -0.5 미만은 악화(감소), -0.5~+0.5는 보합, +0.5 초과는 개선(증가)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디스플레이, 기계장비는 소폭 감소하였다. 휴대폰, 철강, 섬유는 전기 수준에 머물렀다.

자동차부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신차 출시 효과¹⁹⁵⁾, 북미지역 수출 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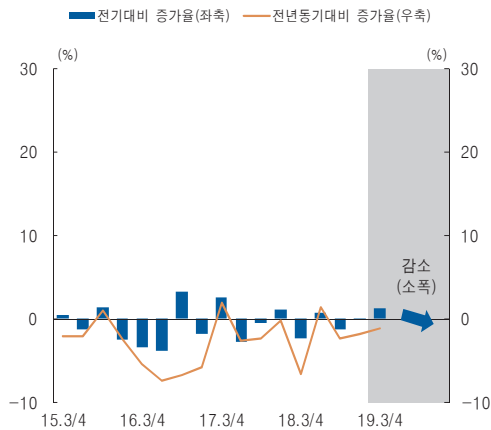
반면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OLED 패널 생산이 정제되고 중국업체의 LCD 패널 생산 확대가 이어지며 소폭 감소하였다. 기계장비는 전방산업의 글로벌 수요 둔화¹⁹⁶⁾,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휴대폰은 폴더블폰 등 신제품 출시¹⁹⁷⁾의 증가요인과 해외 생산 및 부품 현지조달 확대의 감소요인이 혼재하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철강은 건설 등 국내 전방산업 둔화, 중국산 철강재 수입 물량 증가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기 수준에 머물렀다. 섬유는 섬유원료 등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산업용 화학섬유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195) 작년말 현대 팰리세이드(2018.12월)에 이어 최근 기아 셀토스(7월) 등이 출시되었다.

196) 최근 주요국(중국, 일본, 독일, 인도,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 추세(전년동기대비, 1/4분기 -7.3% → 2/4분기 -12.3% → 7월 -14.7%)를 나타내고 있다.

197)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10과 노트 10+를 8월 23일 출시한 데 이어 갤럭시 폴드(폴더블폰)를 9월 6일 출시하였다.

제조업 생산지수¹⁹²⁾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막대 및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대폰은 글로벌시장 성장 정세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폴더블폰 출시 등에 따른 신규 수요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은 글로벌 무역규제 기조,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가 계속되며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자동차부품은 신차를 중심으로 내수 및 북미시장 판매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파악

되었다. 기계장비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설비 투자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조사되었다. 섬유는 산업용 화학섬유의 수요 확대 등 증가요인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 등 감소요인이 혼재하면서 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이 소폭 증가한 반면 운수업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은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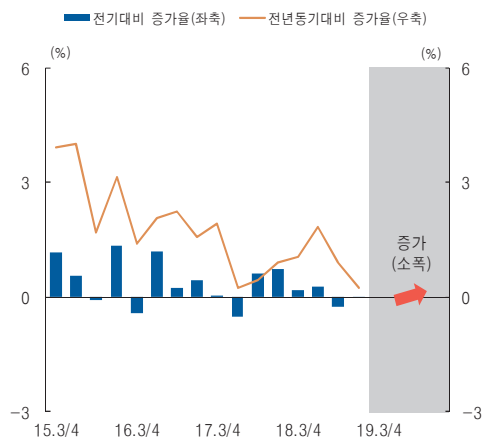
숙박·음식점업은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여름 휴가철 개별 관광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늦캉스 현상으로 성수기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¹⁹⁸⁾ 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거래량 확대¹⁹⁹⁾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운수업은 국내선 여객 수요가 증가했으나 대구공항 취항 항공사들의 일본 노선 운휴 또는 폐지²⁰⁰⁾로 국제선 여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명품 등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온라인 및 홈쇼핑 이용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기 수준에 머물렀다.

198) 보문관광단지의 7~8월 성수기 객실 점유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여름휴가철 쏠림 현상 완화(늦캉스 확산) 등으로 9월까지도 성수기 수준의 높은 객실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199) 7월중 대경권 주택거래량(11,975건)은 2/4분기(월평균, 10,452건) 대비 14.6% 증가하였다(한국감정원).

200) 3/4분기중 대구공항의 일본 노선 운항편수가 일본 관광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었다(주당 190편 → 50편).

서비스업 생산지수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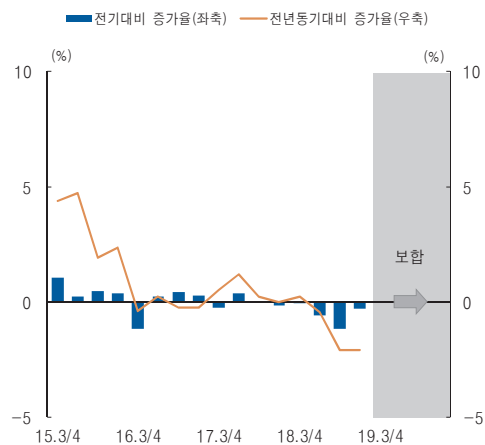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개별관광객의 증가세가 지속²⁰¹⁾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부동산업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 등으로, 운수업은 국제선 일본 노선 감축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감소와 소비심리 둔화로 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요

(소비 보험)

3/4분기중 소비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가 신차 출시 등으로 소폭 증가²⁰²⁾하였으나 지난해에 비해 폭염 일수가 줄면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 판매가 소폭 감소하였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류, 잡화 등 준내구재는 소비심리 둔화²⁰³⁾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소매판매액지수¹⁰⁾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 경주지역은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젊은층이 선호하는 맛집이나 카페가 활성화되고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빈번히 노출되면서 20~30대 개별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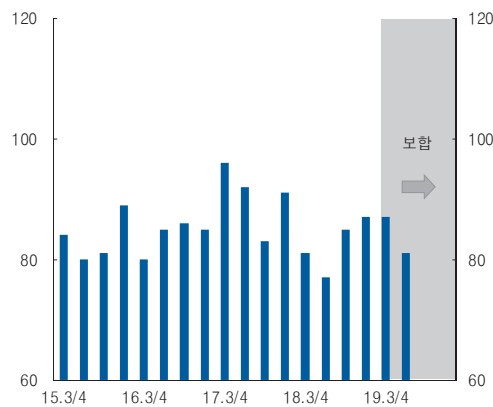
202) 7월중 대구경북지역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10,287대로 2/4분기(월평균, 9,973대)에 비해 3.1% 증가하였다.

203) 금년 들어 개선 흐름을 이어가던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7~8월중에는 하락하였다(2018.4/4분기 94.6 → 2019.1/4분기 94.8 → 2/4분기 95.5 → 7~8월 90.5).

(설비투자 포함)

3/4분기중 설비투자는 전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제조업은 노후 공장 증설 및 생산 효율화를 위한 투자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디스플레이 제조업은 업황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휴대폰, 철강, 자동차부품 및 섬유 등 제조업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머무르면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설비투자실행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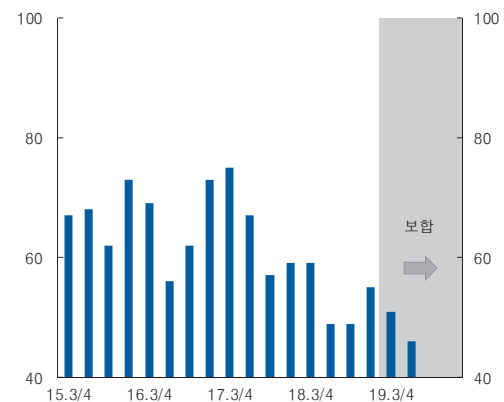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은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대폰, 철강,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섬유 제조업 등은 대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에 주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투자 포함)

3/4분기중 건설투자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의 신규 착공이 줄어들면서²⁰⁴⁾ 소폭 감소하였다. 공공부문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SOC 공사²⁰⁵⁾가 이어지면서 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업 업황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건설투자는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부문은 정부 규제 강화 기조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겠으나, 공공부문은 생활밀착형 SOC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204) 7월중 대구경북지역 주거용 건축착공은 전년동월대비 31.5% 감소하여 1/4분기(-23.2%), 2/4분기(-2.9%)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5) 철도,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달리 복지, 체육시설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시설을 의미한다. 상반기중 대구도서관 등 6곳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수출 소폭 감소)

3/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 철강,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부품이 감소하였고 기계장비 및 섬유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휴대폰 및 부품은 해외 생산 및 현지조달 확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둔화²⁰⁶⁾ 등으로 감소하였다. 철강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글로벌 수요 둔화로 소폭 감소하였다. 디스플레이는 중국 업체의 생산 확대²⁰⁷⁾로, 자동차부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국 현지생산 부진이 지속되며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기계장비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전기수준에 머물렀으며, 섬유는 직물 수출이 증가했으나 섬유원료 등이 감소하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에도 수출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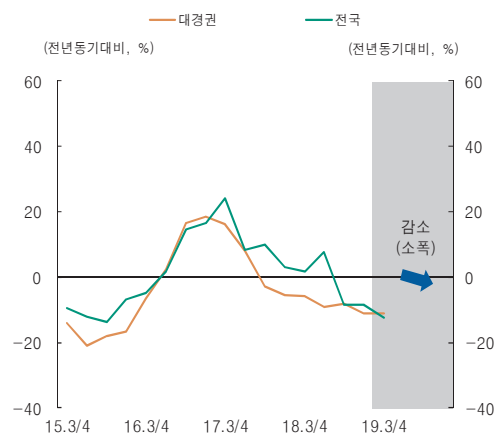
철강 및 기계장비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스플레이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휴대폰 및 부품은 신제품 출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교체주기 연장, 해외기업의 완제품 판매 부진에 따른 부품 수출 감소 등으로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부품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북미지역 SUV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에서의 부진 지속 등으로 보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 취업자수 감소폭 축소

7~8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5만명(월평균) 감소하여 2/4분기(-1.3만명)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증가폭이 확대되고, 서비스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경북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수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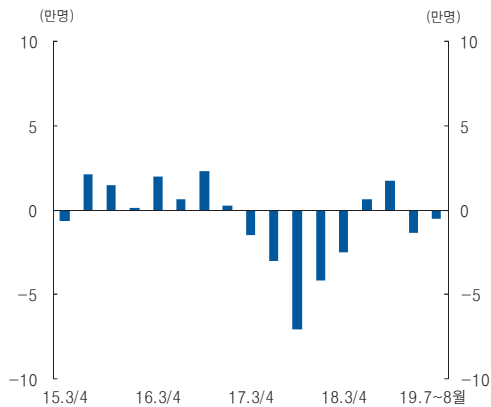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6)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1/4분기(-2.7%)에 이어 2/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였다(Gartner).

207) 중국의 생산확대로 공급과잉이 초래되면서 LCD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TV용 3월 140달러 → 6월 128달러 → 7월 118달러, 모니터용 3월 54.8달러 → 6월 53.3달러 → 7월 53.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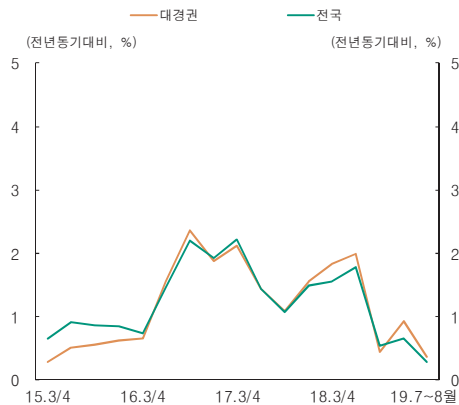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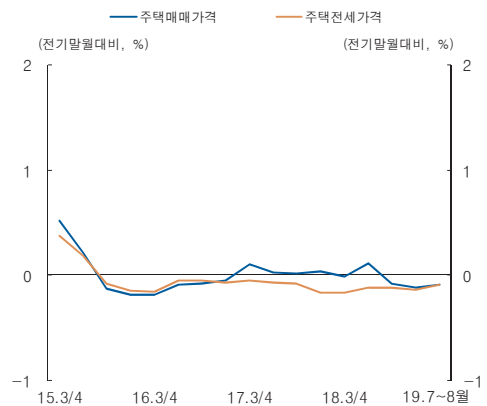
7~8월중 대경권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4% 상승하여 2/4분기(0.9%)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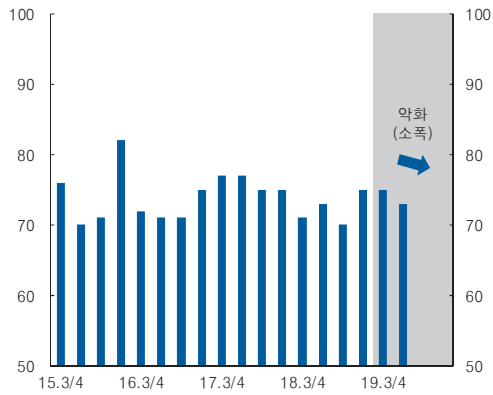
7~8월중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월평균)은 모두 전기말월대비 0.09% 하락하였다. 주택매매 가격은 대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경북의 주택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대경권 전체로는 소폭 하락하였다. 전세가격은 대구가 상승하였으나 경북이 공급 과잉 지속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기업자금사정: 소폭 악화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보다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비제조업이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7. 강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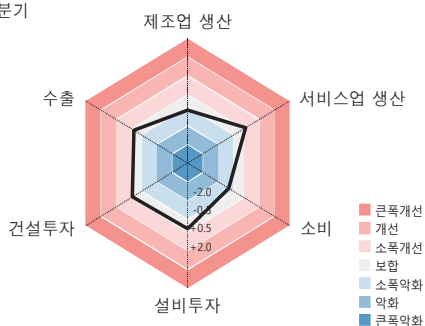
개황: 보합

3/4분기중 강원권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는 소비가 소폭 감소하였지만,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보합 수준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7~8월중 취업자수는 증가폭이 전기보다 확대되었고,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경기 레이다¹⁾

■ 3/4분기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한 것으로 -0.5 미만은 악화(감소), -0.5~+0.5는 보합, +0.5 초과는 개선(증가)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생산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모니터링 결과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면류, 의료기기 및 전기장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시멘트와 자동차부품은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주류는 전기 수준을 이어갔다.²⁰⁸⁾

식료품중 면류는 주력제품의 수출 호조²⁰⁹⁾로, 의료기기는 공공발주 예산 집행, 글로벌 수요 지속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기장비도 다만 해저케이블 수주²¹⁰⁾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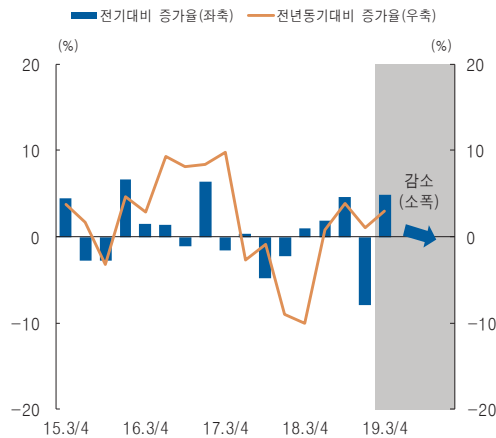
반면 시멘트는 국내 건설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줄고 수출 증가세도 다소 둔화²¹¹⁾되면서 소폭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도 북미권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8) 최근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일본 맥주 수입이 감소(전년동기대비, 7월 -34.6% 8월 -97.1%(잠정))하면서 국산 맥주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지역내 일부 주류 생산업체의 경우 일본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9) 7~8월중 면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9.5% 증가하였다. 특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할랄 인증을 받는 등의 노력으로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

210) LS전선(해저케이블 생산업체)은 7월중 대만의 해상풍력단지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하는 8,900만유로(약 1,180억원) 규모의 계약 2건을 추가 체결하여 금년중 대만에서 총 3건을 수주하였다.

211) 강원권 시멘트 수출은 금년 들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었다(1/4분기 81.2% → 2/4분기 57.5% → 7~8월중 23.5%).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막대 및 선 그래프는 7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향후 제조업 생산은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료품은 주류 내수 판매 확대, 식료품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및 마케팅 노력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업체의 국내 신차 양산 지연²¹²⁾, 고급차 수요 부진 등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의료기기는 유럽의 인증기준 강화²¹³⁾ 및 일본 수출 불확실성, 시멘트는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²¹⁴⁾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모니터링 결과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소폭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은 소폭 감소하였고, 운수업, 부동산업은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동해안 해수욕장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²¹⁵⁾한 가운데 가족형·산지(山地)형 피서 수요 확대, 일본 여행 기피²¹⁶⁾에 따른 반사이익²¹⁷⁾, 신규 시설을 확충한 리조트 매출 호조²¹⁸⁾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도소매업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판매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대형마트는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운수업은 도내 공항의 일본 노선 감편 등으로 항공운송이 줄었으나 관광객 증가로 육

212) 현대자동차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고급형 세단(G80) 신형 모델 출시를 9월에서 내년 초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도내 업체의 자동차부품 납품이 당초 계획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3) 유럽의 주요 수출대상국들은 기존 의료기기 인증인 MDD(Medical Device Directive) 지침에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사용자 적합성 등을 필수 사항으로 포함한 MDR(Medical Device Regulation)을 2017년 5월 도입하였다. 동 인증은 3년간의 전환기간 이후 2020년 5월부터 강제 적용될 예정이며 인증 관련 비용 증가 등이 예상되고 있다.

214) 정부는 8월말 시멘트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수입 폐석탄재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표본조사에서 전수조사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국산 석탄재 등 대체 재료의 발굴 노력이 필요해졌다.

215) 금년중 강원도내 해수욕장 방문객수는 잦은 우천과 태풍 등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의 특색 있는 해수욕장 운영 및 운영기간 연장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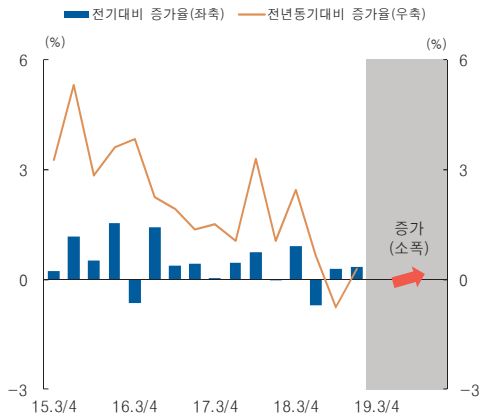
216) 항공사들은 최근 예약률이 급감함에 따라 일본노선을 폐지 또는 축소하였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 된 이후 7월중 방일 한국인 관광객은 감소(전년동기대비 -7.6%, 일본관광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217)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행을 계획한 국민의 43.8%가 여행을 취소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한 뒤 국내로 목적지를 전환하였다. 이 중 20.4%가 강원도를 방문할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18) 도내 리조트들은 미디어파사드(비발디파크), 알파카 골드팜(용평리조트) 등의 신규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 여객이 늘면서 보험 수준을 나타내었다. 부동산업은 주택매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거래²¹⁹⁾가 늘어나는 등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국내여행 확대 추세, 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²²⁰⁾, 대형 리조트 업체들의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수업도 항공운송이 도내 공항의 정기 국제노선 개설²²¹⁾, 도내 저가항공사의 국내 및 국제선 취항²²²⁾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도소매업은 자동차 판매가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소폭 늘어나겠으나, 전반적인

소비심리 개선 지연으로 보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물 출하 소폭 증가)

모니터링 결과 3/4분기중 농축산물 출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랭지 배추와 무의 출하량은 양호한 작황에 힘입어 늘어났다. 반면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원예농산물의 출하량은 기온 저하²²³⁾에 따른 숙기 지연, 병해충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축산물은 돼지가 모돈(母豚) 사육두수 증가로, 소는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출하량이 증가하였다.

향후 농축산물 출하는 농산물이 고랭지 채소의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축산물은 사육두수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소비 소폭 감소)

3/4분기중 소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으로 소비가 둔화되었다.

내구재는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였고²²⁴⁾, 가전제품 판매도 감소하였다.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219) 7월중 강원권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5%, 3.9%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20) 한국관광공사와 강원도는 중국 최대 제약회사중 하나인 수정제약그룹의 인센티브 관광 방한단 3,400명을 유치(1차 1,400명(9월 방한), 2차 2,000명(10월 방한 예정)하였으며, 9월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태국·대만) 해외 로드쇼, 10월 중국지역 동계관광 상품 홍보세일즈 추진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21) 양양공항은 8월중 중국 4개 도시(상하이, 항저우, 시안, 닝보)에 대한 정기노선을 개설하였다. 동 노선은 10월 중순 취항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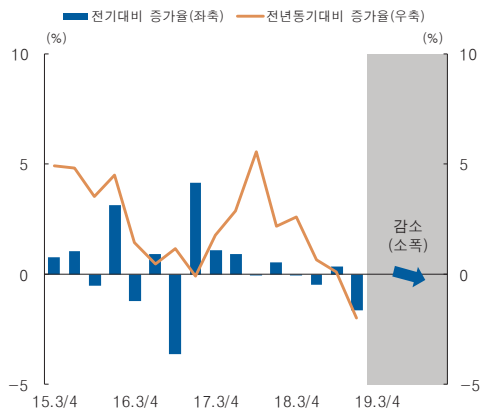
222) 플라이강원은 10월중 제주 노선을, 12월중 대만과 태국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223) 강원지역의 2019년 폭염 일수는 14.7일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하였으며, 여름철 평균 기온도 24.9°C(2018년)에서 24.1°C(2019년)로 낮아졌다.

소비심리 악화²²⁵⁾로 인해 의류,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음식료품은 외식물가 상승,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에 따라 일반 가계의 식자재 구입이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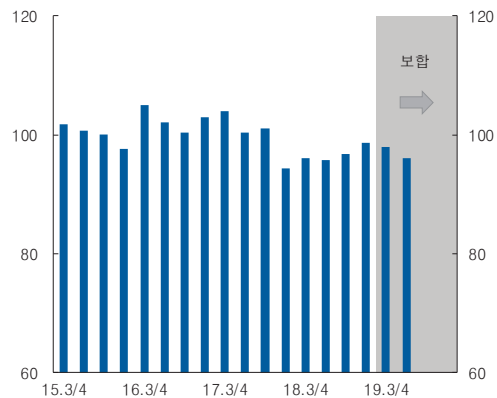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관련 추경예산 집행²²⁶⁾,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²²⁷⁾, 자동차 구매 관련 세금 감면 확대 등은 소비 부진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고용률 상승, 아파트 입주 물량 확대 등도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내 군부대 재편 계획²²⁸⁾, 유류세 인하 종료 등이 소비 개선을 제약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비투자 포함)

3/4분기중 설비투자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기장비 제조업은 생산 공장 증설²²⁹⁾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업은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시멘트 제조업 및 리조트 등은 기존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일부 보완 투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비투자실행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설비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기기 제조업

224) 강원권 신규승용차등록대수는 7~8월중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225) 강원권 소비자심리지수는 2/4분기 96.7에서 7~8월중 94.9로 1.8p 하락하였다.

226) 강원도는 산불피해 복구 관련하여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 305억원, 건물 철거비 14억원, 피해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수도 보강 63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였다.

227) 강원도는 7월말 도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40~70%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28)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주둔 부대 이전 및 통합이 진행되면서 금년중 양구군을 시작으로 도내 군병력 감소가 예상되면서 접경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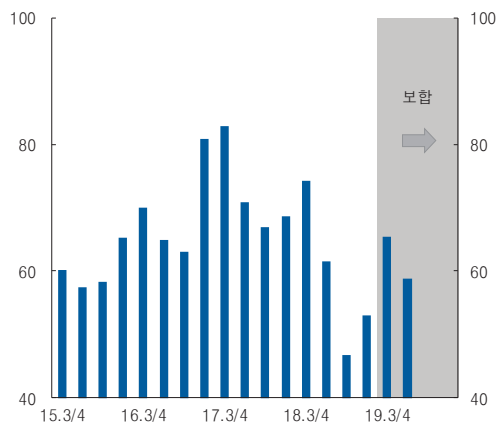
229) LS전선(해저케이블 생산 업체)은 동해사업장 인근에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증설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및 식료품 제조업은 신제품 출시 등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부분 업체는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설투자 포함)

3/4분기중 건설투자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목건설은 동해안 발전소 공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규모 테마파크의 공사가 재개²³⁰⁾되면서 포함 수준을 보였다. 주거용 건물건설은 미분양 물량과 다 등으로 부진이 지속²³¹⁾되었다.

건설업 현황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경 예산이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²³²⁾되는 가운데 토목건설이 전기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주거용 건물건설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²³³⁾

(수출 포함)

3/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부품, 면류 등 주요 수출품목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료기기와 주류 및 합금철은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북미권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식료품중 면류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력 제품이 인기를 끌며 수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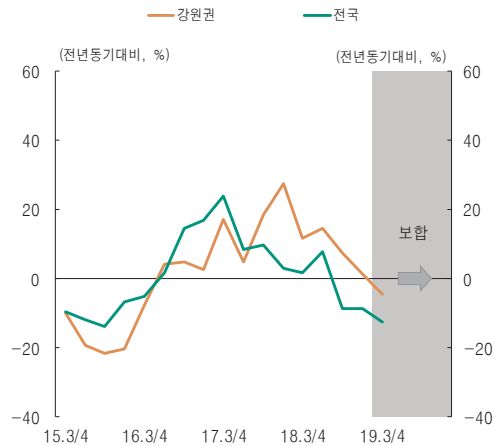
반면 의료기기는 글로벌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으로의 인증 절차 강화 등으로 감소하였다. 주류는 일부 업체의 내수물량 확대를 위한 수출 축소,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과의 무역 갈등 등으로 감소하였다. 합금철은 미국, 유럽 등의 건설업 부진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230)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기존 계약(강원중도개발공사와 STX건설 간)이 계약해지로 합의되면서, 멀린社(레고랜드 사업 해외투자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사(현대건설)와 2021년 개장을 목표로 9월부터 골조 등 본공사를 시작하였다. 기존 시공사 STX건설은 잔여 기반 및 복토 공사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231) 강원권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는 최근 하강 국면(지수 기준 85 미만)을 지속(7월 38.0 → 8월 53.3 → 9월 41.1¹⁾)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산업연구원).

232) 강원도는 피해 주민 지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산불피해 복구비를 중심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와 같은 생활형 SOC 등 건설투자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233) 강원권 건축허가착공면적은 1/4분기 143,817㎡ → 2/4분기 117,711㎡ → 7월 74,59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수출의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선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기기는 신제품 출시 및 해외 수주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은 중국 수출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료품은 해외 수출 확대 노력²³⁴⁾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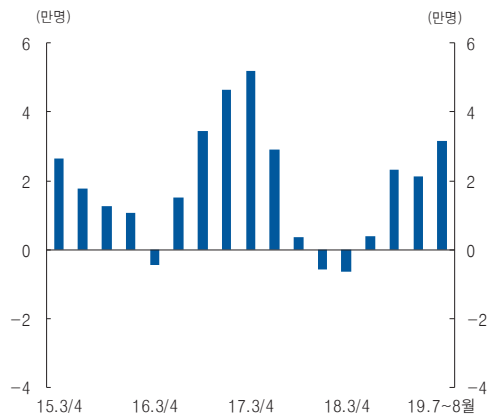
반면 주류는 업체들의 내수 비중 확대 정책 등에 따라 일본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시멘트는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원재료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보합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7~8월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2만명 늘어 2/4분기(2.1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및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증가하였다.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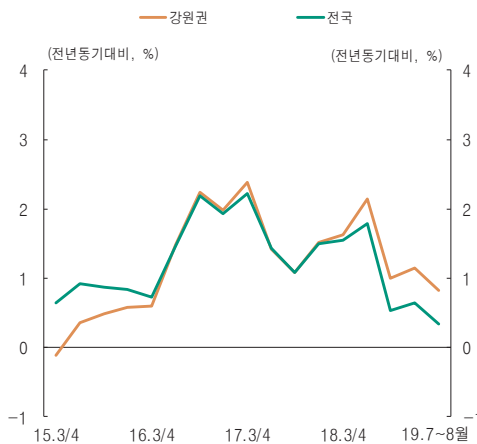
234) 도내 20개 업체(화장품, 식품류, 생활용품 등)는 8월중 강원도의 자매도시인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된 제12회 중국-동북아시아 박람회에 참가하여 현장판매, 수출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소폭 축소)

7~8월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8% 상승하여 2/4분기(1.1%)보다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이는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안정화, LPG 공급가 하락 등에 주로 기인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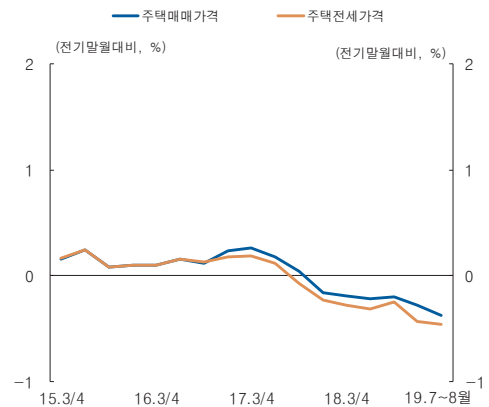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

7~8월중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각각 0.37% 0.46% 하락하여 2/4분기(각각 -0.28%, -0.43%)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이는 미분양 물량 해소가 지연되는 가운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아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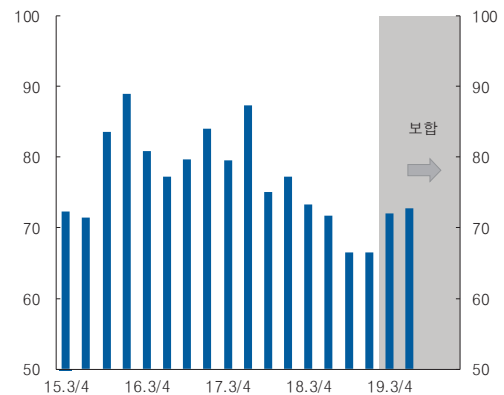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기업자금사정: 보험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2/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은 시멘트 및 자동차부품이 내수 부진으로 소폭 악화되었다. 반면 서비스업은 리조트 등 숙박·음식점업이 매출 호조로 소폭 개선되었다.

기업자금사정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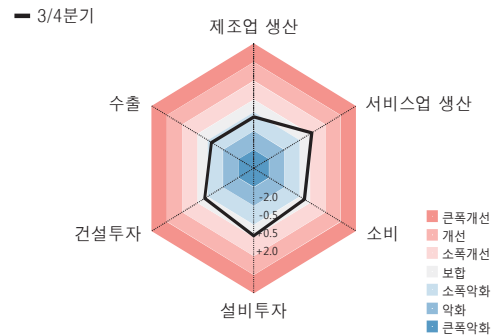
8. 제주권

개황: 보합

3/4분기중 제주권 경기는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과 농축수산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수요 동향을 보면 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7~8월중 취업자수는 전기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주택매매가격은 전기말 월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3/4분기중 기업 자금사정은 전기보다 소폭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기 레이다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기대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한 것으로 -0.5 미만은 악화(감소), -0.5~+0.5는 보합, +0.5 초과는 개선(증가)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생산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골프장업, 렌터카업 및 숙박업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음식점업과 전세버스업은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대형 면세점 매출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호조²³⁵⁾를 이어가고 전통시장 매출이 내국인 관광객 증가²³⁶⁾로 확대됨에 따라 소폭 증가하였다. 골프장업은 지역주민 이용 확대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렌터카업은 내국인 개별관광객이 늘어²³⁷⁾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숙박업은 대형 고급호텔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일부 중소 숙박업체가 객실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휴업²³⁸⁾하는 등 업황 부진이 지속되었다. 한편, 음식점업은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소폭 악화되었으며, 전세버스업은 내국인 단체관광객이 감소²³⁹⁾하며 부진이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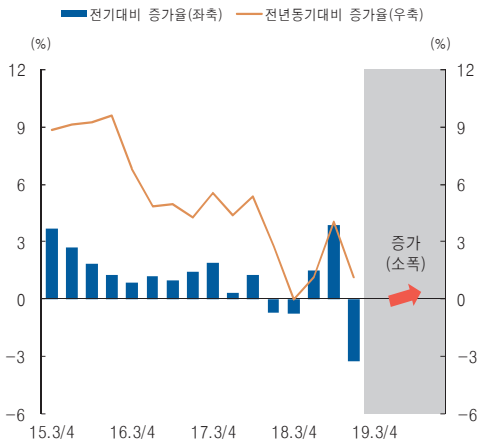
235) 2/4분기중 제주지역의 면세점 매출은 1조 3,49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9% 증가하였다(관세청).

236) 7월중 내국인 관광객(115.7만명)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여 지난 3월(0.4%) 이후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237) 7월중 내국인 개별관광객은 112.5만명으로 전월(110.7만명)대비 1.8만명 증가하였다.

238) 8월중 50곳(392객실)의 숙박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함에 따라 8월까지 휴·폐업한 숙박업체는 506곳(2,953객실, 누계기준)에 이르렀다.

239) 7월중 내국인 단체관광객은 3.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3%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생산지수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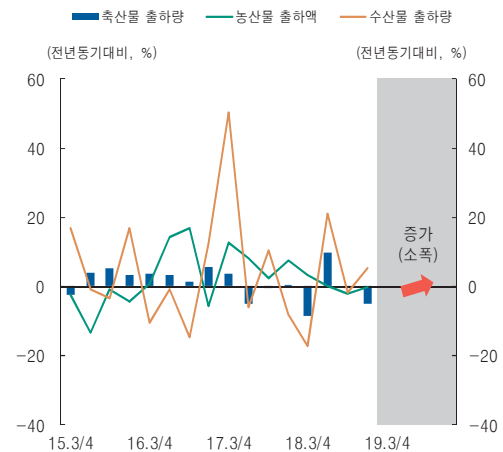
주: 1) 전년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년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한일간 일부 항공노선이 축소되었지만 국내선 대체 증편²⁴⁰⁾이 예정되어 있어 내국인 관광객도 증가²⁴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및 제주지역의 소비심리 둔화²⁴²⁾는 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축수산물 출하 소폭 증가)

3/4분기중 농축수산물 출하는 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 출하액은 하우스감귤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자, 마늘 등

이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수산물 출하량은 양식 광어와 갈치를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축산물 출하량은 돼지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농축수산물 출하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농축수산물 출하의 전년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품질평가원,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농축수산물 출하는 기상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산물은 감귤 출하가 본격화되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은 참조기, 옥돔 등의 금어기가 종료²⁴³⁾되어 어획량이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축산물은 돼지가 수요 감소²⁴⁴⁾로 출하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확산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240) 대한항공은 11월 1일부터 제주-나리타노선(주 3회), 제주-오사카노선(주 4회)을 운휴하는 한편 제주-포항노선(주 7회)을 신규 개설하고, 제주-울산노선을 기존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할 예정이다.

241) 일본 여행을 계획한 국민중 43.8%는 국내로 목적지를 변경하였으며, 이들중 31.5%가 제주(1위)를 대체 여행지로 계획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42) 8월중 제주지역(96.6) 및 전국(92.5) 소비자심리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3.6p, 3.4p 하락하였다.

243) 8월 10일 20일자로 각각 참조기 금어기(4.22~8.10일)와 옥돔 금어기(7.21~8.20일)가 종료되었다.

244) 1~7월중 가계의 월평균 돼지고기 구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1.86kg 수준으로 조사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3/4분기중 제조업 생산은 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콜음료는 신제품²⁴⁵⁾ 생산, 추석연휴 판매 증가에 대비한 재고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비알콜음료가 PB상품 등 저가브랜드와의 경쟁 심화로 감소하였다. 한편, 비금속광물제품은 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비알콜음료가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증가하겠으나 비금속광물제품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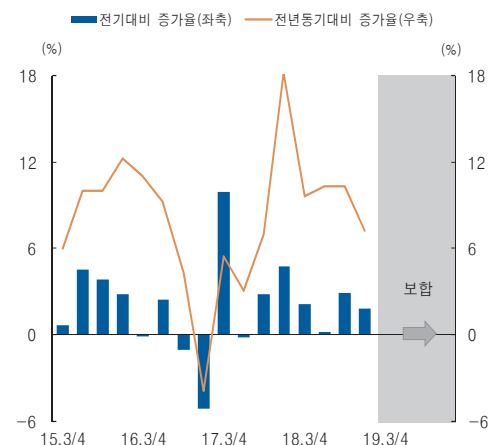
(소비 보험)

3/4분기중 소비는 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형마트와 전문소매점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형마트는 부진을 지속하였다.

품목별로는 전년에 비해 폭염일수가 줄어들면서²⁴⁶⁾ 에어컨 등 가전제품 소비가 감소하였다. 자동차 구매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실시로 인한 전기의 선구매²⁴⁷⁾ 등 기저효과에 의해 큰 폭

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서비스 소비는 의료서비스²⁴⁸⁾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⁰⁾



주: 1) 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소비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모니터링 결과 향후 소비는 경기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약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비투자 보험)

3/4분기중 설비투자는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면세점업은 일부 대형면세점이 매장 내부 개·보수를 진행하였고,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일부 업체들이 지자체 정책²⁴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도입하는 등 소규모

245) 한라산소주는 저도수시장 공략을 위해 알콜 도수를 17도로 낮춘 '한라산17'을 5월 출시하였다.

246) 여름철 제주도 폭염일수는 25일(제주 5일, 서귀포 0일)로 전년동기(9.0일)대비 6.5일 적었다(제주지방기상청).

247) 7월부터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중형 이상 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 선구매 등으로 2/4분기 제주지역 자동차 구매액(신한카드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72.2% 증가하였다.

248) 7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난임치료사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었다.

249) 제주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330㎡ 이상 음식점 등에 대해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비용부담 등을 우려하여 과태료 부과시기를 10월로 연기하였다. 한편, 제주시 및 서귀포시는 폐기물 감량기를 도입하는 음식점 등에게 구매금액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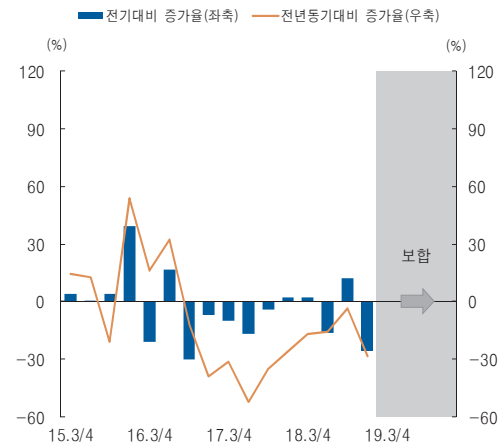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음료 제조업은 작년말 대규모 설비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신규투자 여부는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숙박업은 고급호텔이 겨울철 비수기를 이용해 내부 객실 및 부대시설 리모델링 등을 진행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렌터카업은 렌터카 총량제 실시 이후 지자체가 감차 목표치 초과 업체들에 대해 일부 증차를 허용함²⁵⁰⁾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보합)

3/4분기중 건설투자는 전기 수준의 업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은 주택 가격 하락, 미분양 주택 증가²⁵¹⁾, 저조한 수주 실적²⁵²⁾ 등으로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은 SOC사업²⁵³⁾ 등이 원활히 진행되어 민간부문의 부진을 일부 상쇄하였다.

건축착공면적¹²⁾



주: 1) 전년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건설투자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규모 SOC 사업²⁵⁴⁾이 계속해서 발주될 예정이다. 민간부문은 그동안 부진하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²⁵⁵⁾이 재개되며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부문에서는 부동산 경기부진 장기화로 일부 업체의 자금난이 심화²⁵⁶⁾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0) 8월 13일 제주도는 공고를 통해 업체별 차량 추가 감차(목표 감차량의 50% 잔여분) 시한을 6월 30일에서 현재 진행중인 자율감차 관련 소송 종료시까지로 유예하였다. 또한 목표 감차량의 50%를 초과하여 이미 감차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그 초과분에 대해 증차를 허용하였다.

251)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주지역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2018.10월~2020.2월)하였으며, 7월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수는 1,161호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252) 6월중 제주지역 건설수주액은 52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1.4% 하락하였다.

253) 8월 23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가 입찰되었으며, 남제주북합화력발전소 사업(총사업비 3,821억원, 3월 착공) 등이 진행중이다.

254) 4/4분기중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개설공사,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건축,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등의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25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시행사인 녹지그룹은 잔여 미지급공사대금 전액을 시공사에 지급(8.30일)하며 공사 재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사인 람정개발은 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PF자금조달액(약 3,700억원)에 성공하는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들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6) 7~8월중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의 자금사정 BSI는 67로 2/4분기(78) 대비 11p 하락하였다.

(수출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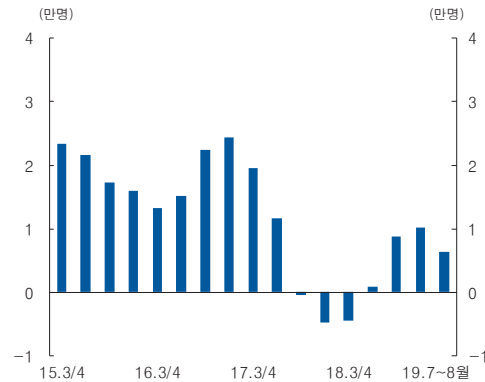
3/4분기중 수출은 반도체 설계 수출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반도체 설계와 수산물 중심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반도체 업체가 설계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으로의 양식 광어 수출이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수출 감소폭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소폭 축소

7~8월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0.9만명 증가하여 전기(1.0만명)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지만 농림어업은 축소되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감소로 전환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의 감소폭과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모두 확대되었다.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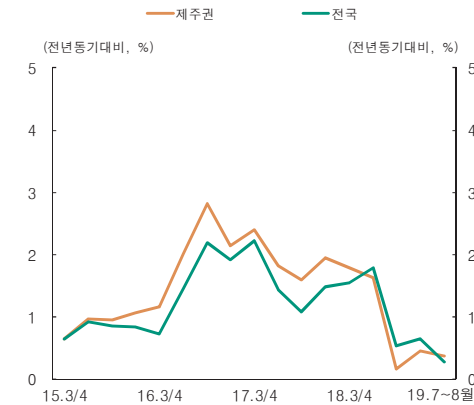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낮은 상승폭 유지)

7~8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4% 상승하며 전기 수준(0.5%)의 낮은 상승폭을 유지하였다. 상품 물가는 농축수산물²⁵⁷⁾을 중심으로 하락하였고, 서비스 물가는 공공서비스가격²⁵⁸⁾이 하락세를 지속하여 낮은 상승폭을 보였다.

257) 7~8월중 농축수산물가격은 돼지고기와 조기 가격의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1.1%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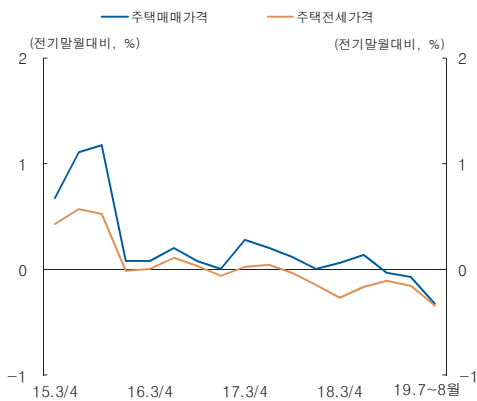
258) 7~8월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제주도가 택시 기본운임(2,800원 → 3,300원, 중형택시기준) 및 거리운임(144m, 35초당 100원 → 126m, 30초당 100원)을 2013년 7월 1일 이후 6년만에 인상(7.15일)하였으나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6% 하락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소폭 하락, 전세가격 하락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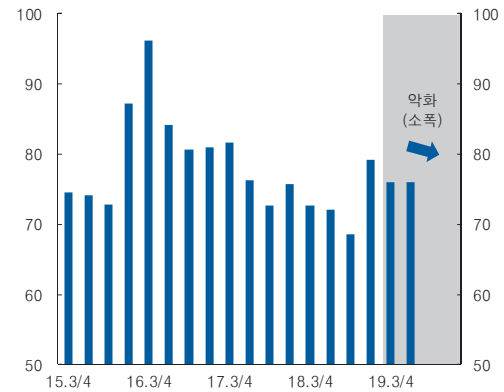
7~8월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기말월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세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아파트가격²⁵⁹⁾은 부동산 규제 영향 등에 따른 주택 매입수요 부진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주: 1) 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기업자금사정: 소폭 악화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은 전기에 비해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음식료품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소폭 악화되었다. 비제조업도 운수업체가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체 등이 부진하여 소폭 악화되었다.

기업자금사정BSI¹⁾

주: 1)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3/4분기중 기업자금사정의 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내의 막대 그래프는 7월 및 8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259) 8월중 제주지역 아파트가격은 전월대비 0.4% 하락하였다.

II

현장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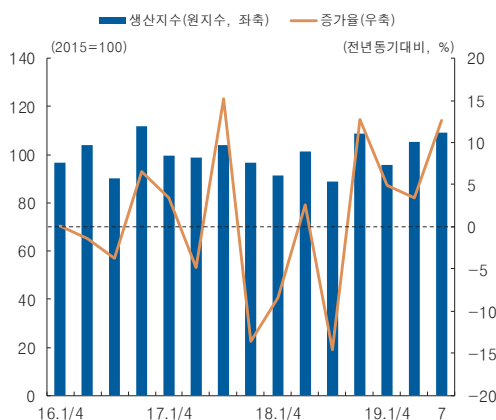
1. 수도권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생산 및 수출 증가	77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생산 및 수출 회복세 지연	79
2. 동남권	부산항 물동량 정체 및 출국자수 감소	81
	울산지역 조선업 상반기 신규수주 부진	83
	경남지역 자동차산업 신차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85
3. 충청권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 높은 상승세 지속	87
	충북지역 화장품업체 매출 호조	89
4. 호남권	전남지역 철강산업 회복 지연	91
	전북지역 탄소산업 육성 본격 추진	93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크게 증가	95
5. 대경권	대구지역 의료산업,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도약중	97
	경주지역 관광업, 시내권 관광지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	99
6. 강원권	강원지역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	101
	강원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세 지속	103
	강원지역 시멘트산업 생산 감소, 수익성은 개선	105
7. 제주권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속	107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생산 및 수출 증가

경기본부 정승기 과장

1~7월중 경기지역 자동차산업(완성차¹⁾ 및 자동차부품) 생산은 내수 판매 부진 및 부품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SUV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한 완성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였다.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생산지수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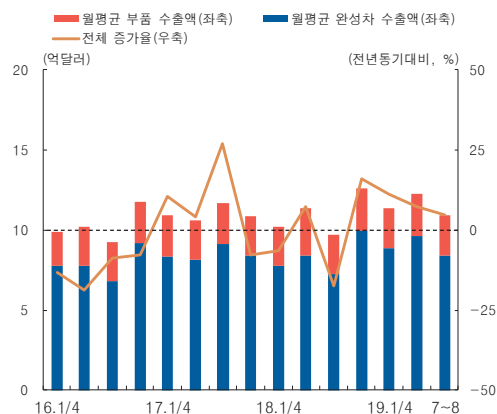


주: 1) 광업·제조업 조사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준
자료: 통계청

1~8월중 경기지역 자동차 수출(92.7억달러)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완성차 수출(72.3억달러)은 SUV와 친환경차의 수출 증가²⁾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하였다. 반면 자동차부품 수출(20.4억달러)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현지공장 생산 감소³⁾의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2.3억달러)이 13.6% 감소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하였다.

경기지역 자동차 수출액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 지역별로는 유럽 및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완성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경기지역 지역별 완성차 수출액

	유럽	북미	중동	중남미	아시아
1~8월중	3,505 (13.7)	1,116 (26.5)	1,049 (15.6)	433 (-15.6)	446 (16.2)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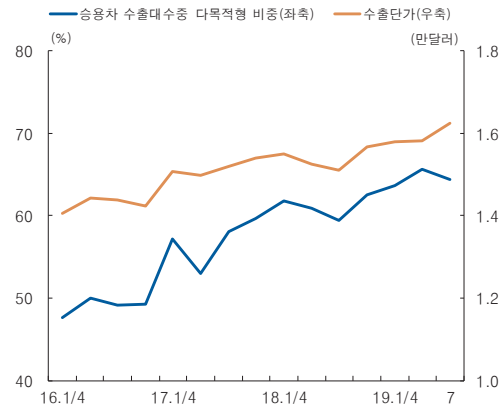
- 1) 경기지역 완성차 제조업체 사업장으로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과 화성공장,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업체별 완성차 생산 비중은 2018년 생산대수 기준으로 기아자동차가 84.2%, 쌍용자동차가 15.8%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 1~7월중 기아자동차 스토닉(소형 SUV)의 전체 수출대수(50,090대)는 전년동기대비 52.4% 증가하였으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모델로만 출시된 니로(소형 SUV)의 수출대수(62,052대)는 전년동기대비 39.4% 증가하였다.
- 3)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국 현지공장 생산량은 2016년 183만대에서 2017년 118만대, 2018년 117만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 1~7월중 생산량은 51만대에 그쳤다.

한편 1~8월중 내수 판매는 기아자동차(35.9만 대)가 주력 SUV모델의 노후화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7.1% 감소⁴⁾하였으나 쌍용자동차(7.0만 대)는 신형 코란도 출시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⁵⁾하였다.

향후 경기지역 자동차 생산은 SUV와 친환경차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SUV와 친환경차의 글로벌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수출에서도 SUV와 친환경차⁶⁾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SUV의 경우 판매단가가 높아 업체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완성차 수출 증가세는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⁷⁾ 등의 영향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내 판매 부진⁸⁾ 지속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우려도 있다.

SUV의 수출 비중 및 수출단가¹⁾



주: 1) 국내 전체 완성차 기준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아자동차 신차 출시 일정¹⁾

	'19.하반기	'20.상반기	'20.하반기
국내	모하비 부분변경 (facelift)	쏘렌토 신형, 쏘렌토 HEV	카니발 신형, 스톤닉 부분변경, 스포티지 신형
북미 지역	니로 부분변경		쏘렌토 신형, 카니발 신형

주: 1) SUV 및 친환경차 기준
자료: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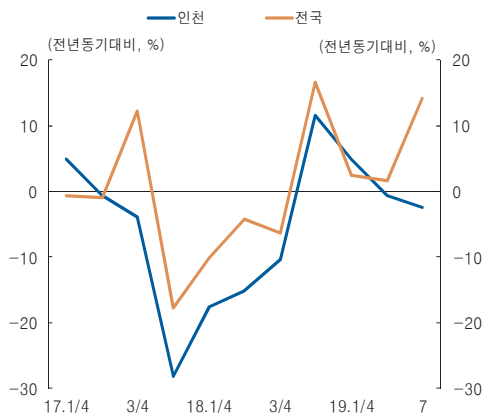
- 1~7월중 기아자동차 전체 내수 판매중 경기지역 공장 생산차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4%이며, 화성 공장에서 생산되는 쏘렌토, 모하비 및 카니발의 내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8.8%, 71.6%, 12.2% 감소하였다.
- 8월 쌍용자동차의 내수 판매대수는 대형 SUV 제품간 국내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하였다.
- 1~7월중 친환경차 수출실적은 승용차 수출대수의 12.1%를 차지하였다.
- 글로벌 경기 부진, 자동차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상반기 주요 해외시장(미국, EU,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에 대한 승용차 판매대수가 전년동기대비 5.6% 감소하였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기아자동차는 6월에 판매 부진으로 가동이 중단된 중국내 1호 공장(연청 1공장)을 합작법인 주주에게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생산 및 수출 회복세 지연

인천본부 김준성 과장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생산은 작년 4/4분기중 말리부(중형세단) 부분 변경 모델 출시⁹⁾ 등으로 증가(11.6%)¹⁰⁾하였으나, 금년 들어 주력 수출차종인 트랙스(소형 SUV)의 수출물량¹¹⁾이 감소하면서 1/4분기중 생산 증가세 둔화(5.0%) 및 2/4분기중 소폭 감소(-0.7%)로 전환되었으며 7월에는 감소폭이 확대(-2.4%)되었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¹⁾ 생산지수 증가율



주: 1) 광업·제조업 조사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준
자료: 통계청

인천지역 완성차 생산 및 판매는 작년 4/4분기중 증가하였다가 금년 상반기중 감소세로 돌

아섰다. 7~8월에는 다시 증가를 나타냈으나 이는 작년 부평공장 설비공사¹²⁾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인천지역 완성차의 생산 및 판매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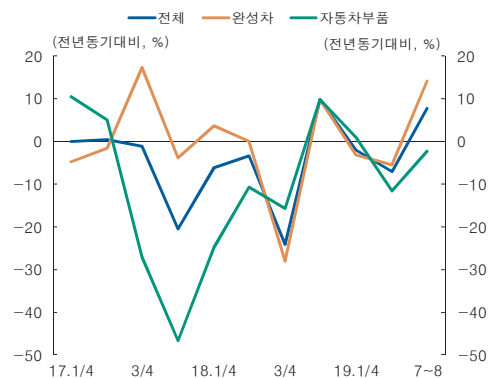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1/4	2/4	3/4	4/4	1/4	2/4	7~8월
생 산	-6.1	-18.8	-30.3	9.3	-7.6	-6.7	6.3
판 매	-8.3	-16.5	-32.9	8.1	-8.2	-6.9	5.3
내 수	-60.7	-59.2	-23.3	-6.9	-3.5	20.0	-25.0
수 출	4.5	-9.3	-34.6	10.5	-8.7	-8.9	11.4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인천지역 자동차 수출은 작년 4/4분기중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에서 금년 상반기중 감소로 전환(1/4분기 -2.1% → 2/4분기 -7.2%)되었으나 7~8월에는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2.4%)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수출이 늘면서(14.0%) 7.8% 증가하였다.

인천지역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율¹⁾



주: 1) MTI 코드 741(완성차), 742(자동차부품)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8년 11월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말리부 출시로 4/4분기중 더 뉴 말리부의 생산 및 수출대수가 크게 증가(전년동기대비 각각 114.2%, 484.8%)하였다.
-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생산은 2018년 3/4분기까지 한국GM 철수설, 캡티바(중형 SUV) 생산 중단 등으로 부진(전년동기대비, 2018.1/4분기 -17.5% → 2/4분기 -15.1% → 3/4분기 -10.3%)하였다. 한국GM은 부평공장서 말리부, 트랙스, 아베오 및 캡티바를 생산해오다 작년 8월부터 캡티바 생산(작년 상반기중 분기당 약 3,400대)을 중단하였다.
- 상반기중 한국GM 부평공장 생산대수중 수출은 약 90%를 차지하는 가운데 트랙스의 수출비중(96.0%)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주된 수출대상지역은 미국(약 60%)과 EU지역(약 20%)이었다.
- 한국GM 부평1공장은 작년 8월 6~17일중 12일간, 부평2공장은 8월 6~10일중 5일간 설비개선공사를 실시하였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완성차의 경우 대미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증가(상반기 10.3% → 7~8월 67.9%)하였으나 대유럽 수출은 감소하였다. 특히 7월부터는 트랙스의 EU지역 수출이 중단¹³⁾되면서 영국, 독일 등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자동차부품 수출은 상반기중 중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5.6% 감소한 데 이어 7~8월중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축소되면서 2.4% 감소하였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국가별 수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2019.1-6월			7-8월		
	(비중 ¹⁾)	전체	완성차	부품	전체	완성차	부품
전체	(100.0)	-4.7	-4.4	-5.6	7.8	14.0	-2.4
미국	(45.2)	11.3	10.3	18.1	58.8	67.9	18.7
우즈베크	(8.2)	17.4	-9.0	34.0	22.1	29.3	18.7
영국	(8.1)	-7.8	-3.6	-48.6	-89.0	-96.8	-28.8
독일	(5.2)	-34.3	-38.5	-5.7	-78.1	-98.6	-12.6
캐나다	(3.5)	18.7	19.4	-15.5	-40.2	-41.6	26.1
중국	(3.2)	-15.1	82.6	-15.2	-27.9	757.9	-28.4
멕시코	(2.3)	-19.9	6.4	-23.8	29.0	28.4	29.0
기타	(24.3)	-21.8	-23.3	-19.5	-13.6	-9.2	-19.0

주: 1) 인천지역 자동차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향후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은 한국GM 노동조합 파업¹⁴⁾에 따른 생산 차질,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 가능성¹⁵⁾,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수출 및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GM 노조의 파업 장기화, 미국 GM 노조의 파업 돌입 여파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¹⁶⁾될 우려가 있다. 다만 한국GM의 노사 갈등이 원만히 타결되고 금년말부터 한국GM의 신형 SUV인 트레일블레이저¹⁷⁾ 생산이 당초 계획대로 시작될 경우 완성차 업황은 소폭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산업의 업황도 완성차 생산대수 감소, 해외 신규 거래처 확보 어려움¹⁸⁾ 등으로 부진을 겪어왔으나 한국GM의 완성차 생산이 점차 증가하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 한국GM과 PSA그룹(푸조·시트로엥·알라이언스)간 계약종료(19.6월)로 7월부터 트랙스의 EU지역 수출이 중단되었다.

14) 한국GM 노동조합은 금년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사측과의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8월 20~23일 30일 부분 파업을 9월 9~11일 전면 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9월 2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다.

15)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25%) 부과 방안을 당초 금년 5월까지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결정시점을 6개월 연장함에 따라 11월중 조치 여부가 가시화될 예정이다.

16) GM 본사의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국GM 노동조합이 파업을 지속하면 국내 생산물량을 해외에 이전할 수 있다(8월)고 밝힌 가운데, 미국 GM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며 9월 16일부터 12년만에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GM 본사가 한국GM의 파업 등을 빌미로 국내 생산량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7) 한국GM은 내년초 신형 준중형 SUV인 트레일블레이저(Trailblazer)를 전세계에 출시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부평1공장(연간 생산능력 약 25만대)에서 수출용 차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종래 부평1공장에서 생산하던 트랙스는 아베오(금년중 생산중단 예정)와 말리부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연간 생산능력 약 15만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18) 인천광역시 주치로 개최된 '인천지역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7.16일)'에 참가한 자동차부품업체(8개사)들은 낮은 납품단가와 품질보증(A/S) 책임에 대한 부담 등을 해외수출 확대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목하였다.

부산항 물동량 정체 및 출국자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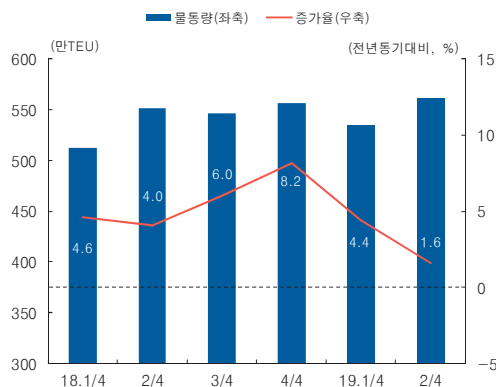
부산본부 정민수 과장, 송효진 조사역

최근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환적물량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물량이 늘어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갔다(전년동기대비, 2/4분기 1.6% → 7월 1.8%).

환적물량¹⁹⁾은 그간의 높은 증가세가 꺾이는 모습이다(2/4분기 2.2% → 7월 -0.6%). 특히 중국 환적물량은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에 따른 교역량 축소 등으로 7월중 감소로 전환하였고, 미국과 일본 물량은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었다.²⁰⁾

한편 수출입물량은 수출 부진²¹⁾에도 수입이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2/4분기 1.0% → 7월 4.5%).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및 증가율



자료: 부산항만공사

19) 1~7월중 국가별 환적물량 비중은 중국 30.0%, 일본 15.8%, 미국 15.1% 등이다.

20) 교역량 축소에 따른 운송수요 둔화로 미 서안 항로 컨테이너 운송운임도 최근 하락세(상해발 미 서안 항로 운임(달러/FEU): 2018년 1,741 → 2019.1~7월 1,605)를 보였다.

21)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4분기 -8.5%, 2/4분기 -8.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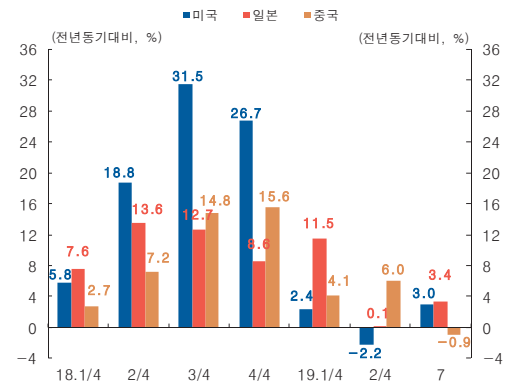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만TEU, %)

	2018		2019		
	3/4	4/4	1/4	2/4	7월
컨테이너	546 (6.0)	556 (8.2)	535 (4.4)	560 (1.6)	188 (1.8)
(환적)	293 (14.6)	297 (14.3)	281 (6.9)	296 (2.2)	98 (-0.6)
(수출입)	253 (-2.7)	259 (2.0)	254 (1.7)	264 (1.0)	90 (4.5)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부산항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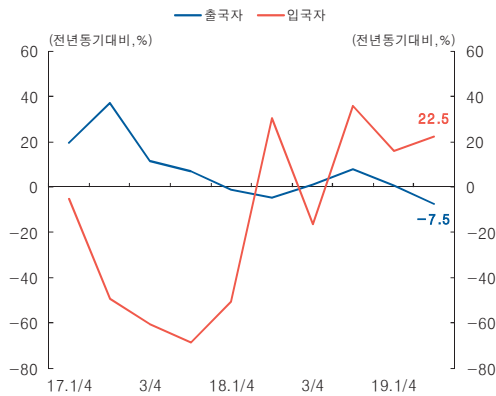
부산항 국가별 물동량(환적)



자료: 부산항만공사

7월중 부산항 출국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3.8% 줄어들어 2/4분기(-7.5%)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부산항 출국자의 행선지는 대부분 일본인데 2/4분기에는 엔화강세 등이, 7월에는 한·일간 갈등 심화가 출국자수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부산항 외국인 입국자수는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2/4분기 22.5% → 7월 27.1%).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인도 사드 갈등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부산항 출국자 및 입국자 증가율



자료: 한국관광공사

부산항 외국인 입국자수

	2018		2019		
	3/4	4/4	1/4	2/4	7월
전 체	104.5 (-16.4)	91.9 (35.9)	73.9 (16.0)	150.4 (22.5)	35.8 (27.1)
(일본인)	36.3 (-14.5)	31.5 (71.6)	18.8 (22.3)	47.0 (15.0)	11.4 (21.9)
(중국인)	4.4 (-26.6)	4.4 (16.7)	3.9 (6.0)	5.9 (16.0)	2.0 (41.4)
(미국인)	5.8 (19.1)	5.1 (24.5)	6.3 (35.4)	10.2 (18.4)	0.8 (-54.3)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관광공사

당분간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기저효과와 마중 무역분쟁 심화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신항의 이용편의성 개선²²⁾ 등으로 전체로는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환적 물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중 미국 물량이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29.0%)를 보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마중 무역감소

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증가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²³⁾ 다만 부두이용 편의성 개선에 따른 일부 선사들의 부산항 취항 확대, 미국의 동남아 수입 증가²⁴⁾에 따른 동남아 노선의 환적물량 확대 가능성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향후 부산항 출국자수는 한일 간 갈등 고조로 상당기간 큰 폭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여행 자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후쿠오카, 대마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탑승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입국자수는 한류 영향,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²⁵⁾ 등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대만인 등이 크루즈선 등을 통한 입국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일본인의 경우 정치 이슈의 영향을 덜 받는 개별관광객을 중심으로 단기간내 큰 폭 감소하지는 않겠으나²⁶⁾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22) 최근 일부 선사의 경우 물량 환적이 같은 부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운영 방식이 개선되었다.

23)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분석결과,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할 경우 부산항 컨테이너 환적물량은 0.5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4) 1~5월중 미국의 중국 수입 컨테이너 물량은 6.5% 감소한 반면 베트남 수입 물량은 30.7% 증가하였다(Alphaliner).

25) 부산시는 관광산업육성(5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9월)와 함께 한류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현지 온-오프라인을 통한 부산 지역축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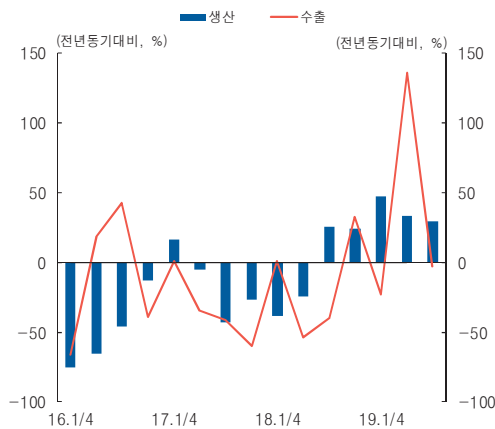
26) 부산방문 일본인들은 개별관광객이 많고 개인선호가 뚜렷하여 정치상황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부산광역시 관광정책과, 부산관광공사).

울산지역 조선업 상반기 신규수주 부진

울산본부 이승민 조사역

상반기중 울산지역 조선업 생산과 수출은 2017~2018년중 수주실적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40%(1/4분기 46.8%, 2/4분기 33.5%) 늘어나 2018년 하반기 이후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3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하였다.²⁷⁾

울산지역 선박 생산¹⁾ 및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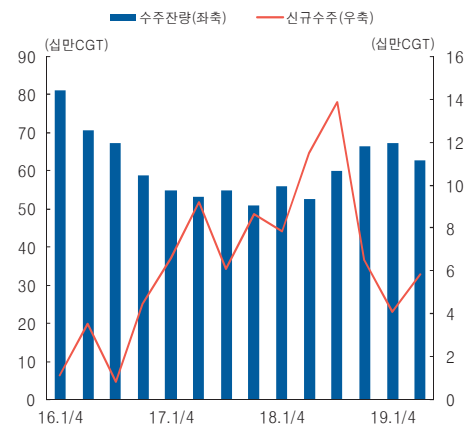
주: 1) 기타운송장비 기준

2) 2019.3/4분기의 경우 생산은 7월중, 수출은 7~8월중 기준임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울산지역 업체가 우리나라 신규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27.5%)도 전년(34%)에 비해 하락하였다.²⁹⁾

이에 따라 상반기말 수주잔량도 168.8억달러(인도기준)로 감소하였다. 이를 물량(CGT) 기준으로 보면 연간 생산능력의 1.44배로 적정수준(1.69배³⁰⁾)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선박 건조기간(통상 1.5~2년 소요)과 2021년 상반기까지의 인도물량이 충분한 점을 고려할 때 2020년부터 신규수주가 회복되면 생산 및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지역 주요업체¹⁾ 신규수주 및 수주잔량



주: 1)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자료: Clarksons

반면 울산지역 주요 조선업체(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의 상반기 신규수주 실적은 물량(CGT)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하였다.²⁸⁾

27) 7월중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9.6% 증가, 7~8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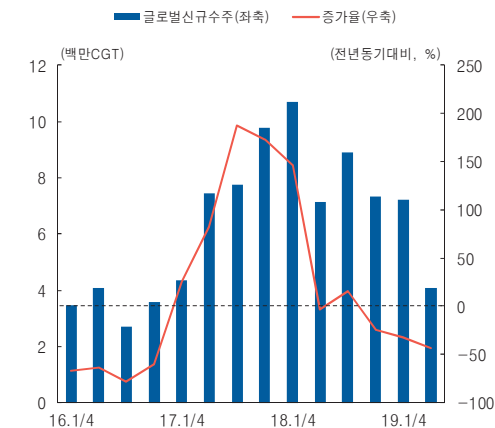
28) 해양부문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는 24.1% 감소하였다. 양사의 2019년 목표치 합계는 115.5억달러로, 상반기중 수주실적은 목표치의 20.5%에 해당한다.

29) 한국조선해양 3사(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의 상반기 점유율은 49.1%로 2018년 52.3%에 비해 3.2%p 감소하였다(사업보고서 기준).

30) 생산능력 추정은 박유상(산은조사월보(제764호), 2019년 7월호)의 방법론을 준용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선종별 가중평균 건조기간을 고려하여 수주잔량의 적정 수준을 생산능력의 1.69배로 제시하였다.

상반기중 울산지역의 선박 신규수주 부진은 글로벌 발주 부진에 크게 기인하였다. 동 기간중 글로벌 선박 발주(11.3백만CGT)는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시행³¹⁾에 대한 관망세³²⁾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하였다.³³⁾

세계 선박 발주량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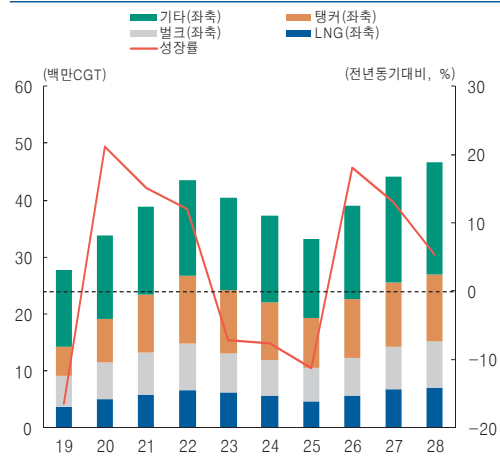
주: 1) LPG 제외 기준
자료: Clarksons, 박유상(2019) 재인용

향후 울산지역 업체의 신규수주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IMO 규제 시행 후 현 대기물량의 발주 전환, 친환경규제로 인한 저유황유 및 대체에너지(LNG)의 교역규모 증대 등에 따라 글로벌 선박 발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³⁴⁾ 특히 향후 전망이

밝은 LNG 관련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³⁵⁾이 높은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교역량 감소 우려, 일부 LNG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³⁶⁾ 등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세계 선박 발주¹⁾ 전망



주: 1) LPG 제외 기준
자료: Clarksons, 박유상(201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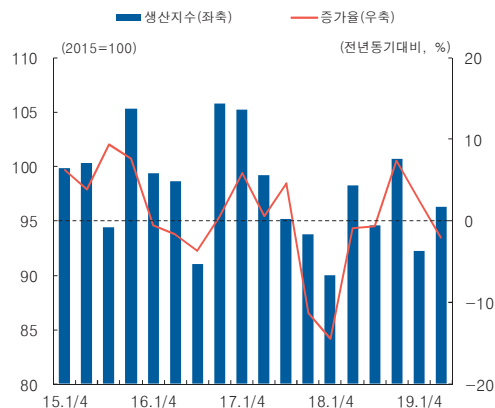
- 31) 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산화물 함유 허용 기준을 강화(3.5% → 0.5%)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비싼 연료를 사용하거나 물리적인 설비투자(배출가스 정화장치 설치 또는 LNG추진선 건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 32) 2018년에는 환경규제에 대응한 선박 발주(또는 정화장치 설치)가 일부 있었으나 2019년 들어서는 선주들이 향후 저유황유가격 추이 등 규제 효과를 확인한 후 선박 투자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33) 울산지역 업체의 신규수주는 글로벌 선박 감소분(-36%)보다 더 크게 감소(-51%)하였는데, 이는 중국선주들의 자국 업체 발주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2018.상반기 1.1백만CGT → 2019.상반기 2.8백만CGT)한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 중국 발주분을 제외하면 글로벌 선박 발주는 49.5% 감소하였다.
- 34) Clarksons는 2019~2028년중 연평균 세계 발주량을 2009~2018년(35.0백만CGT)에 비해 22% 증가한 42.7백만CGT으로 전망하였다(2019.3월 기준, 박유상(2019) 재인용).
- 35) 2018년과 2019년(상반기)중 세계 LNG운반선 수주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9.3%, 70.6%이다(Clarksons, 척수 기준).
- 36) 올해 60~80척의 LNG선 수주가 기대되었던 'QP(Qatar Petroleum)의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사업'의 LNG선 발주계약은 일정이 연기되어 내년 하반기중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남지역 자동차산업 신차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경남본부 임종수 조사역

2017년 4/4분기 이후 부진하였던 경남지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은 2018년 4/4분기부터 소폭 회복되고 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신차 출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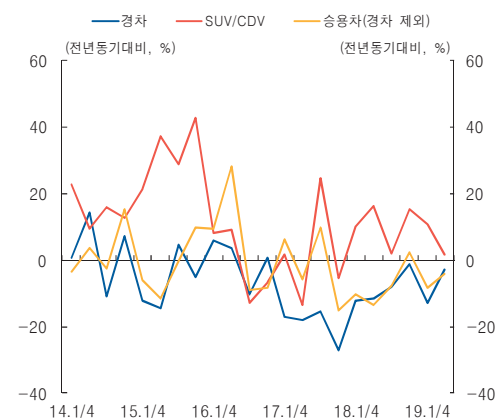
경남지역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경차인 스파크를 주로 생산하는 한국GM 창원 공장은 SUV 차종 선호 현상³⁷⁾과 신차 부재 등으로 내수부진을 겪어왔으나, 수출의 경우 북미,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2018년부터 증가로 전환하였다.

차종별 내수 판매량 증가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GM 창원공장 생산 및 수출 현황¹⁾

	2016	2017	2018	2019.1~7
생산	20.4 (-9.1)	14.9 (-26.8)	14.6 (-2.4)	9.5 (10.1)
수출	12.1 (-19.7)	9.4 (-22.5)	9.9 (5.4)	6.9 (17.3)
가동률	97.1	71.0	69.3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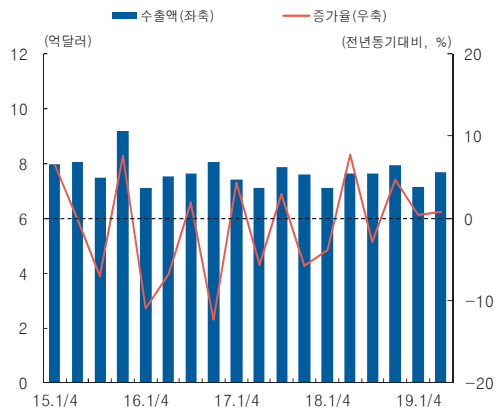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GM

부품업체의 경우도 2018년부터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전년동기대비, 2016년 -7.4% → 2017년 -1.2% → 2018년 1.3% → 2019.1~8월 1.9%). 국가별로는 미국, 멕시코,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난 반면,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였다. 대미 수출 증가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 투자(엔진공장 준공, 5.15일) 및 미국 3사(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전기차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37) 국내 SUV 판매량은 꾸준한 증가세(2018.상반기 13.3% → 하반기 8.6% → 2019.상반기 5.8%)를 보이는 반면, 경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18.상반기 -12.0% → 하반기 -4.4% → 2019.상반기 -7.8%).

경남지역 자동차부품¹⁾ 수출



주: 1) MPI 742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경남지역 자동차부품¹⁾ 수출 국가 순위

	2016	2017	2018	2019.1~8
1	중국(9.5)	중국(7.1)	미국(7.3)	미국(4.8)
2	미국(6.0)	미국(6.4)	중국(6.6)	멕시코(2.9)
3	멕시코(3.3)	멕시코(4.3)	멕시코(3.8)	중국(2.5)
4	일본(1.9)	우즈베크(1.9)	우즈베크(2.1)	우즈베크(1.6)
5	인도(1.4)	일본(1.7)	일본(1.6)	독일(1.5)
6	독일(1.0)	인도(1.2)	독일(1.2)	일본(1.0)

주: 1) MPI 742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편 한국GM 창원공장은 주력 차종인 경차를 2022년말부터 신형 CUV³⁸⁾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생산라인 증설에 향후 4년간 9,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창원공장 부지 내에 글로벌 신차 생산을 위한 3,500억원 규모(시간당 60여대 처리)의 도장공장을 착공(5.27일)한 데 이어 향후 생산라인 변경 및 증설에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GM 창원공장의 철수 가능성이 해소되고 협력업체의 투자 및 사업계획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고수익 차종으로의 전환은 지역 자동차 산업의 영업이익에도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³⁹⁾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 효과⁴⁰⁾, 세금감면정책⁴¹⁾ 등에 힘입어 당분간 부품수요 증가세가 예상된다. 다만 중국 업체의 자동차부품 국산화 노력, 완성차의 중국시장 판매 부진(전년동기대비, 1/4분기 -11.3%, 2/4분기중 -13.5%) 등으로 대중국 수출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GM 창원공장



자료: 한국GM

38)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최근 SUV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신차로 출시할 CUV 모델(세단과 SUV의 중간형태의 차종)을 개발중이다.

39) 예정된 투자가 완료되면 창원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25만대까지 늘어나게 되며, 경남지역에는 1조원 내외의 생산유발 및 8천명 내외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창원시 추산).

40) 소형 SUV 베뉴, 셀토스가 지난 7월 출시되었고, 고급 SUV GV80이 하반기중 출시 예정이다.

4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말까지 추가 연장되었다.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 높은 상승세 지속

대전충남본부 이종찬 과장, 임미라 조사역

금년 들어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1/4분기 및 2/4분기 중 각각 0.43%, 0.59% 상승한 데 이어 7~8월중 1.13%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1~8월중 2.16%)을 기록하였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및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유성구와 서구가 1~8월중 각각 3.78% 및 2.68% 올라 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다.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9월) 등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하락세⁴²⁾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주요 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전기말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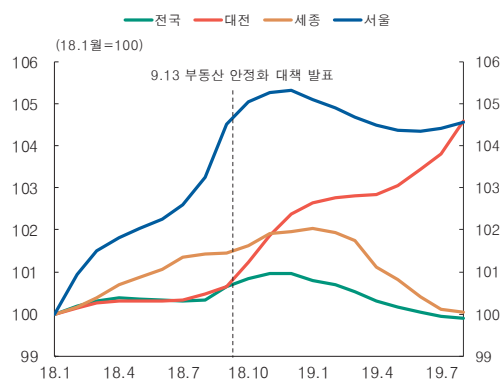
	2018				2019			
	1/4	2/4	3/4	4/4	1/4	2/4	7~8월	1~8월
전국	0.46	0.01	0.31	0.31	-0.42	-0.49	-0.14	-1.05
수도권	1.12	0.37	1.05	0.74	-0.45	-0.50	0.03	-0.93
서울	2.37	0.76	2.21	0.75	-0.61	-0.32	0.21	-0.72
지방	-0.12	-0.32	-0.35	-0.07	-0.40	-0.49	-0.29	-1.17
5대 광역시	0.10	-0.07	-0.04	0.39	-0.17	-0.28	-0.04	-0.50
대전	0.40	0.04	0.36	1.71	0.43	0.59	1.13	2.16
(유성구)	0.76	-0.29	0.58	2.14	0.53	1.35	1.86	3.78
(서구)	0.57	0.20	0.33	3.68	0.81	0.34	1.52	2.68

주: 1)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대전지역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

효과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일부 수도권 및 인근 세종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및 LTV 등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를 거의 적용받지 않는⁴³⁾ 대전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일부 유입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지역 주택매매가격지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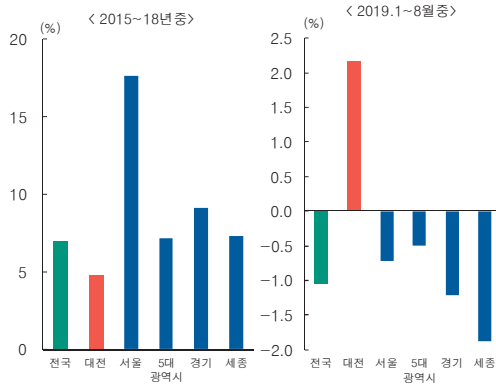


주: 1)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또한 대전지역 주택가격이 그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상승률을 유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으로 보인다. 2015~2018년중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전국이 7.0%, 서울이 17.6%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데 비해 대전은 4.7% 상승에 그쳤다. 이는 충청권 신규 주택공급이 대전과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전의 주택 수요가 상당부분 세종시로 이동한⁴⁴⁾ 데 기인한다.

- 42) 다만 7월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하락세가 멈추면서 7~8월중 서울은 0.21%, 수도권은 0.03% 소폭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 43) 7월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을 보인 대전 유성구와 서구를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을 제한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 44) 대전광역시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주택구매 주 연령층(35~54세)을 중심으로 세종시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2015년말 152만명에서 2019년 7월말 148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주요 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¹⁾ 비교



주: 1)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기준
자료: 한국감정원

한편 최근 대전지역에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 및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도안신도시⁴⁵⁾ 등 신규 아파트 분양이 호조⁴⁶⁾를 보이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강화된 것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8월 현재 추진중인 대전지역 도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 12개, 재개발 56개, 재건축 30개 구역에 달하며, 이중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의 정비사업은 26개 구역 27,076 세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1~7월중 대전지역 주택건설인가가 실적도 12,864호로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하였다.

대전지역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의 정비사업 현황¹⁾²⁾

(구역, 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요 구역
사업시행인가	1 (3,463)	6 (6,791)	3 (1,553)	천동3, 은행1, 도마·변동1
관리처분인가	-	3 (3,736)	3 (5,167)	용문동1·2·3, 탄방동1,도마·변동8
공사중	5 ³⁾ (-)	1 (1,588)	4 (4,778)	용운주공아파트, 신흥3, 법동1
계	6 (3,463)	10 (12,115)	10 (11,498)	

주: 1) 2019.8월 기준 2) () 내는 세대수

3) 현지개발 사업

자료: 대전광역시

최근 대전지역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세는 저평가 지속에 따른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시각과 세금·대출 규제를 피해 특정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투기적 수요가 유입된 데 기인한다는 평가가 혼재하고 있다. 향후 대전지역 주택 시장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⁴⁷⁾, 대출금리 하락세⁴⁸⁾, 지역경기 회복 여부 등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기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⁴⁹⁾, 도시정비사업 진행 경과 등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5) 중부권의 안정적인 택지공급 등을 위해 약 25,000세대(6.9만명) 규모로 건설중인 2기 신도시이며 생활환경과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46) 3월 실시된 대전 도안신도시내 아이파크시티 1·2단지 일반 공급은 평균 75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최고경쟁률 216:1)을 나타내었다.

47) 현재 대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의 정량적 지정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48) 7월 이후 마중 무역분쟁 심화, 미 연준의 금리인하 등으로 주요 시장금리가 큰 폭 하락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연동되는 COFIX(신규취급액 기준) 및 금융채(AAA, 1년) 금리가 7~8월중 각각 0.26%p 및 0.31%p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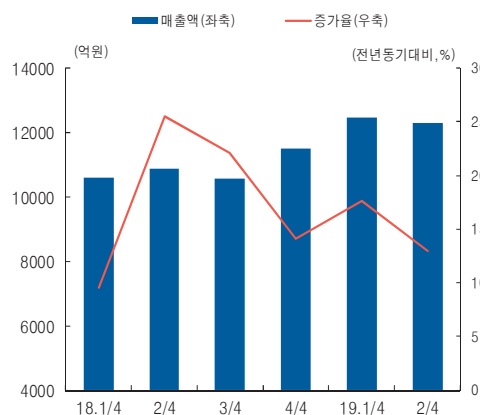
49) 분양 당시 7.9~263.1 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가 8월 20일 전매제한이 해제된 데 이어 대전아파트가 10월 4일,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가 12월 27일, 신흥SK뷰가 내년 2월 8일에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충북지역 화장품업체 매출 호조

충북본부 심연정 조사역

2/4분기 충북지역 화장품업체 매출은 중국시장내 경쟁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고급 화장품에 대한 중국 수요가 확대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전년동기대비, 1/4분기 17.7% → 2/4분기 13.0%).

충북지역 주요 화장품 생산업체¹⁾ 매출액²⁾



주: 1) LG생활건강, 잇츠한불, 코스메카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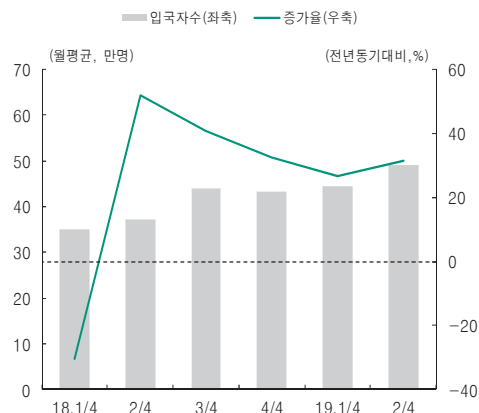
2) 충북지역 매출액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일관된 비교를 위해 2018.3/4분기부터 매출액에 반영되기 시작한 코스메카코리아의 미국 법인(잉글우드랩) 매출액을 제외

자료: LG생활건강, 잇츠한불, 코스메카코리아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높은 고급 화장품에 대한 중국 수요가 확대⁵⁰⁾되는 가운데 방한 중국인수도 2/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32% 늘어나면

서 면세점을 통한 고급 화장품 판매가 확대⁵¹⁾되는 등 주요 화장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꾸준한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⁵²⁾

중국인 방문객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반면 중저가 화장품 매출은 최근 중국 업체들의 품질 경쟁력 강화로 중국시장내 중저가 브랜드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중저가 브랜드 업체들이 중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⁵³⁾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향후 충북지역 화장품업체 매출은 고급 화장품에 대한 중국 수요 증대, 도내 주요 업체의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Euromonitor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의 화장품시장⁵⁴⁾이며 고급 화장품시장 증가율(10% 이상)이 일반 화장품시장 증가율(5~6%)을 상회할 것으

50) 중국 화장품시장내 고급 화장품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15년 22% → '16년 23% → '17년 26% → '18년 28% → '19년⁵⁾ 30%, 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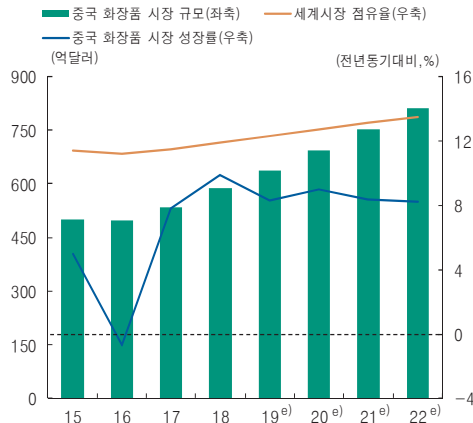
51) 도내 화장품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LG생활건강의 경우, 고급 화장품 라인인 '후', '숨' 등을 중심으로 2/4분기에 면세점 및 해외매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5%, 30% 증가하였다.

52) LG생활건강의 2/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였다.

53) LG생활건강은 2018년 더페이스샵, 네이처컬렉션 등의 중국내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철수하였으며, 현재 토니모리, 클리오 등 다른 국내 중저가브랜드들도 중국시장에서 매장을 철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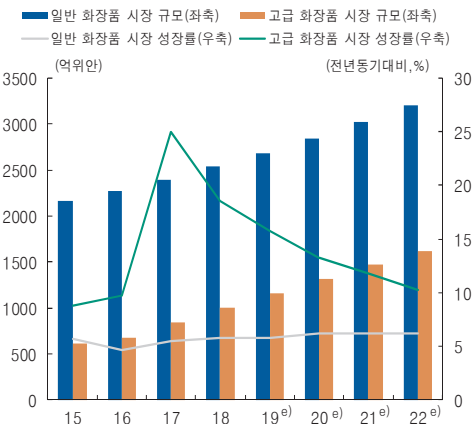
로 예상된다. 또한 LG생활건강이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청주테크노폴리스에 상당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화장품 공장을 건설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 화장품시장 규모 전망



자료: Euromonitor

중국내 일반 및 고급 화장품시장 규모 전망



자료: Euromonitor

다만 글로벌 기업 및 중국 현지 업체들의 경쟁 심화가 지속될 경우 향후 매출 확대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⁵⁴⁾ 등으로 국내 제품의 중국 현지 온라인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충북지역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여타 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LG생활건강 청주테크노폴리스 공장 조감도



자료: 청주테크노폴리스

54) 중국 화장품시장 규모는 2018년 588억달러였으며, 2022년에는 81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Euro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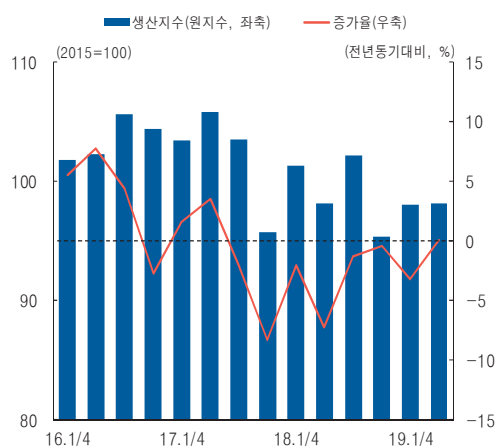
55) 파이공(보따리상) 사업자 등록 의무화, 해외구매 단속 등 전자상거래 활동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남지역 철강산업 회복 지연

광주전남본부 김은우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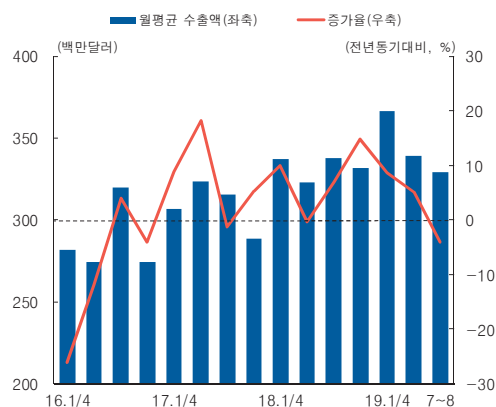
전남지역 철강산업은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2/4분기중 철강업 생산지수는 98.1로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7~8월중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수출대상국별로는 베트남(18.0%), 인도(13.6%) 등이 증가했으나 중국(-16.2%), 멕시코(-11.1%) 등은 감소하였다.

전남지역 철강산업 생산 추이¹⁾



주: 1) 표준산업분류상 1차 금속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전남지역 철강제품 수출 추이¹⁾



주: 1) MT 2단위 철강제품(61)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8월중 전남지역 철강수출의 주요 수출대상국별 현황¹⁾

일본	중국	인도	멕시코	태국	베트남
수출액 202(10.6)	126(-16.2)	85(13.6)	65(-11.1)	45(-6.8)	43(18.0)

주: 1) MT 2단위 철강제품(61) 기준,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는 글로벌 수요둔화 및 중국의 조강 생산량⁵⁶⁾ 증가 등 대외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지역 업체의 시설정비⁵⁷⁾가 진행되었던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편 1월 브라질 발레(VALE)사의 광산담 붕괴 및 3월 호주의 사이클론 피해 등으로 원재료인 철광석가격이 상반기중 크게 상승⁵⁸⁾한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회복 지연으로 판매가격 인상이 제약되면서 지역 주요업체의 실적도 악화⁵⁹⁾되는 모습을 보였다.

56) 주요 국가별 조강 생산량(백만톤, %)

	전세계	중국	인도	일본	미국	한국	러시아
2019년 상반기	925.1 (4.9)	492.2 (9.9)	57.0 (5.0)	51.1 (-3.6)	44.3 (5.4)	36.4 (1.1)	35.8 (-0.7)
2019년 6월	159.0 (4.6)	87.5 (10.0)	9.3 (4.0)	8.8 (0.4)	7.3 (3.1)	6.0 (-2.6)	5.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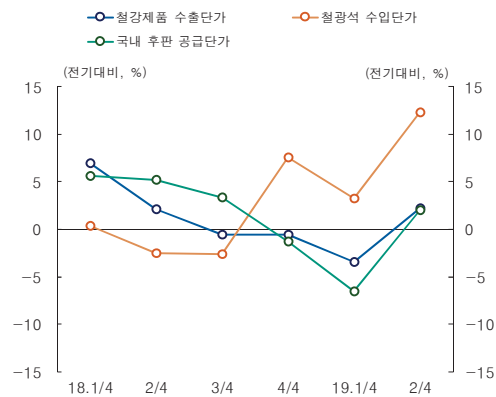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철강협회

57)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냉연도금재 공장(5.8~19일) 및 열연공장(6.22~7.1일), 후판공장(8.25~9.6일)의 시설정비를 실시하였다.

58) 1월중 철광석가격은 톤당 70달러에서 7월중 120달러로 70%가량 상승하였다.

59) 2/4분기중 포스코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0%, 11.9%, 6.0% 감소하였다.

전남지역 철강제품 및 원재료 가격 상승률¹⁾



주: 1) MPI 2단위 철강제품(61) 기준
 2) 후판 일반재(SS400, 선박건조 등에 사용) 기준
 3) HS 4단위 철광석(2601)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스틸앤스틸

당분간 전남지역 철강산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 글로벌 철강수요의 둔화세⁶⁰⁾가 이어지면서 회복 지연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철광석가격이 하락⁶¹⁾으로 반전된 데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에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¹⁾

	2019		2020	
	(백만달러)	(%)	(백만달러)	(%)
전세계	1,735.0	(1.3)	1,751.6	(1.0)
미국	101.4	(1.3)	101.7	(0.3)
EU	170.2	(0.3)	172.2	(1.2)
한국	53.4	(-0.4)	54.1	(1.3)
중국	843.3	(1.0)	834.9	(-1.0)
일본	64.7	(-1.0)	64.2	(-0.8)
인도	102.8	(7.1)	110.2	(7.2)
ASEAN	78.8	(5.6)	83.1	(5.5)

주: 1) 2019년 4월 전망치,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세계철강협회

전남 광양제철소



자료: 포스코 공식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지역 주요 철강업체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예상되는 인도 및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⁶²⁾ 및 2차전지 소재⁶³⁾ 등 신사업분야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60) 4월 세계철강협회는 마-중 무역분쟁, 브렉시트(Brexit) 등과 관련된 리스크 확대에 향후 철강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61) 철광석가격은 글로벌 공급 안정화 등으로 7월중 톤당 124달러에서 8월중 85달러로 하락하였으며, 국내업체의 철광석 수입에서 제철 제조까지의 시차가 통상 1분기 정도임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는 4/4분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2) 고기술 프리미엄 제품으로 기가스틸, 에너지용 고망간강, 내진용 강건재, 무방향성 전기강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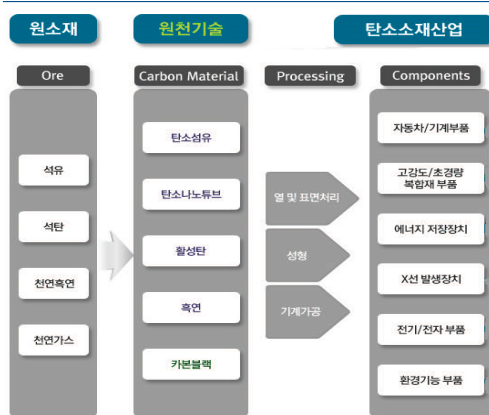
63) 포스코는 2020년까지 총 5,700억원을 투입하여 울산지방산업단지(전남 순천 소재)에 연간 4만톤 생산규모의 2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건설중이다.

전북지역 탄소산업 육성 본격 추진

전북본부 조현명 조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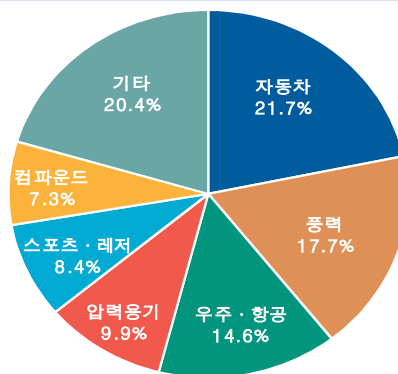
최근 전북지역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탄소산업은 탄소소재를 기반으로 한 산업 분야로 경량화 등이 요구되는 미래산업의 핵심 소재이다. 특히 탄소섬유는 원사 안에 탄소가 92% 이상 함유되어 기존 소재에 비해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하다는 장점⁶⁴⁾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로켓 등의 기초 소재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수소, 풍력 등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수소저장용기와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핵심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탄소산업 개념 및 분류



자료: 전라북도청

2020년 탄소섬유 응용산업 분야 전망



자료: JEC(시장조사기관)

전라북도도는 탄소소재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2006년 탄소산업을 전북지역의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008년 전주시출연기관인 기계산업리서치센터와 (주)효성첨단소재(이하 효성)는 공동으로 탄소섬유 기술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중성능급 탄소섬유의 독자 개발에 성공하였다.

전북지역 탄소산업 육성정책 추진 경과

시기	세부 내용
2006년	탄소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
2007년	기계산업리서치센터(현 탄소융합기술원), 탄소섬유 생산설비를 국내 최초로 구축
2008년	기계산업리서치센터(현 탄소융합기술원)·(주)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공동기술개발협약' 체결 및 범용·중성능 탄소섬유 개발 추진
2009년	범용급(T-300) 탄소섬유 개발
2010년	중성능급(T-500-700) 탄소섬유 개발
2011년	전주시·(주)효성첨단소재, 전주 탄소섬유공장 유치에 관한 투자협약(MOU) 체결
2013년	(주)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준공 및 중성능(T-700급) 탄소섬유 생산
2019년	전라북도·전주시·(주)효성첨단소재, 전주 탄소섬유공장 증설에 관한 투자협약(MOU) 체결 전라북도, '탄소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

자료: 전라북도청

64) 탄소섬유는 무게가 철의 약 1/4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철보다 10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에는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에 효성의 탄소섬유공장이 설립되었다. 동 공장은 연간 2천톤 규모의 중성능급(T-700) 탄소섬유를 생산해 오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2,500톤 규모의 라인을 증설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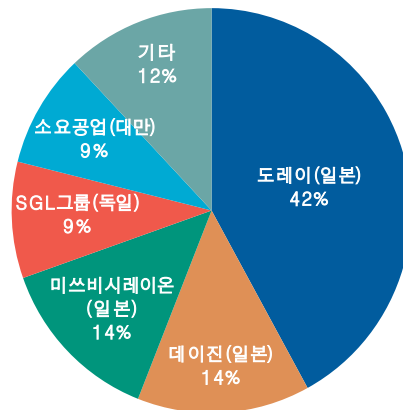
(주)효성첨단소재 기업 개요 및 투자 현황

분류	내용
고용인원	1,038명 (전주공장: 120명)
기업 개요	생산제품 PET타이어코드, 화학섬유 등 (전주공장: T-700급 탄소섬유 탄섬)
	자산규모 2019년 6월말 기준 2조 6,322억원
	매출 규모 2019년 2분기 기준 매출액 7,922억원
2008~2011년	탄소섬유 개발사업 추진 - 1,000억원 투자
탄소 섬유	2012~2013년 1단계 탄소섬유 생산설비 구축 - 1,400억원 투자
투자 현황	2013년~현재 생산설비 보강 추진 - 300억원 투자
	2019년~현재 2단계 탄소섬유 생산설비 착공 - 500억원 투자

자료: 전라북도청, (주)효성첨단소재 공시자료

그러나 탄소섬유 시장은 일본업체가 글로벌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약 2%에 불과한 상황이다.⁶⁵⁾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정부의 수소차 도입 정책⁶⁶⁾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수소차용 탱크를 제조할 수 있는 고강도급 이상⁶⁷⁾의 탄소섬유 개발도 과제로 남아 있다.

탄소섬유 글로벌 시장 점유율(2016년)



자료: 니케이

이에 대응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탄소산업 확대 및 국산화 추진을 위해 8월 20일 효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21일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효성은 전주공장에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2천톤 규모인 생산능력을 2만 4천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고성능 탄소섬유의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탄소섬유가 투입되는 중간재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향후 약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소재부품 생산기업의 집적을 위한 탄소산업 클러스터⁶⁸⁾ 조성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5) 국내 수소탱크 제작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는 도레이첨단소재가 전량 공급하고 있다. 동 업체는 일본 (주)도레이의 한국법인으로 구미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 탄소섬유 생산능력은 연간 4,700톤 규모이다.

66) 정부는 수소차 한대당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금년에 5,500여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2022년까지 65,000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67) 전기·전자회로, 항공기에는 T-1000급(철의 30배 강도)의 탄소섬유가, 우주항공용에는 T-2000급의 탄소섬유가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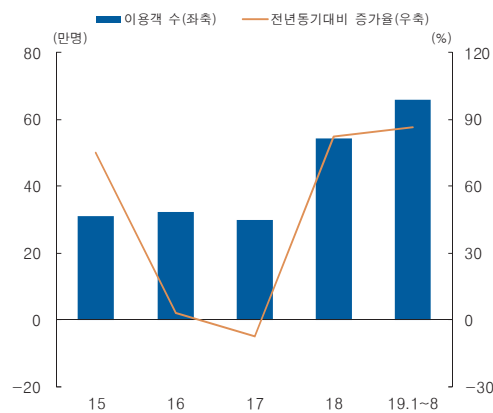
68)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산단(전주친환경첨단복합단지, 원주테크노밸리산단) 및 연구기관(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 KIST 전북분원(완주))을 연결해 탄소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크게 증가

목포본부 이준범 과장

1~8월중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수는 65.9만명으로 전년동기(35.3만명)대비 86.6% 증가⁶⁹⁾하였다. 노선별로는 국내선(무안~제주 노선)⁷⁰⁾ 이용객이 15.5만명으로 전년동기(15.1만명)대비 2.6% 증가에 그쳤으나, 국제선 이용객은 50.4만명으로 전년동기(20.2만명)대비 149.5% 증가하였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수



자료: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국내선·국제선 이용객수(1~8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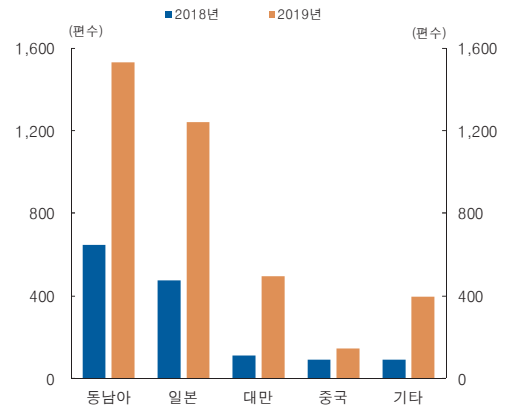
	2017	2018(A)	2019(B)	B-A	(만명, %)
국내선	8.3	15.1	15.5	0.4	(2.6)
국제선	10.5	20.2	50.4	30.2	(149.5)
합계	18.8	35.3	65.9	30.6	(86.6)

주: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일본·대만 등 기존 노선을 증편한 데다 베트남·필리핀·태국 등 동남아로 노선을 다변화한 데 주로 기인⁷¹⁾하였다.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노선별 운항 횟수(1~8월중)



자료: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노선별 이용객수(1~8월중)

	(천명)			
	2017	2018(A)	2019(B)	B-A
동남아	28	101	226	125
일본	36	61	147	86
대만	9	17	69	52
중국	29	11	17	6
기타	3	11	45	34
합계	105	202	504	302

자료: 한국공항공사

향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수는 국제선 신규 노선의 확대, 광주공항과의 국내선 통합, 호남고속철도와의 연결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69) 1~8월중 국내 지방공항(인천, 김포공항 제외) 이용객은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였다.

70) 무안국제공항의 국내선은 2013년 11월 이후 무안~제주 노선만 운항중이다.

71) 1~8월중 국제선 운항 노선은 12개국 24개 노선(부정기 노선 포함)으로 전년동기(11개국 21개 노선)보다 3개 노선이 증편되었고 정기노선도 크게 늘면서 국제선 운항 횟수는 3,809회로 전년동기(1,413회)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국제선의 경우 8월중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중국 등의 노선⁷²⁾이 추가되어 운항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괌, 중국 장가계·산야 등 신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일본 여행 자체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일부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감축·중단⁷³⁾함에 따라 동 노선 이용객은 당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2021년 광주공항 국내선⁷⁴⁾이 통합·이전⁷⁵⁾되고 2025년 호남고속철도와 연결이 완료될 경우 무안국제공항이 충청권 이남지역의 항공수요 유입으로 인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도



자료: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 현황

구 분	내 용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연혁	• 1990년 공항개발 타당성 조사 • 1994년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 고시 • 1998년 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 고시 • 1999년 건설공사 착공 •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주요 시설 ¹⁾	• 부지: 2,682,000㎡ • 활주로: 2,800×45m(14만회/년) • 국내선: 20,000㎡(416만명/년) • 국제선: 9,106㎡(94만명/년)
접근성 ²⁾	• 무안~광주: 50km(40분) • 무안~목포: 30km(30분)
주: 1) () 내는 수용능력 2) () 내는 소요시간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72) 베트남(다낭·나트랑·달랴), 필리핀(세부·칼리보),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몽골(울란바토르), 중국(연길) 노선이 추가되었다.

73) 제주항공은 8월 26일부터 무안~오사카 노선을 주 7회에서 주 4회로, 9월 16일부터 무안~도쿄 노선을 주 7회에서 주 4회로 감축 운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티웨이 항공은 8월 5일부터 주 3회 운항하였던 무안~오이타 노선을 중단하였다.

74) 광주공항은 현재 국내선 2개 노선(광주~제주, 광주~김포)을 운행중이며, 2018년중 광주공항 이용객은 약 200만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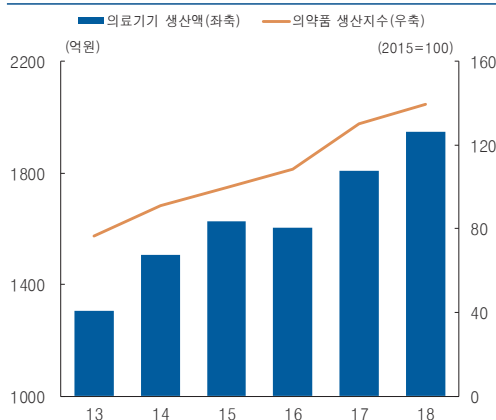
75) 2018년 8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은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다.

대구지역 의료산업,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도약중

대구경북본부 김민정 과장

대구지역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이 2017년 (각각 12.6%, 19.8%)에 이어 2018년중에도 각각 7.8%, 7.2%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구시 등을 중심으로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도 이어지고 있어, 대구지역 의료산업이 최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 받는 모습이다.

대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생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대구지역 의료산업의 성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연구개발(R&D)지구 등 의료클러스터 구성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국가 사업으로, 2009년 대구가 입지로 선정⁷⁶⁾되어 2013년 조성이 완료되었다.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입주 업

체에 대한 시설·장비 제공 및 세제 지원⁷⁷⁾ 등을 통해 지역 의료 기업의 유치 및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 또한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연구개발지구로 지정(2011년)되어, 두 지역에 2019년 5월 기준 112개 기업(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61개, 의료연구개발특구 51개)이 입주를 완료했으며, 단지내 매출 및 고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현황¹⁾

사업 내용	세부 현황
총사업비	4.7조원 (국비 1.1조원, 지방비 0.9조원, 민자 2.6조원)
사업기간	2009~2038년 (조성 2009~2013년)
주력분야	IT기반 의료기기, 합성신약 개발
주요시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입주현황 ¹⁾	61개 업체(인근의 51개 의료연구개발특구 업체 포함시 112개 업체)

주: 1) 2019년 5월 기준

자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의료연구개발(R&D) 특구 매출 및 고용 현황¹⁾²⁾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2,224 (23.9)	2,540 (14.2)	2,882 (13.5)	3,272 (13.5)
첨복단지	169	155	175	315
의료연구 개발특구	2,055	2,385	2,707	2,957
고용	1,041 (-)	1,288 (23.7)	1,799 (39.7)	1,987 (10.5)
첨복단지	78	95	318	319
의료연구 개발특구	963	1,193	1,481	1,668

주: 1) 매출액은 단지내 본사가 있는 업체(2018년 기준 64개 업체), 고용은 전체 입주 업체 기준(2018년 기준 112개 업체)

2) () 내는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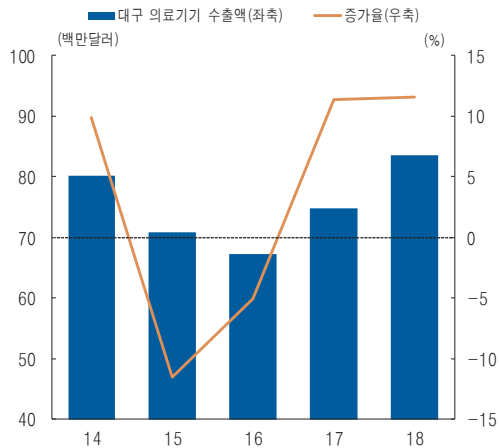
자료: 대구시

76) 대구지역과 충북 오송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었는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기기 전반 및 바이오 신약 개발,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는 IT기반 첨단의료기기와 합성신약 개발에 특화하고 있다.

77)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등의 시설과 약 2,700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입주 업체가 개발 단계별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의 적극적인 판로 개척⁷⁸⁾, 대구시의 정책지원⁷⁹⁾ 등에 힘입어 2017년 이후 대구지역 의료기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구 의료기기 수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향후에도 대구지역 의료산업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⁸⁰⁾, 신규 의료기기 및 제약 업체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등으로 의료클러스터 조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대구지역 의료산업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료산업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⁸¹⁾ 이는 대구지역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가 영세⁸²⁾한 경우가 많아 자체 연구개발 및 지역내 우수 인력의 흡수가 어려운 데다,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국내 의료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의 접근성 차이로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신규 기업 및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데 주로 기인한다. 이에 산·학·연·병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연구개발, 창업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향후 대구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필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의료연구개발특구 조감도



자료: 대구시

78) 대구지역 주요 의료기기업체들은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19.2월), 독일켈른치과기자재전시회(19.3월) 등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여 291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79) 대구시는 첨단의료산업을 미래형 자동차, 로봇산업 등과 함께 5대 미래형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원 20억원)에 이어 2015년부터 의료기기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 2017년부터 치과 의료기기 토털마케팅 지원,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80) 대구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특구중 하나로 선정(중소벤처기업부, 7.23일)되었으며, 향후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 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등 2019~2022년간 총 732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81) 대구지역 의료기기 생산액의 전국내 비중은 2014년 3.3%, 2016년 2.9%, 2017년 3.1% 등으로 3% 내외 수준에서 횡보중이며, 의약품은 2014년 0.4%, 2016년 0.2%, 2017년 0.5%로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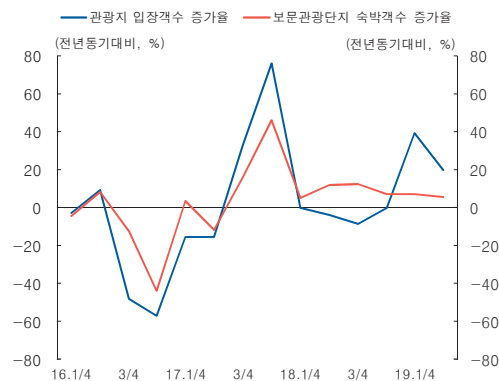
82) 2017년 기준 대구지역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수 비중은 5.3%, 2.2%인 데 반해, 종사자수(각각 4.1%, 0.9%) 및 생산액 비중(각각 3.1%, 0.5%)은 이를 큰 폭 하회하여 업체당 고용 및 생산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주지역 관광업, 시내권 관광지 중심으로 회복세 지속

포항본부 유태경 조사역

연이은 직·간접적인 재해⁸³⁾로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경주지역 관광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경주지역 주요 관광지 입장객수⁸⁴⁾는 1/4분기중 큰 폭 늘어난 데 이어 2/4분기에도 증가세(전년동기대비, 1/4분기 39.4% → 2/4분기 19.8%)를 보였다. 지역 내 주요 호텔·리조트가 밀집한 보문관광단지의 숙박객수 또한 2018년 이후 견조한 회복세(2018년 9.4% → 2019.1/4분기 7.3% → 2/4분기 5.7%)를 유지하고 있다.

경주 관광지 입장객수 및 보문관광단지 숙박객수 증가율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광권역⁸⁵⁾별로 보면 경주시내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경주시내권의 동궁과 월지, 대릉원 입장객수는 1~6월중 각각 전년동기대비

43.1%, 27.4% 증가하며 2016년 경주지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특히 동궁과 월지 입장객수는 1~6월중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며 올해 역대 최다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불국사권에 위치한 불국사와 석굴암은 1~6월중 각각 26.3%, 22.1% 증가하였으나 지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주지역 주요 관광지 입장객수¹⁾

	경주지진 이전 ²⁾	2017	2018	1~6월	2019. 1~6월
동궁과 월지	153.9	135.0 (10.3)	141.6 (4.9)	56.9 (-23.6)	81.5 (43.1)
대릉원 ³⁾	-	-	119.1 (-)	57.6 (-)	73.4 (27.4)
불국사	161.0	140.5 (10.4)	131.2 (-6.6)	58.6 (-22.4)	74.0 (26.3)
석굴암	92.8	65.5 (-1.7)	61.2 (-6.6)	27.6 (-31.4)	33.7 (22.1)

주: 1)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13~2015년 평균

3) 2018년부터 집계 시작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경주시내권 관광지가 불국사권 등 다른 권역 관광지보다 빠르게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황리단길의 인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 황남동 대릉원 인근에 위치한 황리단길은 한옥, 식당, 카페, 사진관 등 전통과 새로움이 조화된 점포들이 TV방송,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알려지며 젊은층 사이에 새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⁸⁶⁾ 황리단길을 여러 번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 경주의 재방문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83)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 및 세월호 사태,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84) 동궁과 월지, 양동마을, 동궁원, 경주월드, 기림사, 분황사, 불국사, 석굴암, 신라역사과학관, 통일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경주 토함산, 남산 등 13개 관광지 입장객수 합계 기준이다(2015년부터 집계).

85) 경주의 관광권역은 경주시내권, 불국사권, 보문관광단지권, 남산권, 서악권, 북부문화권, 동해권 등 7개로 나뉜다.

86)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한 검색어 트렌드 분석 결과, 2018년 2월부터 황리단길의 검색빈도가 동궁과 월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황리단길 전경



자료: 한국일보

경주지역 지자체와 관광업계는 수년 만의 관광객 회복세를 지속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주시는 가족 단위 개별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늘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황리단길 공용주차장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TV 예능 프로그램⁸⁷⁾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경주의 특색이 담긴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개장 40주년을 맞이한 보문관광단지 주요 호텔들도 신·개축을 통해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호캉스(호텔+마캉스)’를 즐길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다.

경주보문관광단지 주요 호텔 신·개축 계획

호텔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
호텔 파운티나	1,000억원을 투자하여 450실 규모 호텔 신축 (2021년 상반기 준공 예정)
호텔현대 경주	600억원 규모의 전면 리모델링 (2019.6~2020.3월 예정)
콩코드 호텔	600억원 규모의 전면 리모델링 (2020.10월 재개장 예정)

자료: 각 호텔 및 언론 보도

이에 따라 경주지역 관광업은 최근의 업황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지역, 즉 시내권에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 우선, 다른 관광지 주변 상권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국사 주변 유스호스텔의 경우 수학여행객이 줄며 3분의 1 가량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였고, 보문관광단지 상권도 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황리단길은 상권의 급성장과 함께 센터리피케이션⁸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경주시내권에서 불국사권, 보문관광단지권 등으로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연계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87) 2019년중 신서유기 외전 강식당3(tvN), 캠핑클럽(JTBC) 등의 TV 예능 프로그램이 경주에서 촬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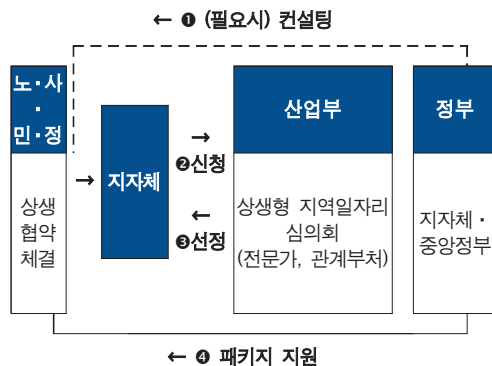
88)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새로 유입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기존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황리단길이 위치한 황남동의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51.3% 상승하였다.

강원지역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

강원본부 이규환 과장

강원도에서는 8월 13일 횡성에서 9개 중소기업 노사 대표와 강원지역 노·사·민·정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형 일자리 상생 협약”이 체결되었다. 강원도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 자동차부품 등 주력 제조업 부진 등의 보완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모빌리티⁸⁹⁾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⁹⁰⁾ 발표를 계기로 동 사업을 강원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역·산업·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상생협약에는 노·사·민·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노측은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분규 자제 등을 통해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동의하였다. 사측은 지역내 고용 및 투자 확대, 근로자 고용안정 보장, 협력사간 상생협약 준수 등에 합의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참여기업 제품 우선 구매, 우수인력 공급 등 지역일자리 모델 추진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여 상생협약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는 공장부지 제공, 투자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참여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서 주요 내용

주체	주요내용
노	신규근로자 적정 임금구간 및 연도별 임금상승률 합의
	기본급 비중 80% 이상 반영 ¹⁾ , 임금체계 변경 수용
	경영 안정시 ²⁾ 까지 단체협약 인정, 노사분규 자제
사	탄력근로제 수용,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참여
	지역 출신 우선 채용,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정규직 채용 및 정년 보장, 우리사주제도 취득 지원
민	노사협의회 설치 및 경영정보 공개
	협력업체간 적정수준 납품단가 계약 체결
	참여기업간 주요 결정사항 정보 공유
정	참여기업 생산 이모빌리티 제품 우선 구매
	지역 고교·대학내 맞춤형 교과과정 신설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우선지원 양보
정	정책지원,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지원
	공유재산 임대, 인프라 건설, R&D 지원 등

주: 1) 근무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기업간 임금수준은 상이

2) 향후 4년간 또는 누적 4만대 생산 조건

자료: 강원도청

89)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도로 운송 시스템을 의미하며, 운송 수단의 전력화부터 모빌리티 시스템 구현을 위한 배터리 기술 개발,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의 개념을 포함한다.

90) 지역단위 노·사·민·지자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지자체·중앙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임대전용 산단 우선 제공 및 낮은 임대료 적용, 정책금융 지원(산·기보의 보증 우대혜택), 근로자 생활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강원형 일자리는 중소기업 중심, 기업간 이익 공유라는 측면에서 광주형, 구미형 등 여타 지역일자리 모델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형차 제조기업인 (주)디피코와 부품협력업체 8개사는 연구개발·생산·판매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업하며, 참여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하는 등 이익 및 리스크를 공유한다. 또한 협약체결 이후에도 협력 기업들의 추가 진입을 허용하여 투자·고용 창출이 지속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추진 현황

	강원형	광주형	구미형
체결일	2019.8.13.	2019.1.31.	2019.7.25.
참여기업	9개 중소기업	현대차	LG화학
생산품목	이모빌리티	소형SUV	2차전지 양극재
투자규모	661억원	5,754억원	5,000억원
고용규모	580명	1,000명	1,000명
특징	중소기업 중심 추가참여 가능	상생형 첫 모델 광주시 경영주도	대기업 경영주도

자료: 강원도청, 광주광역시청, 구미시청

강원형 일자리는 도내 제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이번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횡성 우천산단을 중심으로 초소형 전기차 공장 및 인프라⁹¹⁾ 구축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형 일자리의 첫 프로젝트인 초소형 전기차 물차는 금년중 100대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4만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8월 25일에는 배터리 및 급속충전기 분야에 대한 1천만달러의 외자유치⁹²⁾에도 성공하였다.

향후 상생형 일자리 및 규제자유특구⁹³⁾ 선정 여부 등에 따라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강원도청은 강원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도내외 25여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1,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초소형 전기화물차 예상도



자료: 강원도청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투자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대규모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제한적인 점, 참여기업들의 완성차 생산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은 강원형 일자리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다. 자동차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이 높은 전남·울산 등에 비해 강원지역의 산업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형 일자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강원형 이모빌리티산업 고유의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91)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안전 관련 인증평가지원센터, 주행시험도로 등을 의미한다.

92) 급속충전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DII홀딩스는 2019년 9월 1차 투자금액 17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 총 1,000만달러를 강원 이모빌리티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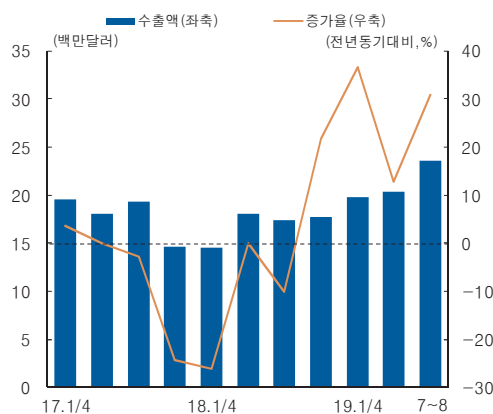
93)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중소기업벤처부 주관).

강원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세 지속

강원본부 김성은 과장

강원지역 자동차부품⁹⁴⁾ 수출은 2/4분기중 전년 동기대비 12.7% 늘어났으며 7~8월중 증가폭이 확대(30.9%)되었다.

강원지역 자동차부품¹⁾ 수출액²⁾



주: 1) MTI 코드 742 기준
2) 기간중 월평균 수출액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와 같은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는 글로벌 자동차 경기 부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둔화되었던 주요국의 자동차 수입이 일부 회복된 가운데 對미국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하였다. 수출대상국별로 보면, 對미국 수출은 국내 완성차 업체의 현지생산 신차용 부품을

중심으로 수요⁹⁵⁾가 지속됨에 따라 높은 증가세(2/4분기 44.6% → 7~8월중 38.5%)를 이어갔다. 對멕시코 수출은 2/4분기중 내수 위축의 영향으로 시장수요가 예상치를 하회하였다가 7월중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등으로 회복⁹⁶⁾하였다. 對중국 수출은 자동차 업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상반기 재고 소진이 마무리되면서 증가로 전환하였다.

강원지역 국가별 자동차부품¹⁾ 수출액²⁾

국 가	2018				2019		
	1/4	2/4	3/4	4/4	1/4	2/4	7~8월
미 국	3.8 (-54.2)	5.9 (32.0)	6.9 (8.2)	6.3 (66.6)	9.0 (134.7)	8.5 (44.6)	10.4 (38.5)
멕시코	2.8 (149.4)	4.2 (-14.0)	4.0 (-8.2)	4.2 (39.2)	3.7 (30.2)	3.5 (-16.3)	4.5 (32.7)
중 국	1.0 (-33.5)	1.1 (15.5)	1.1 (-17.7)	1.6 (-2.2)	0.7 (-31.7)	0.9 (-14.6)	1.2 (5.8)
인 도	1.9 (17.9)	1.7 (-5.0)	1.0 (-43.0)	1.3 (-9.6)	1.4 (-23.9)	1.5 (-9.0)	1.0 (-21.3)
일 본	0.7 (-3.0)	0.7 (-6.0)	0.6 (10.8)	0.5 (-3.8)	0.6 (-7.6)	0.7 (-6.5)	0.7 (10.9)
전 체	14.5 (-26.1)	18.1 (0.0)	17.4 (-10.1)	17.7 (21.6)	19.8 (36.5)	20.4 (12.7)	23.5 (30.9)

주: 1) MTI 코드 742 기준 2) 기간중 월평균 수출액 기준

3)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강원지역 수출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의 증가세가 2018년말 이후 둔화된 것과는 달리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강원지역의 경우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국가보다 북미권 수출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⁹⁷⁾

94) 강원지역에는 만도(원주), 일류기공(횡성), 프라이맥스(원주) 등의 공장이 있으며, 조향장치가 수출 대부분을 차지한다.

95) 기아자동차의 SUV 모델 텔루라이드(조지아공장 생산)가 2월 신규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월평균 5천 6백여대 판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싼타페TM(앨라배마공장 생산)도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 텔루라이드 월별 미국시장 판매량

월	19.2	3	4	5	6	7	8	3~8월 평균
판매량(대)	315	5,080	5,570	6,273	5,989	4,559	6,374	5,641

96) 기아자동차 멕시코 현지법인에서는 전라형 준중형(기아 포르테) 및 소형차(기아 리오, 현대 엑센트)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절반 넘는 차량이 미국으로 수출된다. 5월말 미국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를 시사하였으나, 6월 10일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강원지역이 전국 자동차부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 제외 전국 16개 시도중 전남, 광주, 세종에 이어 낮은 수준⁹⁷⁾이지만, 작년말 이후 점차 높아져 7~8월중 1.2%를 기록하였다.

강원지역 및 전국 자동차부품 수출 현황¹⁾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1/4	2/4	3/4	4/4	연간	1/4	2/4	7~8월
강 원	-26.1 (0.8)	0.0 (0.9)	-10.1 (0.9)	21.6 (0.9)	-5.5 (0.9)	36.5 (1.1)	12.7 (1.1)	30.9 (1.2)
전 국	-12.0	7.4	-4.3	10.5	-0.1	2.9	-7.2	-1.8

주: 1) 기간중 월평균 수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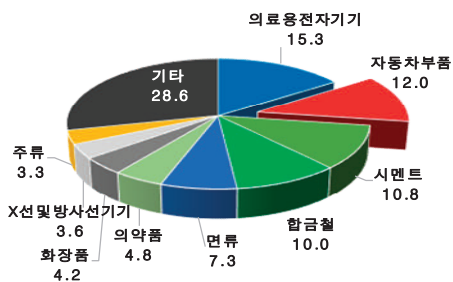
2) () 내는 전국대비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와 같은 수출 증가세를 반영하여, 도내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1~8월 기준)도 작년 9.8%에서 금년 들어 12.0%로 2.2%p 상승하였다. 이는 의료용 전자기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강원지역 주요 품목별 수출 비중¹⁾

(%)



주: 1) 2019년 1~8월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향후 강원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및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국 현지 공장 감산 등으로 對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미국내 SUV 신차 판매 확대⁹⁹⁾, 멕시코 현지공장 가동률 회복에 따른 북미권 완성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이 11월중 결정 예정인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고율 관세부과 대상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멕시코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기한 연기하는 데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파급 영향도 도내 업체들의 일본 수출 비중이 높지 않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 또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밀가공 업종처럼 생산설비¹⁰⁰⁾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도내 자동차부품 생산 차질 및 수출 감소 가능성도 있다.

97) 1~8월중 자동차부품 전국 수출액에서 미국 및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5%, 7.8%에 불과하지만, 강원지역 수출액에서는 각각 43.8%, 1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98) 1~8월중 지역별 자동차부품 수출 비중(%)

서울	울산	경기	경남	인천	경북	충남	대구	부산	전북	충북	대전	강원	세종	광주	전남
23.7	14.4	13.4	13.4	7.6	6.2	5.8	4.9	2.3	1.9	1.7	1.6	1.1	1.1	0.7	0.2

99) 기아자동차 미국 조지아공장에서는 텔루라이드 판매 목표치를 연간 64,000대에서 80,000대 수준까지 상향조정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앨라배마 공장에서 9월중 신형 쏘나타(DN8)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100) 일부 부품 생산업체들은 가공머신, 산업용기계, 로봇 등 생산설비를 화낙, 미쓰비시 등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강원지역 시멘트산업 생산 감소, 수익성은 개선

강릉본부 김덕형 과장, 이은국 조사역

전국 시멘트 생산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강원지역 시멘트산업¹⁰¹⁾은 건축물 착공실적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 등으로 2/4분기중 생산이 부진하였다. 전국 시멘트 생산은 2017년 4/4분기 감소 전환 이후 7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를 이어갔다.¹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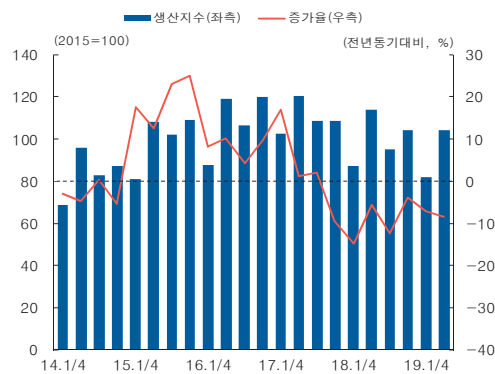
전국 건축물 착공실적

(백만㎡, %)

	18.2/4	3/4	4/4	19.1/4	2/4
착공면적	35.3	27.6	29.7	26.1	31.3
(증가율) ¹⁾	(8.2)	(-15.6)	(-12.4)	(-8.7)	(-11.3)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시멘트 생산지수¹⁾



주: 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 101) 강원지역에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쌍용양회 동해공장 및 영월공장, 한일현대시멘트(한일시멘트 계열사) 영월공장, 한라시멘트(아세아시멘트 계열사) 옥계공장의 5개 공장이 있다. 이들 공장의 생산량은 전국의 62.4%를 차지한다(2017년 기준).
- 102) 2018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개편으로 지역별 시멘트 생산지수는 별도로 발표되지 않지만, 전국과 강원지역 시멘트 생산 동향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2~2017년중 전국과 강원지역 시멘트 생산지수간 상관계수는 0.927에 달한다.
- 103) 2017년 시멘트 업계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기존 7강 체제가 3강(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2중(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체제로 재편되었다. 재편 후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다(2017년 출하량 기준, 한국시멘트협회).

업체	쌍용	한일	아세아	삼표	성신	기타
점유율(%)	21.0	20.3	19.3	16.5	12.4	10.5

104) 2018년 10월 시멘트 업계는 레미콘 업체에 공급하는 시멘트가격을 5~6% 인상하였다.

105) 호주산 유연탄가격은 1/4분기중 9.1% 2/4분기중 18.3% 하락하였다(전기대비).

반면 2/4분기중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수익성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7년 업계의 과점 체제 재편¹⁰³⁾ 이후 2018년 10월에 인상¹⁰⁴⁾된 시멘트가격이 급변 2/4분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 비해 시멘트 생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가격은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한 데 기인하였다.¹⁰⁵⁾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전국) 및 유연탄가격

(p. USD/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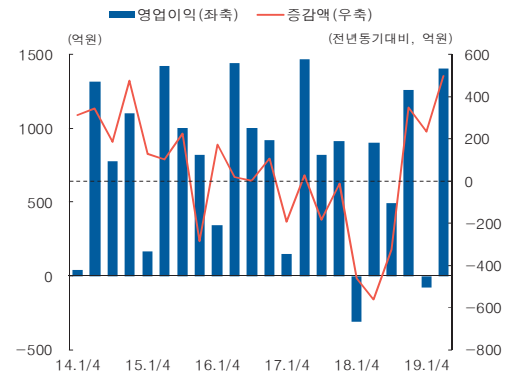
	18.1/4	2/4	3/4	4/4	19.1/4	2/4
생산자 물가지수 ¹⁾	95.4	95.4	98.0	98.0	97.7	97.4
유연탄 가격 ²⁾	102.9	105.6	117.8	102.7	93.3	76.3

주: 1) 포틀랜드시멘트 기준, 분기평균

2) 호주산 기준, 분기평균

자료: 한국은행, 대한석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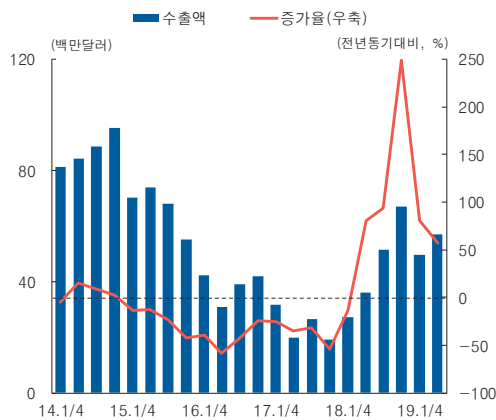
전국 주요 시멘트업체 영업이익¹⁾



주: 1)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아세아시멘트, 유니온, 삼표시멘트 6개 업체의 영업이익의 합계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KISVALUE)

특히 동해안에 소재한 시멘트 업체들의 경우 내수판매 부진 만회를 위해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해외판매¹⁰⁶⁾에 적극 나선 데다 일부 업체들의 2018년중 운송 문제 해소¹⁰⁷⁾, 비용절감을 위한 설비투자의 효과¹⁰⁸⁾ 등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역 시멘트 수출액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향후 시멘트산업의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 지속으로 회복이 더딜 것이나 정부의 SOC 예산 증액 및 예산 조기 집행 등에 따라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익성의 경우 시멘트 판매가격이 안정되고 주요 원자재인 유연탄가격이 3/4분기에도 하락세¹⁰⁹⁾를 지속하여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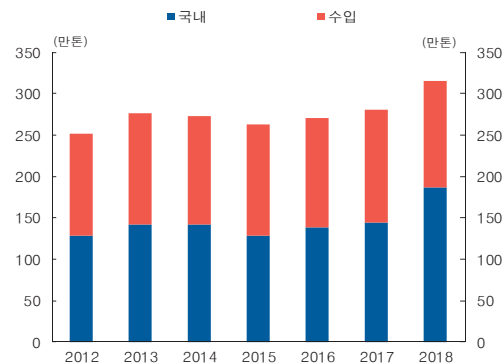
다만 최근 환경부에서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함¹¹⁰⁾에 따라 시멘트의 원료인 석탄재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생산 애로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¹¹¹⁾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

세부 사항	주요 내용
시기	2019.8월 이후
대상	수입 석탄재
세부 내용	1. 통관 시 직접조사 강화 -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 진위여부 전수조사 * 방사능(Cs-134, Cs-137, I-131) 농도 0.1Bq/g 이하, 환경방사선 0.3μSv/h 이하 ** 납(150mg/kg 이하), 구리(800mg/kg 이하), 카드뮴(50g/kg 이하) 등 5개 중금속 기준('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기준 준수 필요) 2. 통관 후 수입업체 사후관리 - 1회/분기 → 1회/월
향후 계획	시멘트업계 등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국내 매립 석탄재 활용 방안 및 대체재 발굴 추진

자료: 환경부

시멘트 업계 석탄재 사용 실적



자료: 한국시멘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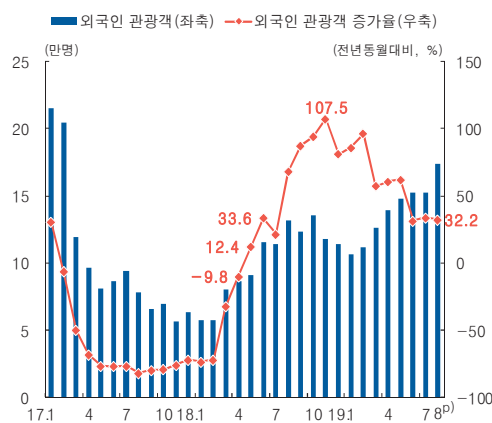
- 106) 강원 동해안에는 동해항, 옥계항 등에 시멘트 전용 부두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장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벨크선에 직접 선적이 가능해 강원지역 시멘트 수출량은 전국의 95.6%를 점유하고 있다(2018년 기준).
- 107) 삼표시멘트는 2018년중 해상운송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해 선박 운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2017년 6,701억원 → 2018년 5,713억원)하였으나 2019년중 선박을 직접 구입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운송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 108) 쌍용양회는 2018년 8월 가동을 시작한 폐열발전설비(생산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되던 열원을 이용하여 전력 생산)를 통해 240억 가량을, 2018년 4월 준공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단가가 낮은 밤에 전기를 충전해 단가가 높은 낮에 사용)에 대한 투자를 통해 40억원 수준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업계 추산).
- 109) 유연탄가격은 3/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3년 분기예측 기준, 한국광물자원공사).
- 110)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석탄재의 절반가량은 수입산인데, 지난 10년간 누적 수입량은 1,182.7만톤으로 일본산이 9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다.
- 111) 환경부는 9월 2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일본에서 들어온 석탄재 4천톤을 대상으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였다.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속

제주본부 김홍렬 조사역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2018년 2/4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¹¹²⁾ 2/4분기중 전체 관광객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7% 늘어나 2분기 연속 증가(1/4분기 7.6%)하였다.

제주방문 외국인 관광객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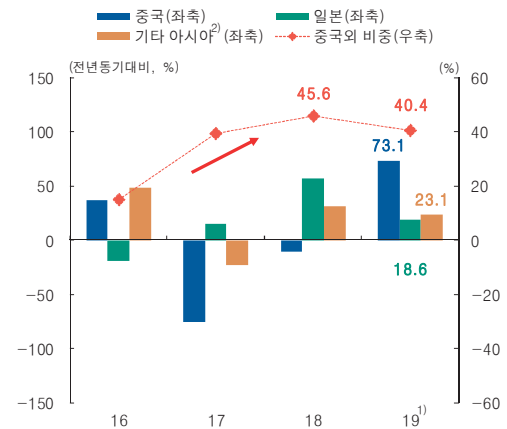
주: 1) p는 잠정치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관광객 국적별로는 2017년 사드 갈등으로 급감하였던 중국 관광객이 회복되고 있다. 한중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가 일부 허용¹¹³⁾ 되는 등 중국 당국의 한국 관

광 금지가 완화되었다. 축소되었던 제주와 중국간 항공기 운항도 다시 확대¹¹⁴⁾되면서 중국인의 제주 관광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대만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와 이들 국가간 항공 노선이 증편¹¹⁵⁾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별 맞춤형마케팅 강화, 현지 홍보활동 확대 등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및 중국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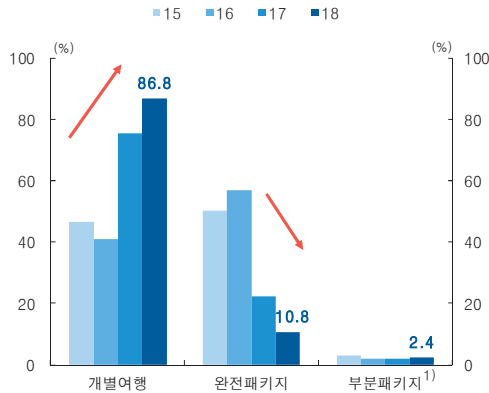
주: 1) 2019년 1~7월중
2) 기타 아시아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여행 형태별로는 단체 관광객이 줄어든 반면, 개별 관광객(Foreign Independent Traveler, FIT)이 증가했다. 특히 K-팝, K-뷰티 등 한류 확산으로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젊은 연령대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¹¹⁶⁾ 단체 관광객에 비해

112) 아직 사드 갈등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1~8월중 외국인 관광객수는 2016년 동기대비 44.8% 수준에 머물렀다.
113)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 허가 조치가 베이징과 산둥성(2017.11월), 충칭과 후베이성(2018.5월), 상하이와 장쑤성(2018.8월) 순으로 확대되었다.
114) 제주공항 중국노선 편수는 2016년 16,650편(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5.5%)에서 2017년 6,931편(-58.4%)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2018년 8,142편(17.5%) → 2019년 1~8월 7,531편(59.6%)).
115) 1~8월중 제주공항의 노선 편수는 전년동기대비 일본이 198편(15.7%), 기타 아시아(일본, 중국 제외)가 544편(34.4%) 증가하였다.
116) 지난 10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한류를 접한 20~30대 관광객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입국 10년을 돌아보다, 8.19일).

재방문 의향이 높고 1인당 소비금액이 큰¹¹⁷⁾ 개별 관광객의 증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로 위축되었던 제주 관광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여행 형태별 비중



주: 1) 항공과 숙박, 차량, 식사 등의 일부 옵션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여행 형태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각 호)

향후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월 한중 항공회담 합의에 따른 항공노선 증편¹¹⁸⁾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한편, 지자체의 관광시장 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동남아시아 등 관광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 관광객은 최근 한일 외교 갈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외무성이 '한국여행 주의보'를 수차례 발령하면서 하반기 단체여행이 일부 취소되고, 실제 예약상황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일부 일본 여행사가 제주관광상품 홍보를 중단한 가운데, 항공사들은 7월 이후 제주-일본간 노선 탑승률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적자 노선을 운휴 또는 감축할 것으로 예고¹¹⁹⁾하였다. 동계(10월 말~익년 3월) 항공편 조정 과정에서 일본 직항 노선이 감축될 경우, 접근성 저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지역 전체 관광객중 낮은 일본 관광객 비중(2018년 기준 0.6%), 일본 관광객 감소를 내국인 관광객이 일부 대체할 가능성¹²⁰⁾ 등을 고려하면 한일 외교 갈등이 조기 종료될 경우 제주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지역 일본 관광객 추이

	전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일본 관광객	
	인원	비중 ¹⁾	인원	비중 ¹⁾	인원	비중 ¹⁾
2017	1475.3	(100.0)	123.1	(8.3)	5.5	(0.4) <4.5>
2018	1431.4	(100.0)	122.5	(8.6)	8.7	(0.6) <7.1>
2019.1~7월	864.6	(100.0)	93.7	(10.8)	5.1	(0.6) <5.4>

주: 1) () 내는 전체 관광객내 비중, < > 내는 외국인 관광객내 비중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17)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재방문 의향(5점척도 기준)은 부분패키지(4.10), 개별여행(3.99), 완전패키지(3.93) 순이었으며, 1인당 총 지출 금액(\$은 개별여행(1,384.8), 부분패키지(1,136.7), 완전패키지(1,003.1) 순으로 나타났다.

118) 국토교통부는 한중 항공회담(3.15일)에서 양국간 운수권(여객·화물기의 운항시점·횡수·방식) 합의를 통해 한중간 항공기 운항 횡수를 총 주 70회 증대(여객 60대, 화물 10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5월 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운수권을 배분하였다.

119) 8월 20일 대한항공은 11월 1일부터 제주-나리타노선(주 3회), 제주-오사카노선(주 4회)을 운휴한다고 밝혔으며,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하반기중 일본노선을 감편하는 대신 중국, 동남아시아 등 노선을 증편할 계획이다.

120)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수가 7월 이후 증가하였다(전년동월대비, 5월 -2.5% → 6월 -2.0% → 7월 3.1% → 8월 8.3%^{p)}).

III

특별기획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과 미래 도시발전의 모범사례,
볼프스부르크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과 미래 도시발전의 모범사례, 볼프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이상민 차장

✓ 시사점

볼프스부르크(Wolfsburg)는 긴밀한 민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민관 협력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을 지속해온 볼프스부르크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중 하나이며 미래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는 모범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볼프스부르크가 성공적인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데는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기구 설립,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낸 다양한 사업 추진, 지역소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독일 사회에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볼프스부르크는 독일 중북부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에 있는 인구 12만 5천명의 중소도시로 고속도로, 철도 및 운하가 지나는 교통 요지¹⁾이다. 이곳은 2018년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 주식회사(Volkswagen AG)²⁾의 본사 소재지로서 독일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스포츠레저시설,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갖춘 체험도시이며, 최근에는 도시 디지털화(digitalization) 추세에 맞춰 미래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도 발전하고 있다.

볼프스부르크 위치



자료: 볼프스부르크 통계연보(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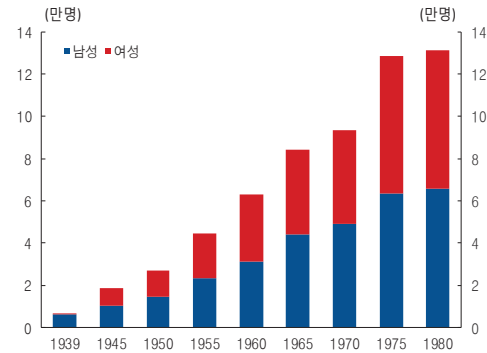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

볼프스부르크³⁾는 1937년에 히틀러가 저렴한 가격의 대중적 자동차를 공급할 목적으로 이 지역에 자동차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공장 근로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건설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계획도시이다. 도시 역사가 80년 남짓하여 유럽의 다른 유수한 도시들에 비해서는 젊은 도시라 할 수 있다.

- 1) 볼프스부르크는 고속열차(ICE) 기준으로 베를린에서 서쪽으로 1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북동쪽으로 3.5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 2) 1937년에 설립되어 역사가 82년에 이르는 폭스바겐 주식회사(Volkswagen AG)는 전세계 122개 공장에서 12개 브랜드(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등)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2018년 판매량: 1,090만대)이다. 현재 볼프스부르크에는 폭스바겐 주식회사 본사와 공장(생산차종: 골프, 골프스포츠벤, 티구안, 투란)이 위치해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서 약 6만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 3) 제2차 세계대전중인 1945년 5월 25일에 미군 점령 하에서 개최된 시의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에서 도시 이름을 "Stadt des KdF-Wagens"에서 "Wolfsburg"로 변경하였다.

볼프스부르크시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기업인 폭스바겐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폭스바겐이 비틀(Beetle), 골프(Golf) 등을 베스트셀러로 하여 성장한 것에 힘입어 볼프스부르크의 인구는 1945년 2만명에서 1980년 13만명으로 늘어났으며 면적도 35km²에서 200km²로 확장되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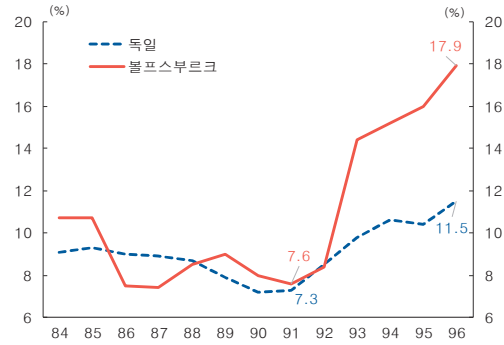
볼프스부르크 인구



자료: 볼프스부르크 통계연보(2018)

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통일(1990.10.3일) 특수를 누렸던 폭스바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통일 특수 소멸, 일본 자동차 산업의 추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볼프스부르크 지역경제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실업률이 1991년 7.6%에서 1996년 17.9%로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지역 GDP도 1992년 58.2억유로에 달하였으나 1996년에는 51.8억유로로 10% 이상 줄어들었다.

볼프스부르크 실업률⁴⁾(1984~1996년)



주: 1) 1984~1990년 독일 실업률은 서독 기준
자료: 독일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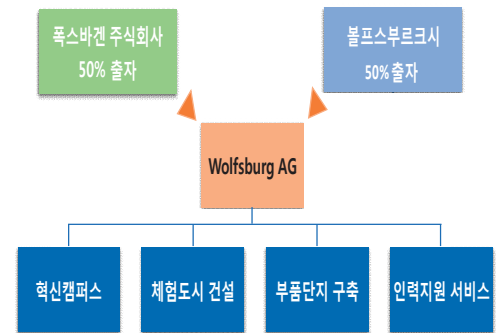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볼프스부르크시와 폭스바겐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경제내 구조적 문제들을 인식하게 되었다. 당시 볼프스부르크 경제는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22%(독일 평균 약 50%)에 불과하고 폭스바겐이 전체 시 일자리의 60%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및 특정 기업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 다른 자동차 생산 도시의 경우 동일 지역내 부품공급업체 소재 비율이 높은 반면 볼프스부르크는 상당수 부품공급업체가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아울러 볼프스부르크는 창업 실적이 부진하였는데, 당시 신규 창업 기업수가 독일 전체 평균 대비 30% 정도 적었다. 이 밖에도 지역소재 기업 근로자의 절반이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고 있어 매년 상당한 구매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볼프스부르크시와 폭스바겐은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업률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각각 250만유로를 출자하여 1999년 7월 민

4) 1970년대 초반 볼프스부르크의 인구 및 면적 증가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인근 20여개 마을(Gemeinde) 흡수통합(1972년)도 기여하였다(Ralf Sygusch(2013), "Wolfsburg im Wandel").

관 협력기구(public private partnership)인 Wolfsburg AG를 설립하였다.⁵⁾ 동사는 구체적으로 혁신캠퍼스(Innovations Campus) 설립, 체험도시 건설, 부품단지 구축, 인력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창업 관련 상담, 자문, 교육, 경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혁신캠퍼스를 설립(2001년)하여 약 600개에 달하는 기업의 창업을 도왔으며 지역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대형종합공원(Allerpark), 스포츠레저시설(Volkswagen Arena, Bade Land, Eis Arena), 쇼핑센터(Designer Outlets Wolfsburg) 등 시민과 관광객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건설하였다. 이들 시설은 인근의 자동차 종합 테마파크인 아우토슈타트(Autostadt)⁶⁾와 함께 볼프스부르크가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였다.⁷⁾ 아울러 부품단지를 건설하여 180여개의 부품공급업체를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차 생산공장과 부품 공급업체간 접근성을 높여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고용증대를 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소개 및 직업교육, 기업 인력파견 사업⁸⁾도 함께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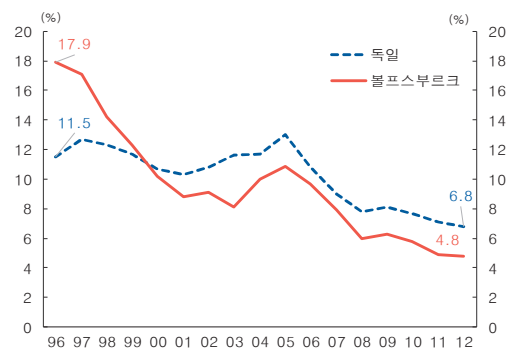
민간 협력기구인 Wolfsburg AG 초기 사업



자료: Wolfsburg AG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볼프스부르크 지역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고용이 안정되었으며 제조업 편중 경제구조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구조로 점차 전환하였다. 실업률은 1996년 17.9%에서 2012년에는 4.8%로 크게 낮아졌으며, 20% 초반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2012년 45%대로 높아졌다.

볼프스부르크 실업률(1996~2012년)



자료: 독일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

5) 동사는 이후 증자를 거쳐 2018년 회계연도말 현재 자본금이 1,010만유로에 달한다.

6) 폭스바겐은 볼프스부르크 중심에 위치한 대형종합공원(Allerpark) 인근에 자사 고객이 직접 자동차를 수령할 수 있는 신차 출고장과 함께 자동차 테마파크를 건설하였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은 신규 고객서비스 제공, 기업 홍보,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볼프스부르크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서비스업 발전, 지역경제 구조 다변화,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7) 전체 시인구의 2.5배를 넘는 약 32만명의 관광객이 관광, 레저, 쇼핑 등을 위해 볼프스부르크를 방문하였다(2017년 기준).

8) 2014년 1월 Wolfsburg AG는 자회사(Autovision-Der Personaldienstleister GmbH & Co. OHG)를 설립하여 인력파견사업 부문을 이전하였다.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볼프스부르크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기구인 Wolfsburg AG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회성 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지역내 일자리 확충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 건강, 에너지, 여가, 교통, 주거, 경제개발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세대를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 제고 차원에서 시민과 직장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환경보전, 자원유지 및 새로운 경제적 기회 모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Wolfsburg AG와 볼프스부르크 시영기업(Stadtwerken Wolfsburg AG)간 공동으로 볼프스부르크 에너지 유한회사(Wolfsburger EnergieAgentur GmbH)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합리화 방안, 에너지 절약형 건축 및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도 함께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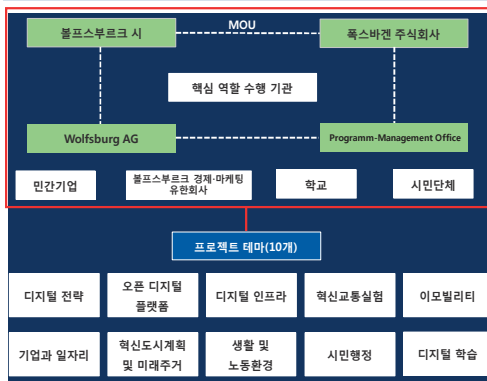
한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볼프스부르크시를 중심으로 지역 금융기관과 시민단체와 공동 설립한 볼프스부르크 경제·마케팅 유한회사(Wolfsburg Wirtschaft und Marketing GmbH)도 있다. 이 회사는 지역 홍보,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한 여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Wolfsburg AG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추진)

볼프스부르크의 민관 협력은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디지털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과 지역내 여러 기업, 시민단체 등이 함께 추진중인 “볼프스부르크 디지털 이니셔티브(Wolfsburg Digital Initiative)”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2016년 12월 볼프스부르크시와 폭스바겐은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시의회는 2017년 2월 이를 시의 디지털 전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볼프스부르크의 미래 도시 경쟁력과 인구유입 등 흡인력을 높이고 경제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체험을 제공하여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볼프스부르크의 디지털 모델 도시(digital model city) 발전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전략하에 현재 총 49개의 프로젝트(진행중 46개, 계획중 3개)가 10개 테마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10개 테마는 디지털전략, 오픈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인프라, 혁신 교통실험, 이모빌리티(E-Mobilität), 기업과 일자리, 혁신 도시계획 및 미래주거, 생활 및 노동환경, 시민행정, 디지털학습으로 구분된다. 이 프로젝트에는 볼프스부르크시, Wolfsburg AG 및 볼프스부르크 경제·마케팅 유한회사 등 민관 협력기구, 폭스바겐·지멘스·WOB.COM·Sparkasse 등 민간기업, 학교·시민단체(Neue Schule Wolfsburg, Schiller40, VHS-Wolfsburg 등) 등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볼프스부르크 디지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현재 추진중인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능형 교통신호(intelligent traffic light) 프로젝트는 2018년 2/4분기부터 볼프스부르크시, 폭스바겐, Wolfsburg AG 및 지멘스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교차로를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최신 IT기술(ICT-G5)을 활용하여 동 신호기와 접근한 자동차간 상호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⁹⁾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10개의 지능형 교통신호기가 시내중심가에 설치되어 테스트중에 있으며 폭스바겐이 이에 필요한 기술적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개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래 주거단지(Steimker Gärten) 건설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폭스바겐 부동산회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볼프스부르크 중심지 약 22ha에 1,25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건설중인 사업이며, 탄소중립(CO2-neutral), 지능형 교통(intelligent mobility), 환경친화적 에너지관리, 빗물 재활용, 자동차자전거 공유경제 등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통신망 구축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Wolfsburg AG와 WOBCOM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1년까지 기존 전화통신망 기반의 인터넷망을 광통신 기반의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사업 완료시 약 71,000가구, 2,600개 기업 및 200개 공공기관이 대용량 데이터를 통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시 디지털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teimker Gärten 에너지관리시스템 모델



자료: #Wolfsburg Digital

(시사점)

현재 볼프스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볼프스부르크의 1인당 GDP는 17만 2천유로(2017년 기준)로 독일 1인당 GDP(3만 5천유로)보다 4.5배 이상 크고,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은 월 4,610유로(2015년 기준)로 독일 전체 평균(3,084유로)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실업률(독일 연방노동청 기준)은 4.8%(2018년 기준)로 독일 전체 평균(5.2%)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9)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신호기가 보행자 또는 자전거 운전자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8년 독일 경제주간지 Wirtschafts Woche가 쾰른IW컨설팅 및 Immobilien Scout24(부동산종합정보회사)와 공동으로 독일 71개 도시의 경제, 노동, 복지, 주거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볼프스부르크는 뮌헨, 잉골슈타트, 슈투트가르트 및 에를랑겐에 이어 5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볼프스부르크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는 모범도시로도 평가받고 있다. 2019년 7월에는 독일연방정부가 볼프스부르크 “디지털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모델 프로젝트(13개)중 하나로 선정¹⁰⁾하였다. 앞으로 볼프스부르크는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미래 도시발전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볼프스부르크가 잘 사는 도시로 발전하고 미래 도시발전의 모범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관 상호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 볼프스부르크는 지역경제 위기를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왔다. 또한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볼프스부르크의 성공적인 민관 협력관계 형성 배경에는 먼저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시·당국, 지역사회, 기업 및 근로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시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추진기구(Wolfsburg AG 등)를 설립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으

로써 다양한 계층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폭스바겐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의식과 노력도 주요 성공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민관 협력의 바탕에 있는 독일 사회의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를 사회적 존재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동참하는 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민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관 협력 사업 추진시 볼프스부르크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자료는 독일 연방정부, 볼프스부르크시, Wolfsburg AG 등의 홈페이지 게시 및 발간 자료, 독일 언론기사, 볼프스부르크시 경제전략도시개발 담당자 제공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0) 볼프스부르크 외에도 울름(Ulm), 게라(Gera), 카이저슬라우테른(Kaiserslautern) 등의 도시에서 추진 중인 12개 프로젝트가 독일 연방정부의 스마트 시티 모델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2019.7.10일).

IV

지역경제 연구

1. 울산-전남지역 조선업 현황과 발전전략	119
2.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135

1. 울산·전남지역 조선업 현황과 발전전략¹⁾

울산본부 박현서 과장, 목포본부 임준혁 과장

요약

세계 조선업은 얼마 전까지 해상 물동량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신규수주량·인도물량·수주잔량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조선업도 신규 선박 발주 감소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량이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내 제조업 생산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 등 업황이 부진하였던 울산·전남지역 조선업도 최근에는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조선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LNG 운반선 수요 증가, 선박 대형화, 선박 환경규제 강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LNG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LNG 교역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대형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규모의 경제와 항로 개발 등으로 유조선, 벌크선 등의 발주에서 대형 선박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선박교체 수요도 선박연료 배기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전남지역 조선업은 선박기자재산업의 기술 개발이 미흡하고 해외수요 변동에 민감하며 중형 선박 시장이 부진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내 선박기자재산업 기술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울산·전남지역의 경우 일부 핵심기자재에 대한 기술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해운업 위축으로 해외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향후 LNG 운반선 수요가 감소할 경우 지역 조선업 업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형 선박 중심의 중형 조선사들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 금융여건 위축 등으로 업황이 위축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전남지역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박기자재산업 기술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요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중형 조선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형 조선업체들은 선박 소재·부품의 국산화 추진을 통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분업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선박기자재 연구기관 설립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해운업체에 대한 지원, 선주사 국적 다양화, LNG 운반선에 편종된 구조 완화 등으로 수요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향후 시장 전망이 밝은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중소조선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업체의 혁신기술이 국내 조선업계에 원활히 파급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1) 본고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견해를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박현서 과장 parkhs@bok.or.kr, 임준혁 과장 jh.lim@bok.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 검토 배경

우리나라 조선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울산과 전남의 경우 조선업 비중이 높은 국가산업단지(울산 미포, 영암 대불)가 소재하여 지역경제가 조선업 경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수년간 세계 해상물동량 증가율 둔화²⁾ 등으로 세계 선박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더욱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인 중국 업체와의 수주 경쟁에 밀리면서 지역 조선사들은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구조조정까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업 업황이 부진했던 2016~17년중 울산과 전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GRDP기준)은 각각 1.6%, 2.3%에 그쳐 전국 성장률(3.1%)을 상당폭 하회하였다.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LNG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조선업 경기가 완만하나마 회복되고 있으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 마중 무역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조선업 동향 및 주요 특징을 살펴본 후 울산·전남지역 조선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전략을 모색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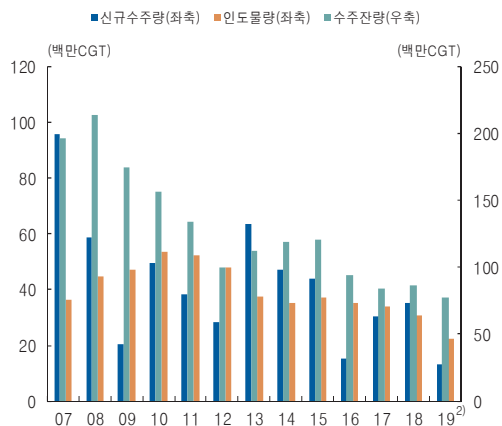
II. 최근 조선업 동향

울산·전남지역 조선업의 문제점 분석에 앞서 조선업 동향을 세계, 국내, 울산과 전남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세계 조선업

세계 조선업은 지난 수년간 선박 신규수주량 축소로 인도물량과 수주잔량이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2016년중에는 신규수주량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15.2백만CGT)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점진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³⁾

그림 1. 세계 선박 신규수주량·인도물량·수주잔량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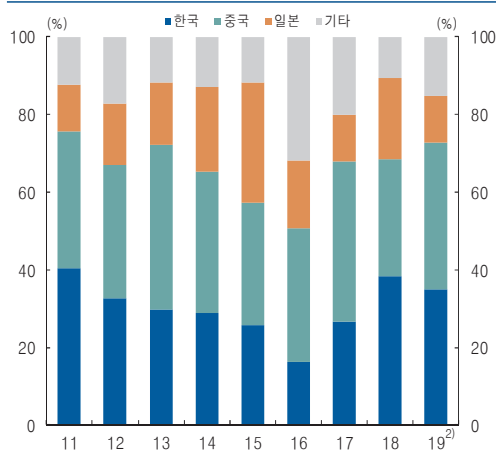
주: 1) CGT 기준; 선박의 무게(GT: Gross Tonnage)에 선박 종류별로 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정된 계수(C)를 곱한 것
2) 신규수주량과 인도물량은 1~8월 누계, 수주잔량은 8월말 기준
자료: Clarksons

2) 세계 해상물동량은 2011~14년중 연평균 4.0%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17년중에는 연평균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적재기준, UNCTAD).

3) 2017~18년중 세계 신규수주량은 32.4백만CGT(연평균)로 2007~16년중 실적의 약 70% 수준에 불과하였다. 특히 2019년(1~6월 중) 들어서는 전년동기대비 43.3%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중국·일본 3국이 전세계 선박 신규수주량의 80%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는 7년만에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 들어 중국의 신규수주량이 다시 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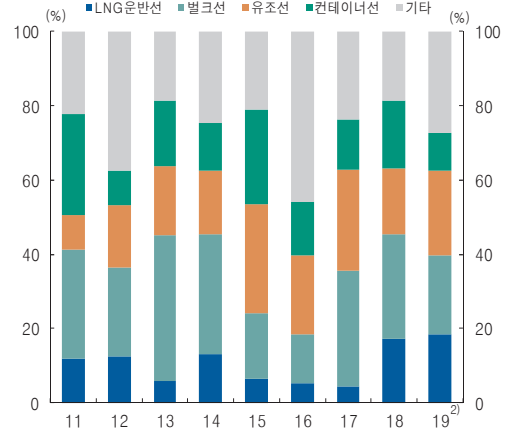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선박 신규수주량 점유율¹⁾



주: 1) CGT 기준 2) 1-8월 누계
자료: Clarksons

선종별로는 벌크선·유조선·컨테이너선 등 범용선이 세계 선박 신규수주량의 50% 내외를 점유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양플랜트가 위축되는 대신 LNG 운반선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그림 3. 선종별 세계 선박 신규수주량 점유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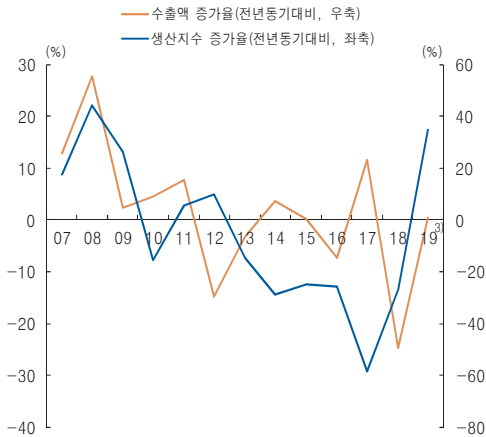
주: 1) CGT 기준 2) 1-8월 누계
자료: Clarksons

2. 국내 조선업

국내 조선업은 지난 수년간 세계 선박 발주 감소, 경쟁 심화 등으로 생산과 수출이 모두 부진하였으나, 2017~18년중 수주 회복에 힘입어 2019년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생산의 경우 2013~18년까지 6년 연속 감소한 후 금년 1~7월중 증가(17.4%)로 전환하였다. 선박류 수출도 2016~17년중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2018년에 크게 감소(-49.6%)하였다가 금년 1~7월중 증가(0.9%)로 전환되었다. 다만, 최근 조선업황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는 수주량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도는 수준이다.⁴⁾

4) 2017~18년중 국내 선박 신규수주량은 10.4백만CGT(연평균)로 2007~16년(13.5백만CGT, 연평균)의 약 77%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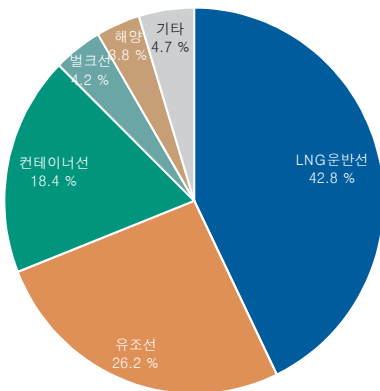
그림 4. 국내 선박류¹⁾ 수출액 및 조선업²⁾ 생산지수



주: 1) 선박과 수상구조물(MTI 746 Code)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수출액: 1~7월 누계, 생산지수: 1~7월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선종별로는 고부가가치선인 LNG 운반선의 수주잔량 비중이 가장 크고 시장점유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벌크선은 수주 비중이 미미하다.

그림 5. 선종별 국내 선박 수주잔량¹⁾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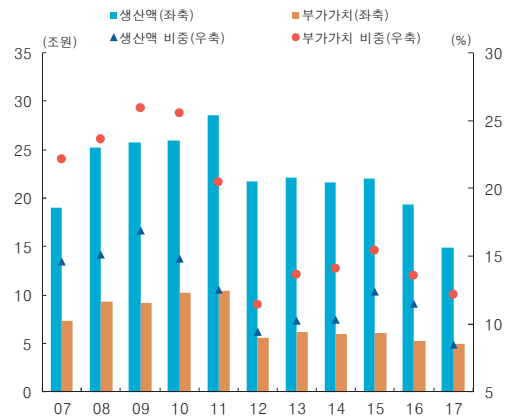


주: 1) 2019년 9월 18일 기준
 자료: Clarksons

3. 울산지역 조선업

울산지역 조선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 내 제조업 생산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지역내 주력산업으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지역 조선업 생산액(규모 10인 이상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체 기준)은 14.9조원으로 제조업 생산액의 8.5%, 부가가치는 5.0조원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의 12.2%를 차지하였다.⁵⁾

그림 6. 울산지역 조선업¹⁾ 생산액과 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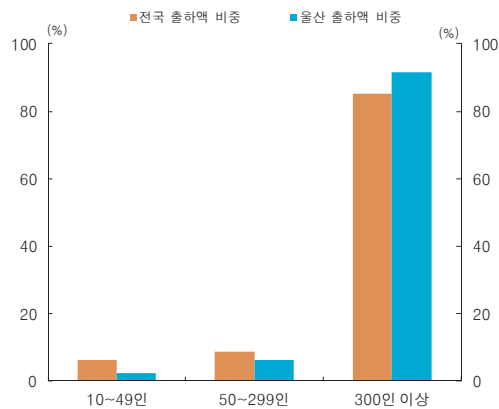


주: 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울산지역 조선업은 중·대형 조선업체가 생산 및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2017년 지역 내 조선업 전체 출하액(종사자수 10인 이상) 중 대형조선사(종사자수 300인 이상)의 비중이 91.6%에 달하여 전국 비중(85.2%)을 상회하고 있다. 종사자수도 중형(종사자수 50~299인) 및 대형 조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3.6%, 45.0%로 전국(각각 38.1%, 41.2%)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5) 수출액의 경우 2018년중 51억달러로 같은 기간중 울산지역 전체 수출의 7.3%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종사자수는 41.7천명으로 제조업 종사자수(161.2천명)의 25.9%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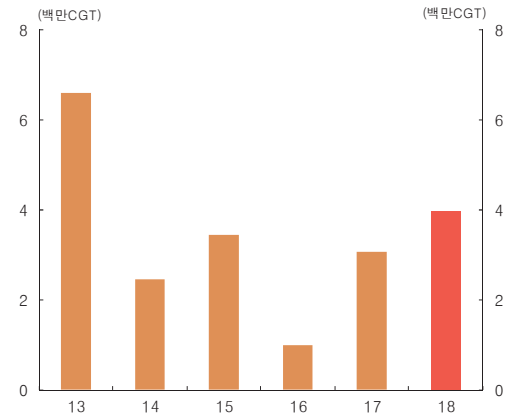
그림 7. 울산지역 조선업¹⁾ 출하액 비중²⁾



주: 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기준
2) 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

울산지역 조선업은 2013년 이후 업황 부진이 지속되다가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주요 조선업체(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신규수주량은 2016년 최저점(1.0백만CGT)을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2018년중(4.0백만CGT)에는 전년대비 30.0% 늘어났다.⁶⁾ 이에 따라 금년 들어 생산과 수출 모두 증가로 전환되었다.

그림 8. 울산지역 주요 조선업체¹⁾ 연간 신규수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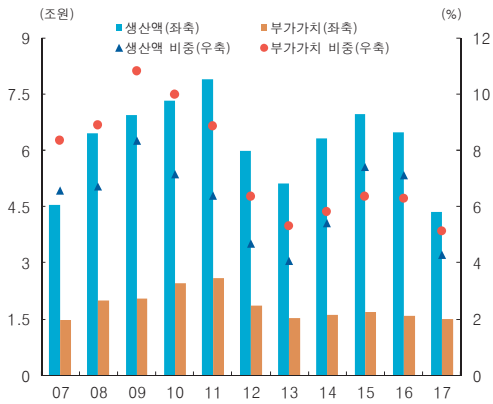
주: 1)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자료: Clarksons

4. 전남지역 조선업

전남지역 조선업은 2016년 이후 지역내 제조업 생산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다. 2017년 조선업 생산액(규모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은 4.4조원으로 제조업 생산액의 4.3%, 부가가치는 1.5조원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의 5.1%를 차지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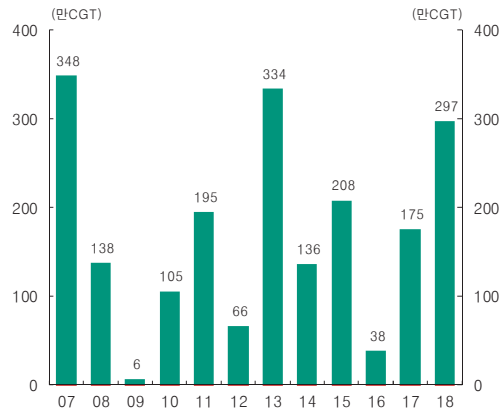
6) 2019년에도 주요 조선업체의 월평균 수주잔량이 1/4분기 및 2/4분기에 각각 20.2%, 16.8% 증가(전년동기대비)하였다. 조선업 생산(기타 운송장비 생산지수 기준)도 1/4분기중 46.8%, 2/4분기중 33.5% 증가하였다.
7) 2018년중 수출액은 25.8억달러로 같은 기간 전남지역 전체 수출의 7.0%를, 2017년 종사자수는 15.4천명으로 제조업 종사자수(114.1천명)의 13.5%를 차지하였다.

그림 9. 전남지역 조선업¹⁾ 생산액과 부가가치



주: 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그림 10.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¹⁾ 연간 신규수주량



주: 1)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자료: Clarksons

전남지역 조선업은 지역내 대형 조선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의 의존도가 높다. 2018년 현대삼호중공업의 매출액(2.6조원)과 고용인원(10.3천명)은 전남지역 조선업체 전체 매출과 고용인원의 56.4%, 61.0%를 차지하였다. 한편, 전남지역의 50인 미만 중소기업체 수 비중은 85.7%로 전국 평균(82.9%)보다 높게 나타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영세 조선업체가 많은 편이다.

전남지역 조선업 생산은 LNG 운반선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되었다. 2018년 중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신규수주량은 297만CGT로 전년대비 69.7% 증가하였다.⁸⁾

Ⅲ. 최근 조선업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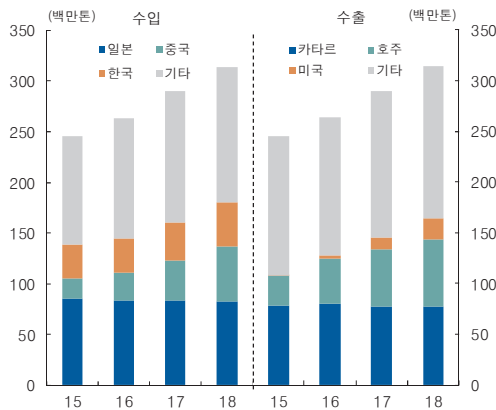
1. LNG 교역량 및 LNG 운반선 수요 증가

글로벌 LNG 수요 증가와 주요 LNG 생산국의 공급능력 확대로 2016~18년중 글로벌 LNG 교역량이 연평균 8.6% 증가하였다. 석탄 이용 비중이 높은 중국은 최근 대기질 악화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에 주목⁹⁾하고 수입량을 늘려가고 있다. 한편, 미국, 호주 등 주요 LNG 생산국들은 에너지 주도권 강화를 위해 천연가스 액화시설을 확장하는 등 LNG 공급 능력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8) 7월 주요 조선업체의 수주잔량은 427만CGT로 2015년 평균(448만CGT)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조선업 생산(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생산지수 기준)은 1/4분기중 1.9%, 2/4분기중 19.3% 증가(전년동기대비)하였다.

9) 중국은 천연가스 이용 비중을 2015년 5.9%에서 2020년 8.3~10.0%로 높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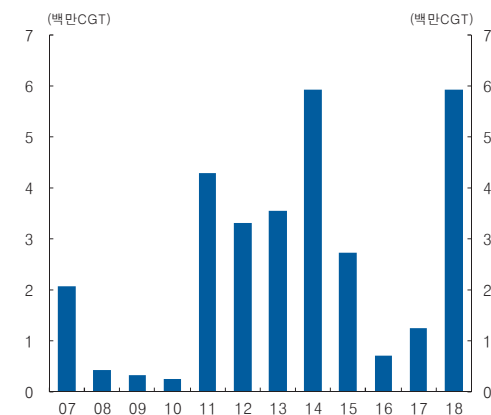
그림 11. 국가별 LNG 수입량·수출량



자료: GIGNL(국제LNG수입자그룹)

LNG 교역 확대와 더불어 LNG 운반선 운임도 2017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중 큰 폭 늘어난 LNG 운반선 발주량의 대부분(98.1%)은 우수한 건조능력¹⁰⁾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주하였다.

그림 12. LNG 운반선 글로벌 발주량



자료: Clarksons

그림 13. LNG 운반선¹⁾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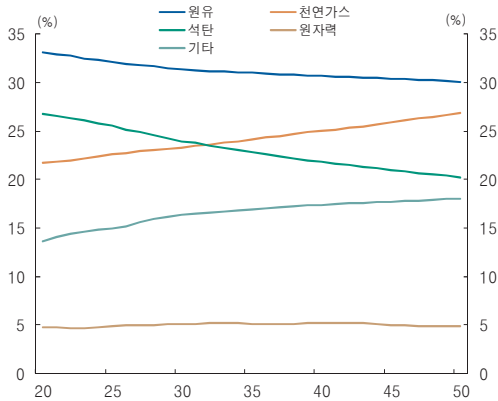
주: 1) 16만m³ 기준
자료: Clarksons

시장에서는 LNG 교역량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으나, LNG 운반선 발주 호조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EIA 등 에너지 관련 예측 기관들은 늦어도 2040년까지 천연가스가 석탄을 제치고 원유에 이어 제2의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카타르 등 주요 LNG 생산국들은 LNG 프로젝트¹¹⁾를 통해 운반선 발주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8년중 큰 폭으로 늘어난 운반선 발주 등으로 적재능력이 누적됨에 따라 LNG 운반선 운임 상승세와 발주량이 조만간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 LNG 운반선 건조에는 액화천연가스 저장 화물창의 단열성 및 기밀성(氣密性) 유지 기술, 운반 도중 기화하는 천연가스의 재액화 기술 등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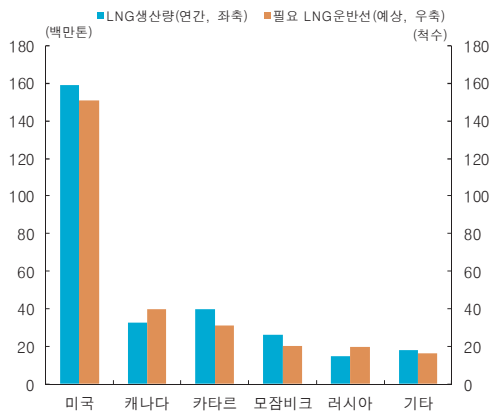
11) LNG를 수출하기 위해 액화플랜트를 건설하고 LNG 운반선을 발주하는 일련의 사업이다.

그림 14. 에너지원 수요 비중 전망



자료: IEA

그림 15. 글로벌 LNG 프로젝트¹⁾에 수반되는 LNG 생산량 및 예상 운반선수



주: 1) 현재 기본설계(FEED) 중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완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프로젝트는 제외

자료: Clarksons(2019.5월)

2. 선박의 대형화

최근 글로벌 선박 건조에서 대형 선박¹²⁾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¹³⁾ 유조선, 벌크선 등 주요 선종의 대형선 발주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선 위주로 건조되는 LNG 운반선의 발주 비중이 최근 상승한 점도 선박 대형화의 주요 요인중 하나이다.

표 1. 선종별 대형 선박 발주 비중

	(%)		
	'04~08	'09~13	'14~18
유조선	26.3	32.6	37.7
컨테이너선	35.6	69.6	67.9
벌크선	6.1	7.4	20.2
LPG 운반선	40.0	41.0	68.4
LNG 운반선	98.7	97.7	97.0
주요선종 평균	25.6	31.8	47.5

자료: Clarksons

선박 대형화 현상의 주된 배경으로는 규모의 경제, 항로 개발 등이 있다. 선박의 규모가 커질수록 선주는 연료비, 인건비와 같은 단위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선업체도 기술 발전을 통해 단위 건조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중소형 선박 항로가 확대 개발¹⁴⁾되면서 대형 선박이 통과, 선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12) 박종환 외(2018)에서 제시한 기준 등에 따라 ① 200,000DWT(중량톤수) 이상 벌크선, ② 120,000DWT 이상 유조선, ③ 6,000TEU(20 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단위) 이상 컨테이너선, ④ 65,000m³ 이상 LPG 운반선, ⑤ 60,000m³ 이상 LNG 운반선으로 정의하였다.

13) 2011년 이후 주요 선종의 대형선 발주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에 처음으로 50%를 상회하였다.

14)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파나마운하는 좁은 항로 폭으로 5,000TEU 미만의 컨테이너선(panamax)만 통행 가능하였으나, 2016년 15,000TEU 미만의 선박(neo-panamax)까지 지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표 2. 선박규모별 컨테이너선 물류비용

	4,000TEU	6,000TEU	10,000TEU
연료비	4,284	5,722	7,269
항비 ¹⁾	2,000	2,700	3,000
인건비, 보험료 등	2,975	3,400	4,225
합계	9,259	11,822	14,494
단위당 물류비용	2.32	1.97	1.45

주: 1) Port Charge, 선박의 입출항 및 계류에 필요한 비용
자료: 박태원(2003)

표 3. 선박용 석유가격(싱가포르 거래 기준)

	17년말	18년말	19.8월말
고유황유 ¹⁾ (A)	391.0	357.0	437.0
저유황유 ²⁾ (B)	586.0	505.0	575.0
B/A)	1.50	1.41	1.32

주: 1) IFO380
2) MGO(Marine Gas Oil)
자료: Ship&Bu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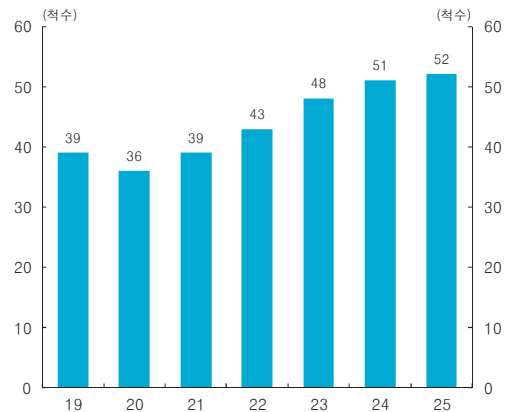
3. 선박 환경규제 강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선박 관련 해상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선박 평형수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장착이 의무화¹⁵⁾ 되었으며, 선박연료 배출가스 규제¹⁶⁾도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와 EU는 각각 관할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수 파악하여 향후 선박 환경규제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다.

환경규제 강화는 선주들의 기존 선박 유지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선박 규모에 따라 평형수처리장치의 개조설치에 적당 약 50만~200만달러가 소요되며, 오염물질 배출 축소를 위한 탈황장치(Scrubber) 장착, 고급 연료인 저(低)유황유(Marine Gas Oil) 사용, LNG 엔진 개조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선주들은 기존 노후 선박을 폐선하고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고 있다. 환경규제 관련 설비가 장착된 신규 선박 건조는 기존 선박을 개조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데다, 선박연료로서 LNG는 기존 연료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강화된 환경규제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림 16. LNG 추진선 발주량 전망치



자료: Clarksons, 조용호(2018)에서 재인용

- 15) 선박 운항의 안정성을 위해 출발지 해역에서 선내에 주입하는 해수(평형수)를 도착지 해역에서 배출할 때 초래할 수 있는 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선박에 대해서는 2017년 9월부터,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2019년 9월부터 선박 평형수처리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 16) 황산화물(SOX) 등 선박연료 배출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에 포함된 황 함유 비중 허용제한을 현재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강화하였다.
- 17) LNG 추진선의 경우 높은 선가가 단점으로 지목되나, 향후 기술 발전 업체 간 수주경쟁에 따라 일반 선박과의 가격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Ⅳ. 울산·전남지역 조선업의 문제점

1. 선박기자재산업 기술 개발 미흡

최근 국내 선박기자재산업은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전반적으로 향상¹⁸⁾되었으나 울산·전남지역의 경우 일부 핵심기자재에 대한 기술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박기자재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전장품의 경우 주로 부산지역에 업체가 집중된 반면 울산·전남지역은 블록, 철구조물 생산 관련 등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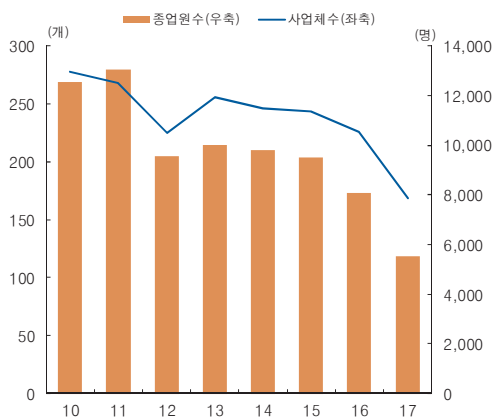
표 4. 선박기자재 유형 분류

구분	선	체	의	장	기	관	전기전장
밀집지역	경남(거제), 울산, 전남·북	경남(김해), 부산	경남(창원)	부산			
세부품목	블록, 철구조물	선실, 배관, 펜스	엔진, 발전기	배선, 레이더			
특성	낮은 기술수준 높은 인건비	다품종, 업체수 많음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적합	기술 및 인력 수준 높음			

자료: 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울산·전남지역 대형 조선업체들은 기관(엔진)·전기전장품 등 핵심 선박기자재들을 부산 등 타 지역이나 노르웨이, 일본, 독일 등지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7. 선박기자재업체수¹⁾ 및 종업원수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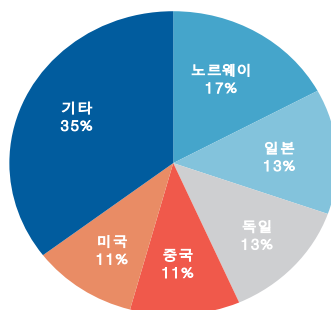


주: 1) 선박 구성부분품을 생산하는 업체

2) 전국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8. 울산·전남지역 국가별 선박기자재¹⁾ 수입 비중²⁾



주: 1)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MM 7463), 선박용 부품(MM 7464) 누계

2) 2010-18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한 울산·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선박기자재 업체는 조선 분야의 유망사업인 스마트선박 및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력이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항해·통신·제어 등 스마트선박의 핵심부분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기술력은 노르웨이 등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선도하고 있

18) 2015년 기준 국내 선박의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2005년(46.1%) 대비 큰 폭 상승한 70.9%에 이르렀다.

다. LNG 추진선 관련 선박기자재 시장도 최근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기술경쟁력을 갖춘 유럽 업체들의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¹⁹⁾

참고

스마트선박

스마트선박(Smart Ship)은 선박에 내장된 자동화 시스템, 체계화된 모니터링 및 운영 시스템, 원격지와의 데이터 통신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춘 선박으로 정의된다. 스마트선박은 부분적인 원격 제어 및 자동화를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율무인운항을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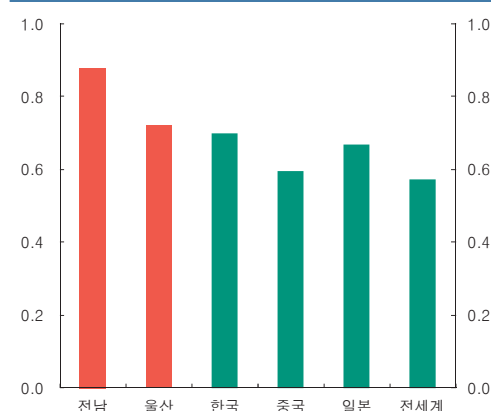
최근 스마트선박이 부상한 배경에는 기술 발전, 고용구조 변화, 규제 강화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정보처리·통신·제어 등 고도화된 디지털기술이 전통 제조업인 조선업과 본격적으로 융합되고 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기인한 선원의 노동공급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선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운항 자동화를 통한 연비 고효율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스마트선박이 본격화되면 선원 등 전통적인 일자리는 감소하겠으나 스마트선박 개발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서비스 인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 항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면, 인건비, 연료비 뿐만 아니라 인적 오류(Human Error)에 의한 안전사고 등에 따른 잠재적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외수요 변동에 취약한 구조

울산·전남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조선업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해외 선박수요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울산과 전남 지역 신규수주량의 변동성(변이계수 기준, 각각 0.72, 0.88)은 경쟁국인 중국(0.59) 및 일본(0.57)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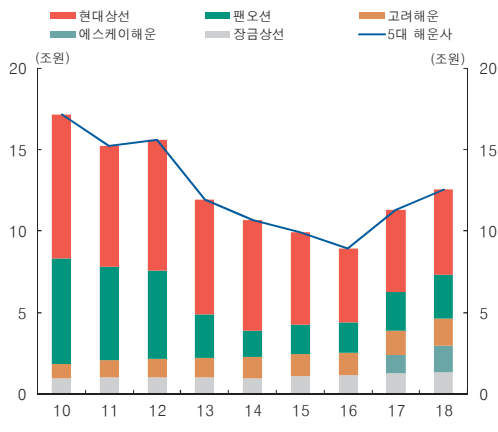
그림 19. 지역별 신규수주량 변동성¹⁾



주: 1) 2007.1/4-2019.1/4분기 중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
자료: Clarksons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시산

이러한 현상은 전방산업인 해운업 규모 축소²⁰⁾ 등으로 인해 국내 업체로부터 선박을 수주하는 비중이 낮은 데 주로 기인한다. 2018년중 국내 5대 해운사의 매출액은 12.5조원으로 2010년(17.2조원)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선박 신규수주량중 자국 발주 비중은 19.1%로 경쟁국(일본 57.3%, 중국 30.1%)을 크게 밑돌고 있다.

19) LNG 추진선을 비롯한 친환경 선박기자재의 국산화율은 60%대에 그쳐 일반 선박의 국산화율(90%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KOTRA, 2019).

그림 20. 국내 주요 해운사¹⁾ 매출액²⁾ 추이

주: 1) 2010~18년 기간(에스케이해운은 2017~18년)중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 상위 5개 해상 운송업 종사기업 기준

2)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료: KISVALUE

표 5. 지배선대¹⁾ 선복량 상위 8개 국가

	2010년	2014년	2018년
1위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
2위	일본	일본	일본
3위	중국	중국	중국
4위	독일	독일	독일
5위	한국	한국	싱가포르
6위	미국	노르웨이	홍콩
7위	노르웨이	미국	한국
8위	홍콩	싱가포르	미국

주: 1) 국적선사가 소유한 국적선박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적 선박을 포괄하는 해운력 측정 개념

자료: UNCTAD,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10, 2014,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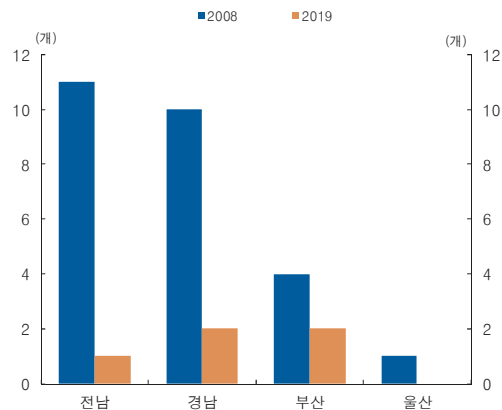
또한 최근 신규수주 내역을 보면 발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LNG 운반선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²¹⁾ 이에 따라 향후 LNG 시황이 둔화될 경

우 울산·전남지역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 생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중형 선박²²⁾ 시장²³⁾ 부진

2010년 이후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중형 조선사가 운영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였다. 울산, 전남지역 중형 조선사는 2000년대 조선업 호황 당시 10여개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구조조정으로 현재 운영중인 조선사는 전남 해남군에 소재한 대한조선이 유일하다.

그림 21. 지역별 중형 조선사수



자료: Clarksons, 박종환 외(2018)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중형 조선사들도 금융여건 위축,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신규수주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우선, 금융기관이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²⁴⁾ 발

20)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동 선사가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총량, 톤수 기준)의 세계점유율 순위는 한진 해운 파산(2017년)을 전후로 하락(5위 → 7위)한 반면 주요 경쟁국인 일본(2위)과 중국(3위)은 순위를 유지하였다.

21) LNG 운반선의 글로벌 발주량 변이계수(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수치, 동 계수가 낮을수록 평균치 가까이에 분포는 1.05(1996.1/4분기~2019.2/4분기 기준)로 벌크선(0.96), 컨테이너선(0.87), 유조선(0.70)에 비해서 높다.

22)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자료를 참고하여 벌크선 10,000~200,000DWT 미만, 탱커 10,000~120,000DWT 미만, 컨테이너 1,000~6,000TEU 미만, LPG선 5,000~65,000m³ 미만 등 4개 선종으로만 정의하였다.

23) 중형 선박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나 2018년 글로벌 선박발주량에서 중형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여전히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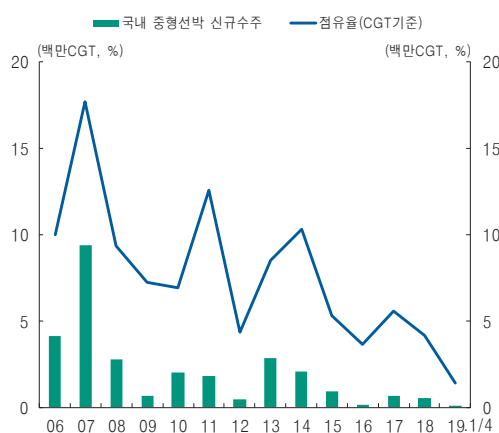
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수주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주력 선종인 유조선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낮은 선가로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중형 선박 신규수주량 점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1/4분기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6. 규모별 신규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액

연 도	대 형 사	증 건 사
2013	14.1	3.7
2014	12.2	4.1
2015	12.7	2.8
2016	2.8	0.6

자료: 금융위원회

그림 22. 국내 중형조선사의 중형 선박 신규수주 및 점유율¹⁾ 추이



주: 1) Clarksons 데이터를 근거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재작성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V. 울산·전남지역 조선업 발전전략

최근 울산 및 전남지역 조선업 업황은 완만하
나마 회복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조선업 시
황 개선보다는 지역 주요 조선업체들의 개별
경쟁력 우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²⁵⁾

그러나 선박기자재 관련 기술개발 미흡, 해외
수요 충격에 취약한 구조, 중형 선박 시장 부
진 등은 향후 지역 조선업의 지속 성장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에 따른 신규수주 감소 등 하방리스크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LNG 운반선 수요 증가, 환
경규제 강화 등 글로벌 조선업 변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의 지역 조선업 회복 및 경쟁력 확대가 향
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발전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 선박기자재 관련 기술력 강화

대형 조선업체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박 소
재·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분업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
분간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평형수처리장치,
LNG 기자재 등 특정 기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기자재
시장을 선점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²⁶⁾

- 24) 조선업체의 선박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회사가 선박 제작을 의뢰한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25) 조선사별 수주잔량이 모든 조선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과 개별요인에 의해 변동한다는 가정 아래 동적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대상은 2006년 4/4분기 ~ 2019년 1/4분기중 자료가 존재하는 상위 29개 조선사의 수주잔량 시계열 자료이다. 추정결과, 금융위기 이후 울산과 전남지역 조선사의 수주잔량 증가는 공통요인보다는 조선사 개별요인이 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지역 내 주요 조선사들이 고부가가치선 건조 관련 기술력 확보 노력을 지속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6)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15년중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장치시장(3.6조원)에서 49%(1.7조원)를 점유하고 있다. 업

정부와 지자체는 선박기자재 생산업체들의 기술 향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울산·전남지역 내 선박기자재 관련 연구기관을 설립·확대하여 지원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²⁷⁾

2. 해외수요 변동에 대한 취약성 완화

가. 국내 해운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국내 해운업은 후방산업인 조선업과 높은 연계성이 있으므로 국내 해운업체의 선박 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운산업과 조선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²⁸⁾ 정부는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2)’을 통해 선박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향후 해운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신규 해외시장 개척

신규 해외시장 개척으로 선주사의 국적을 다양화하여 특정 국가의 경기 불황에 따른 대규모 수주 감소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북극 에너지 프로젝트²⁹⁾(Arctic II) 추진에 따른 쇄빙 LNG선 발주, 도서지역이 많은 동남아의 중형 부유식 전력 파

워플랜트, 냉동운반선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수주 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 다양한 선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노력으로 수주 변동성이 높은 LNG 운반선에 편중된 구조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선종에서 열위에 있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야드 구축 등을 통한 제조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품질 측면에서는 중국 및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설계유연성을 고도화하여 제품 차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중형 조선사 육성 및 지원 강화

가. 친환경 중형 선박 건조 여건 개선

지역 중형 조선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 중형 선박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우선, LNG 추진선³⁰⁾과 수소연료 추진선 건조 기술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적인 LNG 연료의 경우도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20~30%)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중장기 목표³¹⁾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수소연료 선박에 대한 수요도 부각될 것으로 예

계에서는 2019년 동 처리장치 의무화 이후 시장 규모가 최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 전라남도도는 대전에 위치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전남 분소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2019.4월).

28) 실제로 2018년 현대상선은 23,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140만CGT)을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 3사에 발주(2018년중 국내 조선업 신규수주량의 10.9%)하였으며 이는 국내 조선업 수주 회복의 요인중 하나로 평가된다.

29) 러시아 기단반도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LNG 생산(연간 약 1,830만톤) 사업으로 2019년말까지 최종투자가 확정되어 2023년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30) 정부는 친환경 중형 선박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LNG 추진선 건조역량 확보, LNG 벙커링(LNG 추진선에 연료인 LNG를 공급하는 선박) 확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된다. 따라서 지역내 수소에너지 관련 인프라³²⁾, 차량용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을 수소연료선박 개발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중소조선사 증장기 경쟁력 강화

중소조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선박 개발, 설계능력 제고³³⁾ 등도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조선업체와 중소기업자재 업체 간 기술 전수³⁴⁾ 등을 통해 국내 조선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형 조선사는 이미 스마트선박, 스마트야드 등 혁신기술³⁵⁾ 분야에 있어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첨단기술이 국내 조선업계에 원활히 파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
- 31) 국제해사기구(IMO)는 2018년 72차 MEPC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 32)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2019.1.17일)에 따라 향후 수소에너지 활용과 관련된 기술 및 인프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33)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퇴직 설계인력 재채용을 통해 설계지원 사업단을 구성하여 중소조선사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 34) 경남지역 사례를 보면, 2015년 대우조선해양은 LNG추진선 관련 특허기술을 관내 기업에 이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창원시와 체결하였다.
- 35) 현대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선박의 이중 곡(등굴고 복잡한 곡면) 성형 작업에 로봇을 적용하여 연간 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2018.3월). 또한 업계 최초로 LNG선용 스마트선박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LNG선을 건조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2019.5월).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2018.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2019.
금융위원회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 2017, 금융위원회.
김성국·허윤석	“우리나라 조선업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72권, 2016, 한국무역상무학회.
박종환·양종서·이준범	“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발전전략 연구”, 2018, 한국은행 목포본부.
박태원	“컨테이너선 대형화의 경제성 분석”, 월간 해양수산, 제221호, 200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산업 발전전략”, 2018, 산업통상자원부.
삼성KPMG경제연구원	“해운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Samjong Insight, 제64권, 2019, 삼성KPMG경제연구원.
석종훈·김대진·박유상	“한·중·일 조선산업 경쟁력 비교”, 산은조사월보, 제753호, 2018, KDB산업은행.
양종서	“스마트선박 개발 현황과 과제”, 2018중점보고서, 제3호, 201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LNG선 시황 및 전망”, 2018이슈보고서, 제13호, 201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운·조선업 2018년 동향 및 2019년 전망”, 2019분기보고서, 제1호, 201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이선화	“글로벌 LNG 시장 변화에 따른 기회와 대응”, 산은조사월보, 제753호, 2018, KDB산업은행.
전성범·조동애	“전남·울산지역 조선업 현황 및 발전 방안”, 2017, 한국은행 목포본부·울산본부.
조용호	“LNG추진선 발주 증가와 LNG병커링 사업 전망”, 주간KDB리포트, 제809호, 2018, KDB산업은행.
해양수산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2018, 해양수산부.
황진화·안영균	“해운-조선, 상생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KMI동향분석, 제37권,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TRA	『글로벌 친환경 선박기자재 시장동향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2019, KOTRA.

Jorgenson, J. (2016) Autonomous Vessels: ABS' classification Perspective, American Bureau of Shipping.

Lopes, H. and West, M. (2004) "Bayesian model assessment in factor analysis", *Statistica Sinica*, Vol.14(No.1), pp.41~67.

2.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¹⁾

전북본부 김수진 과장, 조현명 조사역

요약

전북지역 관광객은 2017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본고에서는 전북지역 관광 현황 및 특징, 관광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 의향 결정요인 등을 분석하고,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우선 전북지역의 관광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가을에, 자연풍경 감상과 먹거리를 체험하는 관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기간별로는 1일(당일치기) 여행의 비중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한편 전북지역 관광객이 작성한 후기에 나타난 단어를 분석한 결과,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한옥마을’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연, 음식, 문화유산 등과 관련된 단어들도 자주 등장하였다. 또한 관광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 의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자연경관, 음식식당, 관광안내 및 관광지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지역 관광객의 전북지역 재방문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향후 전북지역의 관광정책은 지역의 자연경관, 음식, 문화유산 등이 지닌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체험활동 등 놀거리의 부족, 관광지 혼잡 등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연경관의 체험방식을 다양화하고 문화유산과 가족여행을 결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지역 내 관광기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I.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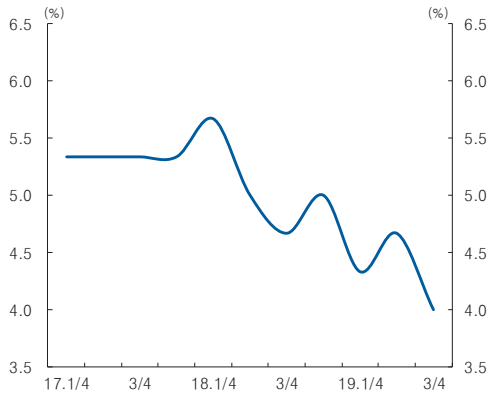
지역 관광산업은 근로시간 단축, 여가 중시문화 확산 등으로 국내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하나로 적극 육성해 오고 있다. 전북지역도 그동안 지역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수를 늘려왔다.

1)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집필자 개인의견임을 밝힙니다. 분석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김수진 과장 sujini@bok.or.kr, 조현명 조사역 hyeunmyeong@bok.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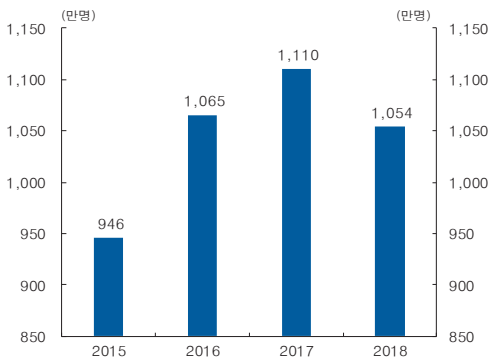
하지만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²⁾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전북지역 여행 응답 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수도 감소로 전환되었다.

그림 1. 전북지역 여행 응답 비중¹⁾



주: 1) 최근 여행지가 전북이라는 응답의 비중
2) 2019년 3/4분기는 7-8월 기준.
자료: 컨슈머인사이트

그림 2. 전주 한옥마을 방문객



자료: 전주시청

이에 본고에서는 전북지역 관광 현황 및 특징, 타지역 거주 관광객의 만족도와 함께 전북지역 재방문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향후 전북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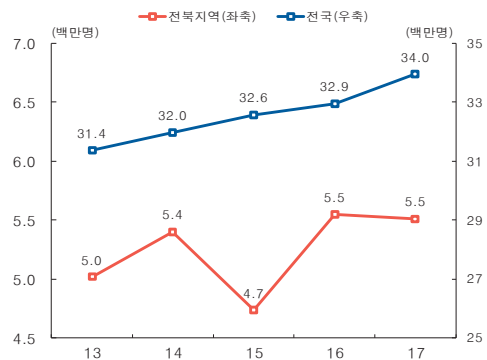
II. 관광 현황 및 특징

1. 관광객수 및 사업 현황

(관광객수³⁾ 추이)

전북지역을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수는 2013년 502만명에서 2017년 551만명으로 연평균 2.4% 증가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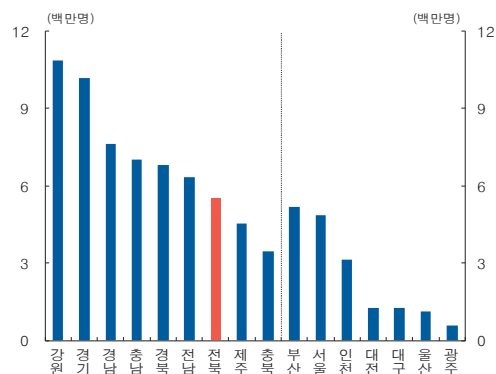
그림 3. 국내 관광객수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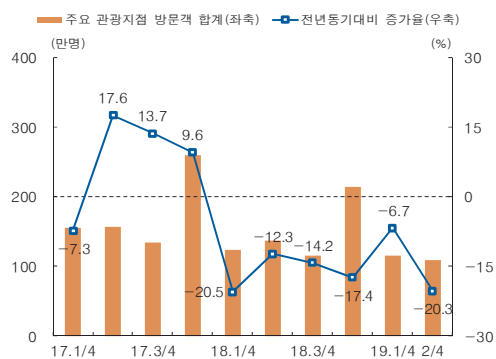
타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수와 비교하면 2017년 전북지역은 16개 광역지자체중 7위 수준이다.

- 2) 시장조사업체인 '컨슈머인사이트'는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주례 여행 형태 및 계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3) 타지역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도 포함한다. 분석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통계 시계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표본이 확대된 2013년 이후 통계를 이용하였다(최근 통계는 2017년 기준).
- 4) 국내 전체 관광객수는 2013년 3,140만명에서 2017년 3,400만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하였다.

그림 4. 지자체별 내국인 관광객수¹⁾

주: 1) 1회 여행시 여러 시도를 방문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관광객은 중복 집계되었음에 유의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

다만 2018년 이후로는 전북지역 관광객 유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역내 주요 관광지 5개소(전주 경기전, 진안 마이산, 무주리조트, 순창 강천산, 고창 선운산)의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16.3% 감소한 데 이어 2019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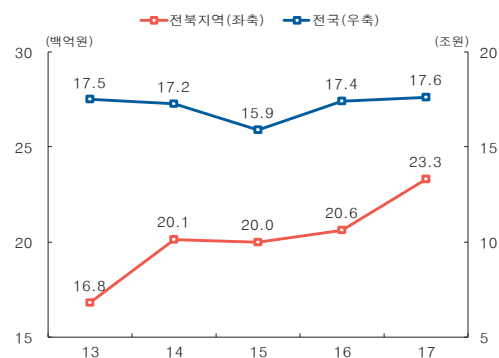
그림 5. 전북지역 주요 관광지¹⁾ 방문객수

주: 1) 5개 주요 관광지(전주 경기전, 진안 마이산, 무주리조트, 순창 강천산, 고창 선운산) 기준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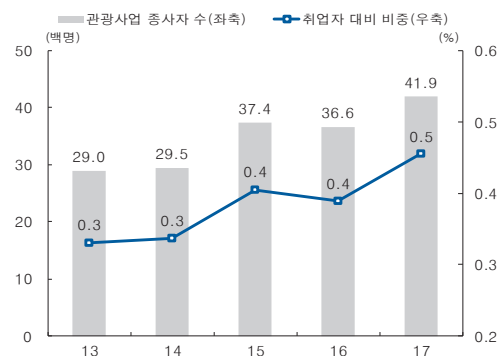
전북지역 관광사업⁵⁾(여행업 제외, 이하 같음)은 2017년까지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였다. 매출액은 2013년 1,681억원에서 2017년 2,329억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내 전체 매출 증가율(0.2%)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전북지역의 관광사업 종사자수는 연평균 9.7% 증가하여 2017년에 약 4,200명⁶⁾을 기록하였다.

그림 6. 관광사업 연매출액 추이



자료: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림 7. 전북지역 관광사업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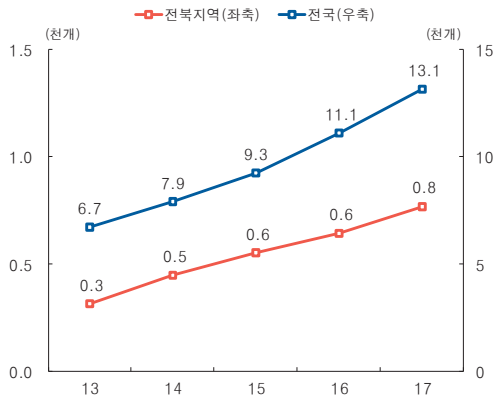


자료: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지역 관광사업과 연관이 적은 여행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6) 2017년 기준 전북지역 관광사업 종사자는 지역 전체 취업자의 0.5%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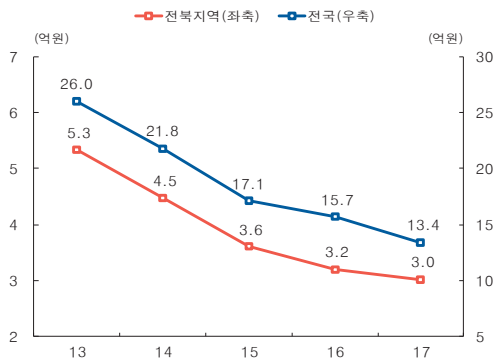
그러나 영세 신규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업체당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관광사업 영위 사업체수는 2017년 약 770개로 2013년 이후 연평균 25.0%⁷⁾ 증가하였다. 반면 업체당 매출액은 2013년 5.3억원에서 2017년 3.0억원으로, 업체당 종사자수는 9.2명에서 5.4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8. 관광사업 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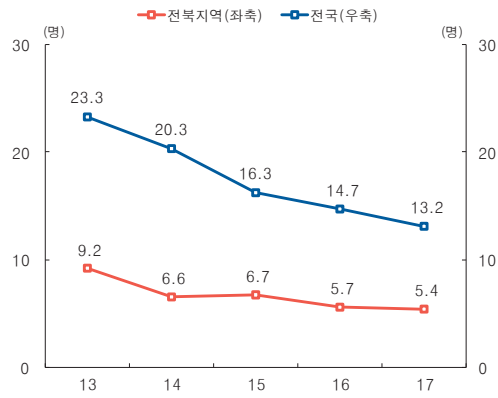
자료: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림 9. 관광사업 업체당 매출액



자료: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그림 10. 관광사업 업체당 종사자수



자료: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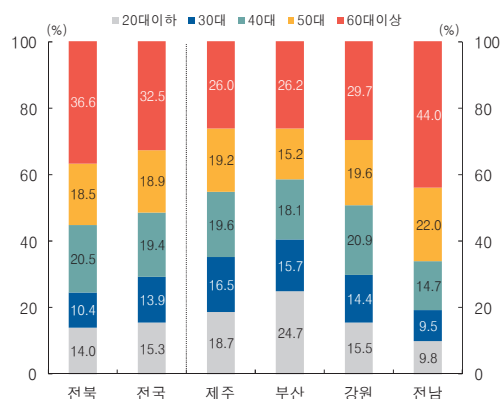
2. 관광 특징

(관광객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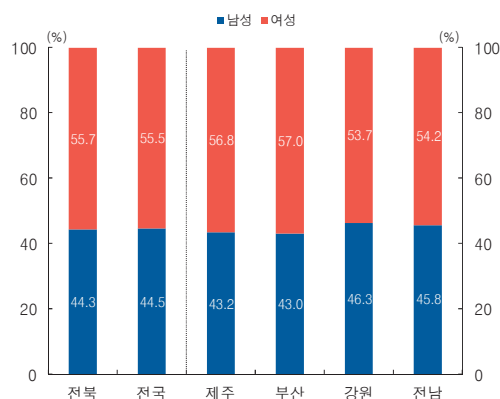
2016~2017년중 전북지역 관광객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60대 이상 관광객 비중(36.6%)이 전국 평균(32.5%)과 제주(26.0%), 및 부산(26.2%) 등 주요 관광지보다 높았다. 여성 관광객 비중(55.7%)은 전국 평균(55.5%)과 비슷한 수준이나 제주(56.8%) 및 부산(57.0%)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7) 동 기간중 국내 전체로는 연평균 18.3% 증가하였다.

8) 전북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 관광객만을 의미한다.

그림 11. 전북지역 관광객의 연령대별 비중¹⁾

주: 1) 2016-2017년 기준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

그림 12. 전북지역 관광객의 성별 비중¹⁾

주: 1) 2016-2017년 기준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

전북지역을 방문한 타지역 관광객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대전·충남(25.1%), 광주·전남(22.3%) 등 인접지역 거주자 비중이 거의 절반(47.5%)을 차지하였다. 한편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자가 전북지역을 여행한 비중은 29.0%로 이들이 제주(54.0%) 등 주요 관광지나 광주전남(33.4%)을 찾은 비중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 지역별 타지역 관광객의 거주지역¹⁾

	서울	경기	충남 대전	전남 광주	경남 울산	기타	합계
전북	9.2	19.8	25.1	22.3	7.8	15.8	100
제주	22.4	31.6	6.0	8.7	7.9	23.4	100
부산	13.4	19.6	5.4	9.3	25.7	26.7 ²⁾	100
강원	31.2	40.7	5.4	2.2	3.7	16.8	100
전남 광주	14.9	18.5	11.1	-	13.4	42.1 ³⁾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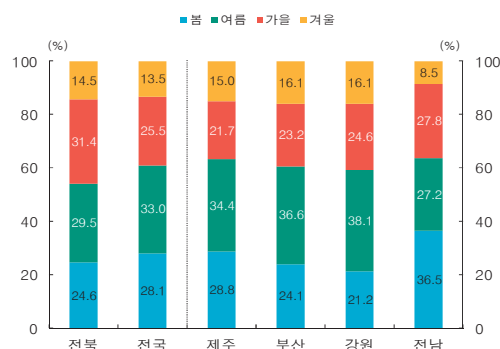
주: 1) 2016-2017년 기준 2) 경북·대구지역 거주자 15.5% 등

3) 전북지역 거주자가 22.3%로 가장 높은 수준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

(관광 시기 및 기간)

관광객이 전북지역을 가장 많이 찾은 계절은 가을(31.4%)이었으며 다음으로 여름(29.5%), 봄(24.6%), 겨울(1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관광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정읍 내장산, 순창 강천산 등이 단풍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⁹⁾

그림 13. 전북지역 관광객의 계절별 비중¹⁰⁾

주: 1) 2016-2017년 기준

2)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월-2월)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

전북지역 관광객의 여행기간은 1일 여행(당일치기) 비중이 63.4%로 전국 평균(53.2%)을 크게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55.7%)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9) 정읍, 순창 및 고창의 가을철 관광객 비중은 각각 63.5%, 57.8% 및 42.0%로 전국 평균(25.5%)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림 14. 전북지역 관광객의 여행 일수¹⁾

그림 17. 볼거리 관련 주요 추천 단어¹⁾



주: 1) 관광후기에 사용된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조정
자료: '컨슈머인사이트'가 수집한 '관광객 리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자체 분석

그림 19. 쉴거리 관련 주요 추천 단어¹⁾



주: 1) 관광후기에 사용된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조정
자료: '컨슈머인사이트'가 수집한 '관광객 리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자체 분석

그림 18. 먹거리 관련 주요 추천 단어¹⁾



주: 1) 관광후기에 사용된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조정
자료: '컨슈머인사이트'가 수집한 '관광객 리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자체 분석

한편 놀거리 및 살거리와 연관된 단어는 먹거리, 볼거리 및 쉴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놀거리로는 '한옥마을', '한복체험', '축제', '테마파크'가, 살거리로는 '고추장', '초코파이', '농산물' 등 음식물에 집중되었다.

그림 20. 놀거리 관련 주요 추천 단어¹⁾



주: 1) 관광후기에 사용된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조정
자료: '컨슈머인사이트'가 수집한 '관광객 리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자체 분석

그림 21. 살거리 관련 주요 추천 단어¹⁾



주: 1) 관광후기에 사용된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 단어의 크기를 조정
자료: '컨슈머인사이트'가 수집한 '관광객 리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자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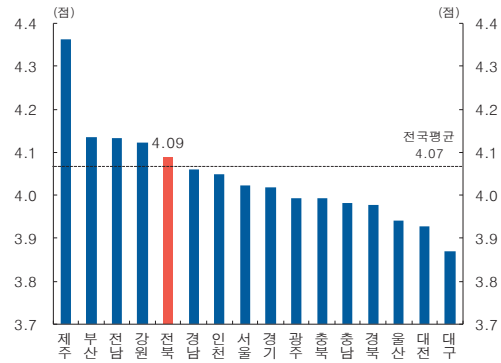
요약하면 먹거리, 볼거리 및 쉴거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단어가 등장한 반면 놀거리 및 살거리와 관련된 단어수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전북 관광지에서는 체험활동 콘텐츠가 부족하고 관광객의 구매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Ⅲ. 관광객 만족도 및 재방문 의향 결정요인 분석

1. 관광객¹²⁾ 만족도

2016~2017년중 전북지역을 방문한 타지역 거주 관광객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반적 만족도(4.09점)는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였는데 이는 제주, 부산, 전남, 강원에 이어 전국 5위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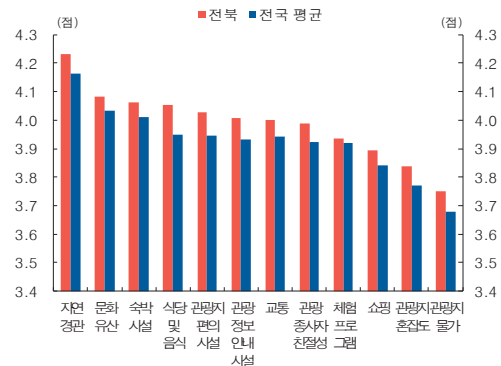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별 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¹²⁾



주: 1) 2016~2017년 기준
2) 만족도 단순평균(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

관광객 만족도를 12개 세부평가 항목¹³⁾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특히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관광지 물가 및 혼잡도, 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23. 평가항목별 전북지역 관광 만족도¹²⁾



주: 1) 2016~2017년 기준
2) 만족도 단순평균(1점: 매우 불만족, 2점: 불만족, 3점: 보통, 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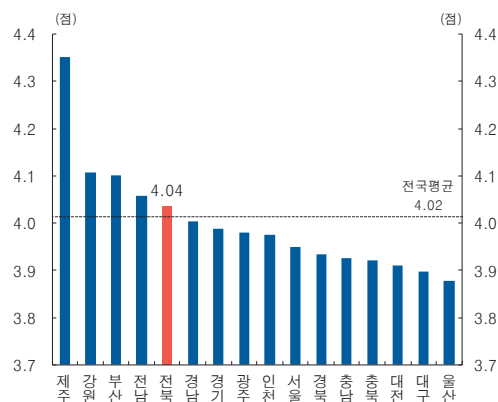
12) 전북지역을 제외한 타지역 거주 관광객만을 의미한다.

13) 관광지의 자연경관, 문화유산, 교통, 숙박시설, 식당 및 음식, 쇼핑,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 편의시설, 관광종사자 친절성, 체험 프로그램, 물가, 혼잡도로 분류하였다.

2. 재방문 의향 및 결정요인 분석

2016~2017년중 전북지역을 방문한 타지역 거주 관광객의 재방문 의향(4.04점)은 전국 평균(4.02)을 소폭 상회하였다.

그림 24. 지역별 관광객의 재방문 의향¹²⁾



주: 1) 2016~2017년 기준

2) 재방문 의향 단순평균(1점: 매우 낮음, 2점: 낮음, 3점: 보통, 4점: 높음, 5점: 매우 높음)

자료: 국민여행 실태조사

(분석 방법¹⁴⁾)

전북지역 재방문 의향의 주요 결정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로짓(logit)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해 보았다.¹⁵⁾

$$Y = \alpha + \sum_{i=1}^9 \beta_i X_i + Dummy + \epsilon$$

종속변수인 Y는 재방문 의향이 있을 경우 '1', 없을 경우에는 '0'인 이항 변수이다.¹⁶⁾ 설명변수

X는 자연경관, 문화유산, 교통, 식당·음식, 관광안내, 편의시설, 관광종사자 친절성, 관광지 물가 및 혼잡도 등 9개 평가항목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된다. 한편 관광객의 성(性), 연령대, 여행 계절 등에 따라 재방문 의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들 변수들을 Dummy 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실증분석 결과, 관광객의 전북지역 재방문 의향에는 자연경관, 식당·음식, 관광지 편의시설, 관광안내 등 4개 항목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전북지역 재방문 의향 결정요인¹⁾

	추정계수	Odds ratio ²⁾
자연경관	0.591***	1.805***
문화유산	0.068	1.071
교통	0.105	1.110
식당 및 음식	0.533***	1.704***
관광안내	0.606***	1.834***
관광지 편의시설	0.737***	2.089***
관광종사자 친절성	0.230	1.258
관광지 물가	0.253	1.288
관광지 혼잡도	0.158	1.172

주: 1) ***는 추정계수가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설명변수 1단위 증가시 Odds가 몇 배 증가하는지를 나타냄 (Odds=P/(1-P), 단 P는 Y=1일 확률)

자료: 자체 분석

14)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6~2017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전북지역을 방문한 타지역 거주 관광객이 응답한 1,188건의 답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5)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관대하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재방문 의향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고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16) 설문조사 응답자의 긍정적 편의(bias)를 보정하기 위해 5점(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재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관광객 연령층을 '29세 이하', '30~40대' 및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재방문 의향을 분석해 보면, '50세 이상'에서는 전 연령대 대상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자연경관, 식당·음식, 관광지 편의시설, 관광안내 등이 재방문 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9세 이하'에서는 식당·음식 및 관광지 물가가, '30~40대'에서는 자연경관 및 관광안내가 재방문 의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령대별 전북지역 재방문 의향 결정요인¹⁾

	29세 이하	30~40대	50세 이상
자연경관	-0.435	0.964**	0.554**
문화유산	-0.083	0.481	0.045
교통	-0.073	0.428	0.069
식당 및 음식	1.325**	0.347	0.468*
관광안내	0.107	1.423***	0.608**
관광지 편의시설	-0.324	-0.046	1.072***
관광종사자 친절성	0.122	0.312	0.331
관광지 물가	1.217**	0.161	0.031
관광지 혼잡도	-0.149	0.635	0.193

주: 1) ***, **, *는 추정계수가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자체 분석

IV. 시사점

상기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북지역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으로는 수려한 자연경관, 음식, 문화유산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체험활동 등 놀거리의 부족, 일부 관광지의 혼잡함 등은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지역에 비해 1일(당일치기) 여행객 비중이 크고 20~30대 젊은층 관광객 비중이 낮은 점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로 보인다.

향후 전북지역의 관광정책은 이러한 강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경관의 체험방식 다양화 및 관광자원의 품질 유지·개선)

전북지역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인 자연경관의 체험방식을 다양화하고, 음식자원의 품질경쟁력도 제고해 나가야 하겠다.

순창군이 강천산에 조성한 '고운 모래길'은 맨발 산행을 테마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지역민의 관광객에 대한 친절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전북이 '맛의 고장'이라는 고유의 강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식 품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음식 메뉴도 꾸준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과 가족여행을 결합한 관광자원 개발)

전북지역 관광객의 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가 타지역보다 높은 점¹⁷⁾을 고려할 때, 자녀들의 역사교육에 유용한 문화유산과 캠핑 등 체험활동을 결합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가족 단위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내장산 캠핑장,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웅포캠핑장을 잇는 관광코스의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17) 2016~2017년중 전북지역 관광객의 문화유산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12개 권역중 3위를 기록하였다.

(연계관광 활성화)

전북지역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주요 관광지들을 연계하여 권역화한 후 필요한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2개 이상의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원을 연계하여 ‘전통문화 관광권역’을 조성하고 이들 관광지를 운행하는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계관광의 편리함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간다면 체류형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젊은층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20~30대 관광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20~30대 관광객의 방문지는 주로 전주 한옥마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주 이외 지역의 방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우수한 자연 경관은 전북 지역에서 경쟁력이 높은 자원이지만 젊은층을 지역으로 이끌 유인으로는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테마 위주의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문헌

- 강호석·배석진 "광주전남지역 관광 현황 및 시사점", 2017,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김지학 "국민의 여행지 선택 이유와 만족도 분석 연구", 201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형오·장재협·김수지 "국가 관광정책과 전라북도 토탈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 2018, 전북연구원.
- 김형오·김동영·장세길 "전라북도 관광체류인구 증대 방안", 2018, 전북연구원.
- 류시영·유선욱·문제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광주·전남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2018,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류시영·이채령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강원지역 관광산업 발전방안 연구", 2016, 한국은행 강원본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 2017, 문화체육관광부.
- _____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2018, 문화체육관광부.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환경 분석", 2018,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 이수향·채민석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전북 관광·MICE 활성화 방안", 2016, 한국은행 전북본부.
- 전라북도 "이야기가 있는 전북테마여행", 2019, 전라북도.
- 전북연구원 「2013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2013, 전북연구원.
- _____ 「2015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2015, 전북연구원.
- _____ 「2016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 2017, 전북연구원.
- 전주시청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사상 최고치 기록", 2018, 전주시청.
- _____ "전주한옥마을 여행객 3년 연속 1000만명 넘어", 2019, 전주시청.
- 행정자치부 "지역관광 활성화-정부 3.0 빅데이터 성과공유 대회", 2015, 행정자치부.
- 홍수성·안소희 "제주지역 관광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2018, 한국은행 제주본부.

OECD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6", 2016, OECD.

V

지표로 보는 지역경제

수도권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생산 ¹⁾	4.6	3.4	-6.7	0.7 ^P	-2.2	5.7	-1.5 ^P	-1.0 ^P	..
서비스업 생산 ²⁾	1.8	3.0	0.8	0.9 ^P	..	..	..	..	..
비제조업 매출BSI ³⁾	76	76	73	73	74	73	73	71	70
소매판매액지수 ²⁾	3.5	2.0	0.9	1.4 ^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0.8	-3.6	-0.2	-0.2 ^P	-3.2	2.0	0.4 ^P	-5.6 ^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³⁾	95	94	94	95	99	93	93	88	93
건설업 업황BSI ³⁾	82	65	55	59	60	66	52	66	62
수출 ⁴⁾	8.1	10.2	-9.1	-14.6	-7.7	-14.6	-21.1	-16.4	-22.0
취업지수 증가 ⁵⁾⁶⁾	-0.0	0.4	-0.1	17.1	10.4	17.5	23.3	21.3	27.1
(비농림어업)	(0.4)	(0.5)	(-1.0)	(16.0)	(10.7)	(15.6)	(21.8)	(19.2)	(24.1)
고용률 ⁶⁾	61.3	61.1	60.1	61.6	61.1	61.7	62.0	61.7	61.6
소비자물가	1.5	1.7	0.6	0.7	0.6	0.7	0.8	0.7	0.1
주택매매가격 ⁷⁾	1.0	0.7	-0.5	-0.5	-0.2	-0.2	-0.1	-0.0	0.0
주택전세가격 ⁷⁾	-0.3	-0.2	-0.9	-0.7	-0.3	-0.2	-0.2	-0.1	-0.0
기업자금사정BSI ³⁾	76	77	78	80	78	79	82	76	78

주: 1) 원계열(2015=100) 기준 2) 불변지수(2015=100) 기준 3) 서울지역 제외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7) 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동남권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생산 ¹⁾	-2.6	7.2	1.2	2.5 ^P	3.9	2.3	1.2 ^P	5.5 ^P	..
서비스업 생산 ²⁾	-0.0	2.0	0.6	0.2 ^P	..	..	..	..	..
비제조업 매출BSI ³⁾	68	65	66	67	67	69	65	63	64
컨테이너 처리량	6.0	8.1	4.4	1.7	3.5	1.0	0.7	2.0	..
소매판매액지수 ²⁾	-1.4	-0.8	-2.3	-0.7 ^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0.4	-6.5	0.5	-1.3 ^P	-4.2	0.9	-1.0 ^P	-7.8 ^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³⁾	90	92	90	90	89	90	91	93	94
건설업 업황BSI ³⁾	42	42	54	57	54	56	61	57	54
수출 ⁴⁾	-19.2	10.3	-3.7	8.3	10.9	9.6	4.1	-2.3	2.7
취업지수 증가 ⁵⁾⁶⁾	-1.7	0.0	0.5	-0.6	1.4	-0.4	-2.8	2.2	5.5
(비농림어업)	(-3.3)	(-1.8)	(0.5)	(1.0)	(2.6)	(1.0)	(-0.6)	(3.0)	(6.7)
고용률 ⁶⁾	58.7	58.9	57.9	58.9	58.5	59.1	59.2	59.4	59.2
소비자물가	1.6	1.8	0.5	0.5	0.4	0.5	0.5	0.5	-0.3
주택매매가격 ⁷⁾	-1.2	-1.0	-0.8	-0.9	-0.3	-0.3	-0.3	-0.3	-0.3
주택전세가격 ⁷⁾	-1.3	-1.1	-0.9	-1.2	-0.4	-0.4	-0.4	-0.4	-0.4
기업자금사정BSI ³⁾	71	71	70	75	74	74	77	75	73

주: 1) 원계열(2015=100) 기준 2) 불변지수(2015=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7) 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충청권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생산 ¹⁾	-1.6	3.6	-4.1	-0.6 ^P	-0.5	1.8	-3.3 ^P	0.2 ^P	..
서비스업 생산 ²⁾	1.1	2.6	1.3	0.5 ^P	..	..	..	..	..
비제조업 매출BSI ³⁾	76	76	74	71	71	72	70	70	70
소매판매액지수 ²⁾	1.3	-1.1	-1.1	-1.5 ^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0.2	-4.7	1.9	-1.7 ^P	-5.2	1.7	-1.9 ^P	-6.8 ^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³⁾	95	96	94	93	90	94	95	92	94
건설업 업황BSI ³⁾	59	66	70	72	64	74	77	73	79
수출 ⁴⁾	17.2	4.1	-13.7	-10.5	-0.7	-15.4	-14.6	-9.1	-14.0
취업자수 증가 ⁵⁾⁶⁾	7.5	5.8	8.6	4.0	3.7	5.2	3.2	2.5	4.5
(비농림어업)	(7.2)	(5.9)	(8.1)	(4.9)	(5.4)	(5.8)	(3.5)	(2.7)	(4.7)
고용률 ⁶⁾	63.3	62.4	60.7	62.9	62.4	63.2	63.0	63.2	63.2
소비자물가	1.6	1.9	0.5	0.3	0.2	0.4	0.4	0.3	-0.3
주택매매가격 ⁷⁾	-0.2	0.1	-0.4	-0.5	-0.2	-0.1	-0.1	-0.1	0.0
주택전세가격 ⁷⁾	-0.7	-0.1	-0.4	-0.7	-0.3	-0.2	-0.2	-0.1	-0.1
기업자금사정BSI ³⁾	78	76	75	76	74	76	79	76	78

주: 1) 원계열(2015=100) 기준 2) 불변지수(2015=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7) 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호남권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생산 ¹⁾	-6.5	0.0	-2.9	-3.2 ^P	0.6	-2.8	-7.2 ^P	0.5 ^P	..
서비스업 생산 ²⁾	0.8	2.1	1.1	1.1 ^P	..	..	..	..	..
비제조업 매출BSI ³⁾	76	75	78	78	79	79	75	73	71
소매판매액지수 ²⁾	0.7	-0.1	-0.8	-1.3 ^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2.9	-7.4	-2.9	-6.2 ^P	-8.8	-3.5	-6.4 ^P	-10.5 ^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³⁾	99	95	92	94	94	92	96	98	92
건설업 업황BSI ³⁾	55	54	58	60	63	58	65	66	61
수출 ⁴⁾	8.0	15.3	-6.9	-11.7	-5.0	-13.7	-16.8	-10.5	-12.8
취업자수 증가 ⁵⁾⁶⁾	-0.5	1.5	3.8	1.4	0.2	1.1	2.9	1.6	3.2
(비농림어업)	(-0.7)	(0.3)	(0.6)	(1.5)	(0.0)	(1.7)	(2.8)	(0.9)	(2.6)
고용률 ⁶⁾	60.5	60.7	59.4	61.0	60.6	61.1	61.3	60.9	60.9
소비자물가	1.6	1.9	0.4	0.6	0.5	0.6	0.6	0.4	-0.1
주택매매가격 ⁷⁾	0.6	1.0	0.2	0.1	0.0	0.0	0.0	-0.0	0.0
주택전세가격 ⁷⁾	0.1	0.2	-0.0	-0.2	-0.0	-0.1	-0.1	-0.1	-0.1
기업자금사정BSI ³⁾	78	77	75	76	77	77	73	80	76

주: 1) 원계열(2015=100) 기준 2) 불변지수(2015=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7) 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대경권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생산 ¹⁾	-6.6	1.4	-2.3	-1.8 ^P	2.9	-2.9	-5.4 ^P	-1.2 ^P	..
서비스업 생산 ²⁾	1.1	1.8	0.9	0.2 ^P	..	..	..	..	..
비제조업 매출BSI ³⁾	71	68	71	72	72	70	74	75	73
소매판매액지수 ²⁾	0.2	-0.5	-2.1	-2.1 ^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2.7	-4.4	0.6	1.7 ^P	-4.3	-0.9	-0.1 ^P	-9.1 ^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³⁾	81	77	85	87	90	85	86	87	81
건설업 업황BSI ³⁾	59	49	49	55	58	52	55	51	46
수출 ⁴⁾	-5.8	-9.3	-8.2	-11.2	-7.3	-12.9	-13.4	-11.6	-10.5
취업자수 증가 ⁵⁾⁶⁾	-2.5	0.6	1.8	-1.3	-2.2	-1.0	-0.8	-1.4	0.5
(비농림어업)	(-6.6)	(-3.5)	(-2.3)	(-3.6)	(-5.1)	(-2.6)	(-3.0)	(-3.7)	(-1.1)
고용률 ⁶⁾	60.6	60.6	58.6	60.2	59.7	60.3	60.6	60.5	60.6
소비자물가	1.8	2.0	0.4	0.9	0.8	1.0	1.0	0.7	-0.0
주택매매가격 ⁷⁾	-0.0	0.3	-0.2	-0.4	-0.2	-0.1	-0.1	-0.1	-0.1
주택전세가격 ⁷⁾	-0.5	-0.4	-0.3	-0.4	-0.1	-0.1	-0.1	-0.1	-0.1
기업자금사정BSI ³⁾	71	73	70	75	70	74	80	75	73

주: 1) 원계열(2015=100) 기준 2) 불변지수(2015=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7) 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강원권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생산 ¹⁾	-10.0	0.7	3.9	1.3 ^P	4.4	1.6	-1.9 ^P	3.0 ^P	..
서비스업 생산 ²⁾	2.4	0.7	-0.8	0.3 ^P	..	..	..	..	..
비제조업 매출BSI ³⁾	75	69	60	64	63	63	66	72	68
소매판매액지수 ²⁾	2.6	0.7	0.1	-2.0 ^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0.1	-9.8	-2.6	-5.6 ^P	-8.0	-3.2	-5.7 ^P	-12.6 ^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³⁾	96	96	97	99	99	96	101	98	96
건설업 업황BSI ³⁾	74	62	47	53	55	42	61	65	59
수출 ⁴⁾	11.6	14.6	7.6	1.4	2.0	1.6	0.6	-0.6	-8.3
취업자수 증가 ⁵⁾⁶⁾	-0.6	0.4	2.3	2.1	2.7	2.4	1.2	3.3	3.1
(비농림어업)	(-0.4)	(0.3)	(2.0)	(2.0)	(2.2)	(2.5)	(1.2)	(2.3)	(2.3)
고용률 ⁶⁾	63.0	61.0	57.7	64.0	63.8	64.5	63.8	65.0	65.3
소비자물가	1.6	2.1	1.0	1.1	1.0	1.2	1.3	1.2	0.5
주택매매가격 ⁷⁾	-0.6	-0.6	-0.6	-0.8	-0.2	-0.4	-0.3	-0.3	-0.4
주택전세가격 ⁷⁾	-0.8	-1.0	-0.8	-1.3	-0.3	-0.6	-0.4	-0.4	-0.5
기업자금사정BSI ³⁾	73	72	67	66	64	67	68	72	73

주: 1) 원계열(2015=100) 기준 2) 불변지수(2015=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7) 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제주권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3/4	4/4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제조업 생산 ¹⁾	1.3	-11.1	14.8	-4.9 ^P	1.8	-1.6	-13.4 ^P	-15.2 ^P	..
서비스업 생산 ²⁾	0.0	1.2	4.1	1.1 ^P	..	..	..	..	..
비제조업 매출BSI ³⁾	68	59	63	80	79	83	79	75	72
농산물 출하액	3.4	0.1	-2.0	-0.2	-13.7	28.6	-10.8	5.9	-0.6
소매판매액지수 ²⁾	9.6	10.3	10.3	7.2 ^P	..	..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²⁾	-4.7	-10.4	-6.0	-10.1 ^P	-11.4	-9.5	-9.6 ^P	-11.8 ^P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³⁾	104	110	103	96	100	89	100	100	100
건설업 업황BSI ³⁾	81	62	56	64	73	76	44	56	48
수출 ⁴⁾	9.9	4.5	-20.3	-30.2	5.2	-27.6	-51.7	-19.8	-16.1
취업자수 증가 ⁵⁾⁶⁾	-0.4	0.1	0.9	1.0	0.9	1.1	1.2	0.6	1.2
(비농림어업)	(-1.1)	(-0.8)	(-0.3)	(0.2)	(0.0)	(0.3)	(0.2)	(-0.0)	(0.3)
고용률 ⁶⁾	68.2	68.9	67.8	68.5	68.1	68.6	68.7	67.5	68.6
소비자물가	1.8	1.6	0.2	0.5	0.3	0.5	0.5	0.5	0.2
주택매매가격 ⁷⁾	0.2	0.4	-0.1	-0.2	-0.0	-0.0	-0.2	-0.3	-0.3
주택전세가격 ⁷⁾	-0.8	-0.5	-0.3	-0.5	-0.2	-0.1	-0.2	-0.4	-0.3
기업자금사정BSI ³⁾	73	72	69	79	76	83	79	76	76
관광객수	-3.1	-1.5	7.6	0.7	-1.0	2.1	1.0	5.9	10.6 ^P
(내국인)	(-6.9)	(-6.8)	(3.0)	(-3.3)	(-5.4)	(-2.5)	(-2.0)	(3.1)	(8.1) ^P
(외국인)	(55.1)	(93.6)	(77.0)	(49.7)	(60.8)	(62.3)	(31.5)	(33.7)	(32.2) ^P

주: 1) 원계열(2015=100) 기준 2) 불변지수(2015=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7) 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자료 목록¹⁾

- 울산지역 고용동향 및 주요특징
울산본부 이상협 조사역(2019/06)
-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 과제
전북본부 김수진 과장, 조현명 조사역(2019/07)
- 경기도 민간 제조업 부문의 과학기술 혁신
융합 분석 - 국가 R&D 사업 참여 경기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가천대학교 황광선 교수, 경기본부 정기영 과장
(2019/06)
- 제주지역 기업 자금조달 여건 및 자금사정 평가
제주본부 이새롬 과장(2019/07)
- 강원도 수출 현황 및 파급효과
강원본부 박신영 과장(2019/06)
- 부산지역 기계산업 거래네트워크와 기업
경영성과
부경대학교 남종석 교수, 부산본부 주옥 과장
(2019/07)
- 강원도 소비의 주요 특징 및 여건 점검
강원본부 김성은 조사역(2019/06)
- 최근 부산경남지역 고용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
부산본부 이영호 과장, 경남본부 이희영 과장
(2019/07)
- 특허자료를 이용한 경기지역 혁신역량 분석
서울대학교 이지홍 교수, 경기본부 최보라 과장
(2019/06)
- 광주전남지역 가계부채 현황 및 시사점
광주전남본부 정서림 과장(2019/07)
- 전남지역 수산업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포본부 이준범 과장, 박선욱 조사역(2019/06)
- 충남지역 수출 결정요인 분석 및 리스크 점검
대전충남본부 김진호 과장, 박성희 조사역
(2019/07)
- 대학생의 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릉본부 김덕형 과장, 박정현 과장(2019/07)
- 대외 교역여건 변화가 광주전남 및
인천지역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광주전남본부 김은우 과장, 인천본부 김준성
과장(2019/07)
- 인천지역 관광산업 현황 및 정책 과제
인천연구원 심진범 선임연구위원, 인천본부
박병국 과장(2019/07)

1)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에서 최근(2019.6-8월) 작성·발간한 조사연구자료 목록입니다. 과거 조사연구자료 목록은 기존 발간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권 바이오산업 현황과 발전방안
대전대학교 김규배 교수,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 충북본부 정승환 과장(2019/07)
- 글로벌 가치사슬(GVCs)로 본 경기도의 산업구조 - G-ICIO 추정과 경기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
경기본부 권태현 부장, 이광한 팀장, 박근형 과장 (2019/07)
-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영남대학교 전인 교수, 윤정현 조교수, 대구경북본부 배정민 조사역(2019/07)
- 충북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전략과 과제
산업연구원 김윤수 연구위원, 김선배 선임연구위원, 충북본부 정준우 과장(2019/07)
- 광주전남지역 서비스업 발전방안 - 업종별 16개 시도의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임상수 조교수, 광주전남본부 배준형 조사역(2019/07)
- 대전·세종·충남지역 가계부채 상황 및 채무상환능력 평가
대전충남본부 강유진 과장(2019/07)
- 울산-전남지역 조선업 현황과 발전전략
울산본부 박현서 과장, 목포본부 임준혁 과장 (2019/07)
- 제주지역 유통업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제주본부 이장욱 차장, 이서현 조사역, 김홍렬 조사역(2019/07)
- 충북경제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충북본부 김광민 과장(2019/07)
- 울산지역 기업의 수출활동 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실증분석
원광대학교 김민정 부교수, 울산본부 이상협 조사역(2019/07)
- 경남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산업연구원 허문구 연구위원, 김윤수 연구위원, 경남본부 진찬일 조사역(2019/07)
- 최근 울산지역 물가 동향
울산본부 김태현 과장, 이상협 조사역(2019/07)
- 대구지역 서비스업 유형, 업종별 동향 분석 및 시사점
대구경북본부 김민정 과장(2019/08)
- 경상남도의 지역금융 현황 및 시사점
경남본부 한대성 과장, 홍준유 조사역, 진찬일 조사역(2019/08)
-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평가 및 발전방안
계명대학교 변재웅 교수, 대구경북본부 이군건 과장(2019/08)

- 재생에너지산업 현황과 전북지역
재생에너지산업 발전 방향
전북본부 박의성 과장(2019/08)

- 국내 휴대폰산업 현황 및 시사점
경기본부 박근형 과장(2019/08)

- 대전충남지역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자금의 조성과 배분을 중심으로
한밭대학교 조복현 교수, 대전충남본부 김수림
과장(2019/08)

- 대구경북지역 여성 경제활동참여 현황 및
시사점
대구경북본부 김민지 과장(2019/08)

- 대구지역 지식집약서비스업 현황 및 시사점
대구경북본부 배정민 조사역(2019/08)

「지역경제보고서」 담당자

부문	담당자			
작성 총괄 · 종합동향 · 이슈 모니터링	지역협력실	박상일 · 민숙홍 · 박종필 · 박세준 · 안희정 · 양정태		
Ⅰ. 최근 지역경제 동향				
1. 수도권	경기본부	박근형	인천본부	이영직
2. 동남권	부산본부	정민수 · 주욱	울산본부	박현서
	경남본부	한대성		
3. 충청권	대전충남본부	김진호 · 안수아	충북본부	김광민
4. 호남권	광주전남본부	정서림	전북본부	이응원
	목포본부	박지섭		
5. 대경권	대구경북본부	김민정 · 김민지	포항본부	박진혁
6. 강원권	강원본부	김성은	강릉본부	김덕형
7. 제주권	제주본부	이서현		
Ⅱ. 현장리포트				
1. 수도권	경기본부	정승기	인천본부	김준성
2. 동남권	부산본부	정민수 · 송효진	울산본부	이승민
	경남본부	임종수		
3. 충청권	대전충남본부	이종찬 · 임미라	충북본부	심연정
4. 호남권	광주전남본부	김은우	전북본부	조현명
	목포본부	이준범		
5. 대경권	대구경북본부	김민정	포항본부	유태경
6. 강원권	강원본부	이규환 · 김성은	강릉본부	김덕형 · 이은국
7. 제주권	제주본부	김홍렬		
Ⅲ. 특별기획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과 미래 도시발전의 모범사례, 불포스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이상민		
Ⅳ. 지역경제 연구				
울산-전남지역 조선업 현황과 발전전략	울산본부	박현서	목포본부	임준혁
전북지역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과제	전북본부	김수진 · 조현명		
Ⅴ. 지표로 보는 지역경제				
<부록>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조사연구자료 목록	각 지역본부			

지역경제보고서

발행인 이주열
편집인 윤상규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태평로 2가)
www.bok.or.kr
발행일 2019년 9월 30일
제작 (주)제일프린테크 / (주)명진씨앤피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 조사·연구자료 > 주요 보고서 > 지역경제보고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지역협력실 지역경제팀(전화 02-759-4104, 이메일 bokregeco@bok.or.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ISSN 2288-4386